

월간 해외문화정책동향

2021. 9월

Vol.19

ISSN 2713-9387

모음

다양한 사회적 위기, 문화예술교육 실천가들의
역할과 국제문화교류의 연대 모색



— 1971-2021
Korean Culture and
Information Service

 문화체육관광부

 KOCIS 해외문화홍보원
Korean Culture and Information Service

KOFICE

I 세계는 지금 | 정책 동향

- 4 1. 문화예술 : 미국, 일본, 터키, 영국, 중국, 벨기에, 이탈리아, 러시아, 호주, 스웨덴, 프랑스, 폴란드, 독일, 인도, 태국
- 12 2. 문화산업 : 영국, 중국, 미국, 일본, 터키, 러시아, 아르헨티나, 호주, 나이지리아, 인도네시아, UAE
- 19 3. 체육 : 중국, 필리핀, 호주, 일본, 벨기에, 브라질, 태국
- 22 4. 관광 : 영국, 러시아, 호주, 미국, 인도네시아, 일본, 벨기에, 브라질, 인도, UAE, 중국
- 28 5. 문화체육관광통계 : 터키, 프랑스

II 세계는 지금 | 이슈 동향

- 32 1. 2020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살펴본 일본의 스포츠 진흥 정책
- 53 2. 녹색 관광과 관광 경제의 전환을 위한 권장 사항
- 57 3. 엔터테인먼트와 미디어(E&M) 산업의 향후 전망(2021-2025년)

III 이달의 담론 : 다양한 사회적 위기, 문화예술교육 실천가들의 역할과 국제문화교류의 연대 모색

IV What's on KCC abroad | 재외한국문화원 9월 활동계획

I

세계는 지금 [정책 동향]

1. 문화예술 : 미국, 일본, 터키, 영국, 중국, 벨기에, 이탈리아, 러시아, 호주, 스웨덴, 프랑스, 폴란드, 독일, 인도, 태국
2. 문화산업 : 영국, 중국, 미국, 일본, 터키, 러시아, 아르헨티나, 호주, 나이지리아, 인도네시아, UAE
3. 체육 : 중국, 필리핀, 호주, 일본, 벨기에, 브라질, 태국
4. 관광 : 영국, 러시아, 호주, 미국, 인도네시아, 일본, 벨기에, 브라질, 인도, UAE, 중국
5. 문화체육관광통계 : 터키, 프랑스

1. 문화예술

코로나19 위기 속, 삶과 예술을 이어주는 지속가능한 지원사업 모색

미국

지역사회 내 예술 관련 기관 보조금 지원

캘리포니아주예술위원회(California Arts Council)는 캘리포니아 내 비영리단체와 주정부 기관의 프로젝트 지원의 일환으로 총 441건의 보조금을 수여한다고 발표했다. 지원금은 600여 개의 보조금 포함 1,446만 3,000달러(약 169억 8,679만 원)로 예상된다. 캘리포니아주 예술위원회는 예술을 통해 지역사회의 육성과 치유, 예술문화기관간의 교류, 창작 분야의 일자리 보호, 문화유산 보존과 스토리텔링 등에 중점을 둔 5개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출처 : 캘리포니아주 예술위원회 공식 누리집, 2021.8.4.)

문화시설의 대규모 운영재개를 통해 경제 활성화 기대

뉴욕 극장가와 문화예술계는 10만 명의 인력과 150억 달러(약 18조 원)의 재정을 투입해 오는 가을 문화시설 재개장을 준비 중이다. 스미소니언(Smithsonian) 재단 산하 문화예술기관은 지난 8월부터 관람 시간과 인원 제한, 백신접종자와 2세 미만 방문객의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했다. 단, 국립 아프리카·미국인 역사문화 박물관, 국립 동물원과 쿠퍼 휴잇(Copper Hewitt) 박물관, 스미소니언 디자인 박물관 3개 문화시설은 관람 시간과 인원 제한조치를 유지한다. 또한 브로드웨이 극장시설도 관람객 대상으로 백신접종 증명서와 12세 이하 어린이 대상 PCR 음성결과 제시 등 극장별 코로나19 방역지침을 마련했다.

(출처 : The Washington Post, 2021.7.20., 2021.7.9./The New York Times, 2021.7.30.)

뉴욕시 내 공연시설 출입 시 백신접종 증명서 제시 의무화

뉴욕시는 미국 도시 중 처음으로 브로드웨이 극장가를 포함 모든 실내 공연장 방문객들에게 백신접종 증명서를 요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해당 정책은 오는 9월 13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출처 : The New York Times, 2021.8.3.)

일본

문화예술계 종사자에게 코로나19 백신접종 실시

일본 문화청은 지난 8월부터 문화독립행정법인단체와 공동으로 개인 예술인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접종 대상은 예술인 7,600명과 문화독립행정법인 관계자 400명을 포함한 총 8,000명이다. 예술인들의 백신접종은 10월 7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출처 : 일본 문화청 공식 누리집)

터키

수멜라 수도원 복원 작업 완료

터키의 세계적인 유적지 수멜라 수도원은 복원을 끝내고 5년 만에 재개원했다. 수멜라 수도원은 흑해 지역에서 매우 중요한 관광지로 외래 방문객들을 위해 부분 개방을 했다. 복원 작업 중 수도사의 방, 수행자의 방, 외부인의 방 등의 신규 예배당이 발굴됐다. 수도원 외벽과 지붕에도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프레스코화가 있으며, 이에 대한 채색 작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출처 : Sozcu, 2021.7.1)

현재까지 복원 진행 중인 수멜라 수도원의 프레스코화 일부



(출처 : 대한항공 공식 누리집)

아슬란테페 유적지' 제44차 유네스코 세계유산 목록 등재

터키 문화관광부는 아슬란테페 유적지가 유네스코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됐다고 발표했다. 아슬란테페가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이유는 사회 가치의 변화, 계급에 기반을 둔 사회 구조, 정치 제도, 경제 구조 등 시대적 특징이 보존되어 있기 때문이다. 아슬란테페는 기념비적 건축양식, 행정, 기술, 예술 등의 분야에서 고도의 발전문명을 이뤄왔다. 아슬란테페 유적지는 메소포타미아와 주변지역에서 발굴된 문화유적지 중 가장 잘 보존된 유적단지로 평가되고 있다.

(출처 : AA 통신, 2021.7.26.)

1 동부 아나톨리아와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국가 형성 과정에서 영향을 준 아슬란테페 문화

영국

라이브 공연 보험제도 마련

영국 정부는 7억 5,000만 파운드(약 1조 1,25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코로나19 제한조치로 취소된 공연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보험제도를 마련했다. 영국 정부에 공연 취소 관련 피해보상 제도를 촉구한 공연행사 업계는 대부분 환영의 뜻을 표했다. 새로운 보험제도는 보험사에 영국 정부가 재보험자 역할을 하고, 공연행사 업계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한편 독립축제협회(The Association of Independent Festival)는 새로운 지원제도를 환영하면서도 축제 부문은 보험의 보상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등 구체적인 보상내용에 대해 아쉬움을 밝혔다. 공연행사 업계는 9월부터 보험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 제도는 2022년 9월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출처 : 영국 BBC, 2021.8.6.)

중국

아트페어 홍콩, 일반인들도 구매 가능한 작품으로 기획

〈제8회 어포더블 아트페어² 홍콩(Affordable Art Fair Hong Kong)〉이 개최됐다. 기존 아트페어는 주요 갤러리와 수집가를 대상으로 세계적인 작가들의 작품을 중심으로 진행해 왔다면 어포더블 아트페어는 일반 관람객도 구매가능한 가격의 작품을 전시하고 판매하는 취지의 행사다. 작품가는 1,000 홍콩 달러(약 15만 원)부터 10만 홍콩 달러(약 1,500만 원)까지 책정됐으며, 총 40개의 국내의 갤러리들이 참여했다. 2021년 아트페어는 코로나19로 인해 2019년 대비(115개 갤러리 참여) 약 1/3의 규모로 축소됐다.

(출처 : Affordable Art Fair 공식 누리집)

2 뉴욕, 밀라노, 멜버른, 스톡홀름 등 11개의 주요 도시에서 1월~11월까지 개최되는 아트페어

벨기에

문화예술 분야의 수해 피해시설과 예술종사자의 복구 지원제도 추진

프랑스어권 정부는 지난 7월 홍수로 피해를 입은 문화시설에 복구 지원금을 마련했다. 지원금은 선지급 방식으로 이뤄지며, 지원 금액은 약 500만 유로(약 67억 원)에 달한다. 지원금의 보상 기간은 1년이며 무이자로 상환된다. 또한 프랑스어권 정부는 자연재해로 문화기관과 관련 종사자의 피해 사례가 늘어나면서 보험사와 재난 기금의 지급이 지연될 것을 대비해 신속한 복구 처리를 위해 현금 융통 서비스를 구축했다.

(출처 : 벨기에 프랑스어권 문화부, 2021.8.3.)

이탈리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문화예술계 지원 현황

이탈리아 정부는 코로나19로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한 문화예술계와 교육 분야에 지원정책을 마련했다. 미술 부문에서는 전시 중단으로 연간 수입의 50% 이상의 타격을 입은 물류회사에 물류수송비를 지원했다. 교육 부문에서는 이탈리아 문화부와 교육부가 협업해 영화학교 학생들을 위한 공동 온라인 플랫폼과 교육 자료들을 생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원금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연예술 : 영화, 연극, 공연 250만 유로(약 34억 원)
- 미술 : 물류운송사 500만 유로(약 69억 원)
- 교육 : 향후 3년 간 영화교육기관에 3,600만 유로(약 496억 원)

(출처 : 이탈리아 정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현황

이탈리아 정부는 베네치아를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하는 것을 취소했다. 다리오 프란체스크 이탈리아 문화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 “베네치아를 향한 국제 관심은 계속 유지되어야 하며 베네치아의 석호 보호와 지속 가능한 개발은 모두의 의무이다.”라고 강조했다. 이탈리아 정부는 베네치아의 보존을 위해 산마르코 분지와 운화, 주데카 운화에 대형선박(2만 5,000t 급 이상)이 입항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 한편, 파도바의 우르브스 픽따(Urbs Picta)³, 몬테카티니 온친, 볼로냐 화랑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됐다. 이로써 이탈리아는 총 58건의 세계유산을 보유하고 있다.

(출처 : 이탈리아 정부)

3 조토의 스트로베니 성당과 파도바의 14세기 프레스코화

러시아

러시아와 이탈리아 양국의 ‘박물관 정상회담’ 개최

러시아 문화부는 이탈리아에서 진행된 ‘제1회 G20 국가 문화부 장관회담’에서 러-이탈리아 양국 간의 문화협력 발전에 대해 협의했다. 러-이탈리아 양국은 오는 9월 박물관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양국의 박물관 대표들이 만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박물관 경제발전, 향후 공동 프로젝트 추진과 현재 동향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 러시아 문화부, 2021.7.30.)

교육·멘토링 프로젝트의 재정지원

문화시책기금 대통령 재단(Presidential fund of Cultural Initiative)은 교육·멘토링 프로젝트에 840억 루블(약 1조 3,348억 원)을 지원했다. 이번 재정지원은 러시아 84개 지역의 프로젝트 제작자 38,000명과 프로젝트 12,460건에 편성됐으며, 그 중에 교육·멘토링 프로젝트에서 가장 많은 수혜를 받았다.

이번 지원사업은 8개 분야이며, 그 중에서 가장 높은 지원률을 보였던 분야는 ‘문화·창의산업을 통한 러시아 전통가치 관련 프로젝트’(33.4%)였다. 그 다음은 ‘지역 정체성’(24.6%), ‘문화예술 창의산업 분야의 젊은 인재 발굴’(10.7%) 등의 순이었다.

(출처 : 러시아 문화부, 2021.8.9)

호주

‘코로나19 예술지속가능성 기금’ 지원사업 추진

호주 연방정부는 ‘코로나19 예술지속가능성 기금’의 일환으로 3,500만 호주 달러(약 295억 원)를 지원했다. 지속가능성 기금⁴의 목적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정상적인 재개가 불가능한 예술업계를 지원하는 것이다. 오페라호주(Opera Australia)프로덕션은 본 지원금 중 400만 호주 달러(약 34억 원)의 수혜를 받았다. 호주위원회가 지원하는 오페라호주는 호주 전역에 고품질의 작품을 제공하고 동종업계 중 연간 높은 수익을 기록하며 400여 명의 상주 인력을 고용하고 있는 주요 기관이다. 폴 플레처(Paul Fletcher) 문화부 장관은 오페라호주와 같은 대형 기관이 무너질 경우, 호주의 예술생태계 전체가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PAUL FLETCHER MP, 2021.7.26.)

4 코로나19 팬데믹이 완화되는 상황에서 정상적인 재개가 불가능한 상황까지 처한 예술업계를 대상으로 재정지원사업

호주 최대 규모의 공연예술 아트센터 신축 계획발표

퀸즈랜드 주정부는 코로나19 회복 계획 사업의 일환으로 공연예술 아트센터 신축에 1억 7,500만 호주달러(약 1,473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해당 아트센터는 2023년에 개장 예정으로 5개의 공연장과 연간 30만 명의 방문객을 수용할 호주 최대의 공연예술센터로 건립될 계획이다. 아니스타샤 말라슈에이(Annastacia Palaszczuk) 퀸즈랜드 주총리는 “퀸즈랜드는 2032년 올림픽 개최에 대비해 국제수준에 맞는 문화예술 기반시설을 제공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출처 : 퀸즈랜드 주정부, 2021.8.12.)

스웨덴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된 문화행사 재정지원

스웨덴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된 문화행사의 지출액에 대해 재정적 보상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지원금은 총 30억 크로나(약 4,019억 원)이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자격조건 : 2021년 6월~12월 기간에 계획된 250명 이상 규모의 문화 행사
- 지원금 : 행사 지출액의 최대 70% 보상, 지원금 최대 1,750만 크로나(약 23억 4,412만 원)

(출처 : SVT, 2021.7.16.)

16번째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후보등록 추진

스웨덴 정부는 과학자 칼 폰 린네(Carl Von Linné)의 업적을 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에 16번째 후보로 등재 추진 중이다. 칼 폰 린네(Carl von Linné) 과학자는 스웨덴 출신의 식물학자로 생물 분류학의 기초를 마련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다.

(출처 : sverigesradio, 2021.7.27.)

프랑스

문화예술 기관에 보건패스⁵ 적용

프랑스 정부는 지난 7월 「보건위기 관리 법안」을 채택해 50인 이상 수용하는 문화예술기관에 보건패스제도를 시행했다. 지난 8월에는 카페, 레스토랑, 대중교통 등 다중생활시설에도 보건패스 사용을 확대했다. 보건패스는 9월 30일부터 12세~17세 청소년 대상으로 확대 적용되며 11월 15일까지 운영된다. 단, 본 보건패스 제도를 따르지 않을 시 다음과 같은 제재조치가 따른다.

- 적용 장소에 보건패스 미소지 또는 허위 보건패스 제시할 경우 : 벌금 135유로(약 18만 원), 30일 이내 3회 이상 적발 시 벌금 3,750유로(약 513만 원) 또는 6개월 징역
- 관련 기관의 보건패스 미검사 시 : 7일간 사업장 폐쇄, 45일간 3회 이상 적발 시 벌금 9,000유로(약 1,232만 원) 또는 1년 징역

(출처 : 프랑스 정부)

<아비뇽 연극제> 개최를 통해 대중들의 축제 관심 재확인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됐던 <아비뇽 연극제>가 올해 7월에 재개했다. 이번 아비뇽 축제는 프랑스 보건부 결정에 따라 100% 좌석제로 진행됐다. 47건의 대면 공연은 317회 막을 올렸으며, 70건 이상의 컨퍼런스와 40건 이상의 낭독회가 개최됐다. 이번 축제는 약 131,500여 건의 유료티켓 판매를 기록했으며 이는 2019년 대비 19,500여 건이 증가한 것이다. <아비뇽 연극제> 감독은 “보건패스 제도의 도입 등 코로나19에 대한 방역 조치로 아비뇽 축제 행사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본 축제를 향한 대중들의 관심을 재확인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평가했다.

(출처 : 프랑스 정부)

폴란드

문화예술 종사자들을 위한 장학금 공모사업 시행

폴란드 문화유산부는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매월 3,500 폴란드 즈위티(약 105만 원) 상당의 장학금을 수여했다. 해당 장학금은

5 코로나19 PCR, 항체검사 음성 증명서, 백신접종 증명서 등의 3가지 서류를 디지털 또는 실물로 발급

예술 창조(문학, 미술, 음악, 무용, 영화 등)와 문화 진흥(교육, 경영, 인력 양성 등)의 항목으로 나누어 공모를 통해 지원된다.

(출처 : 폴란드 문화유산부, 2021.7.20.)

독일

장애인을 위한 문화교육 프로젝트 추진

독일 연방정부는 '문화로의 통합 프로젝트'를 통해 장애인을 위한 문화교육 프로젝트를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본 지원사업의 취지는 장애인들의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장려하는 것이다. 독일 내 문화예술 기관들은 이미 문화교육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했으며 30만 유로(약 4억 1,116만 원)의 재정지원을 받았다. 모니카 그뤼터스(Monika Grütter) 독일 문화부 장관은 "문화 참여는 사회적 결속을 위한 기본요소로 문화예술 기관들은 소외계층, 특히 장애인들에게 더욱 문화향유의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출처 : 독일 연방문화미디어부 보도자료, 2021.8.10.)

지역 박물관 지원사업 확대

지역 박물관 지원사업은 독일 연방정부의 농촌 지역문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2020년에서 2022년까지 총 800만 유로(약 109억 6,424만 원)를 지원한다. 독일 연방정부는 2021년 수혜 대상 박물관들에게 400만 유로(약 54억 8,212만 원)를 교부할 계획이다.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향토 박물관

- 지원 대상 : 거주인구 수가 최대 2만 명인 지역의 지역 박물관, 야외 박물관, 고고학 공원 등
- 기타 : 최소 자부담금 25%이상 문화기관은 최대 2만 5,000유로(약 3,426만 원)의 지원금 신청 가능

• 농업 박물관

- 지원 대상 : 최대 3만 명 주민이 거주하는 농촌 지역소재 농업 박물관
- 기타 : 최소 자부담금 25%이상 기관은 최대 5만 유로(약 6,853만 원)의 지원금 신청 가능

(출처 : 독일 연방문화미디어부 보도자료, 2021.7.29.)

독일 다뉴브라임(Donaulimes), 유네스코 세계유산 목록 추가 결정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다뉴브라임⁶을 세계유산 목록에 추가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독일, 오스트리아, 슬로바키아 3국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록에 대한 제안을 공동으로 제출했다.

다뉴브라임은 독일의 51번째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군대 캠프,

⁶ 현재 독일 바이에른, 오스트리아, 슬로바키아, 헝가리, 세르비아, 루마니아, 불가리아에 걸친 다뉴브강(도나우강)을 따라 소재한 예전 로마제국 국경의 로마군대 요새를 말하며, 이들 요새는 수많은 망루, 군대 주둔지, 요새 등으로 구성

요새, 주민 정착지 등 77개 유적이 포함돼 있다. 해당 유적지들은 당시 외세침입에 대한 방어기술, 건축, 예술, 종교, 정치 등 로마제국 시대의 문화를 보여준다.

(출처 : 독일 유네스코위원회 보도자료, 2021.7.30.)

인도

밀반출된 문화재 3점 반환 조치

인니 문화교육연구기술부는 해외로 밀반출된 문화재 3점을 환수했다. 환수된 문화재 3점은 1억 8,600만 루피아(약 1,512만 원) 상당의 시바신 조각상, 4억 6,800만 루피아(약 3,804만 원) 상당의 힌두교 여신 조각상, 5억 9,700만 루피아(약 4,853만 원) 상당의 힌두교 가네샤 조각상이며 총 가치는 12억 5,000만 루피아(약 1억 원)이다.

또한 인니 문화교육연구기술부는 문화유산의 밀반출을 방지하기 위해 문화재 지정 확대와 경찰과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해외로 밀반출되는 문화유산을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출처 : ANTARA NEWS, 2021.7.23.)

태국

‘깡끄라짠 숲’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지난 7월 태국의 ‘깡끄라짠 숲’을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했다. 깡끄라짠 국립공원은 태국과 미얀마 국경 사이에 위치한 태국에서 가장 큰 국립공원이며 생태학적으로 중요한 자연 보고로 멸종위기 인 시암 악어, 아시아 코끼리, 순다 천갑산 등이 서식해 있다. 유네스코는 지역 소수민족(카렌족)과 태국 정부와의 충돌문제로 세계유산등재를 보류했다. 하지만, 태국 정부는 지역 소수민족과의 거주지와 일자리 등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깡끄라짠 숲’을 예정대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했다.

(출처 : BangkokPost, 2021.7.29./Thairath, 2021.7.27./ThaiPost, 2021.7.21.)

2. 문화산업

중국의 강력한 콘텐츠 산업 규제

영국

브렉시트 이후 개선되지 않은 유럽연합의 무비자 제도 비난

영국의 음악계는 영국 정부가 브렉시트 협상에서 무비자 근로 협정에 대한 복구를 시도하지 않았다고 불만을 나타냈다.¹ 영국 문화부는 지난 8월 “유럽연합(EU)의 19개 회원국에 무비자 단기 관광이 허용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해 해당 회원국의 단기 투어에 비자나 취업 허가가 필요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영국의 음악계 관계자는 “EU의 무비자 제도는 19개국마다 규정이 다르며, 이번 성명은 음악계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제도이기보다 정치적인 행동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영국의 대중가수 엘튼 존(Elton John)은 기존 제도와 변함없는 이번 영국 정부의 성명에 실망감을 드러내며 “브렉시트 이후 EU의 무비자 제도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미래 세대의 인재를 잃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The Guardian, 2021.8.5)

¹ 브렉시트 이후, 국가별로 비자 혹은 취업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해당 지역에서의 공연이 가능하며, 악기 등을 실은 화물차량에 대한 무관세 허가증과 수수료 의무적 지급

중국

중국 게임의 우수한 제품화를 통해 중국 자체 개발 게임 선두권 유지

중국의 게임공정위원회와 중국게임산업연구원은 「2021년 6월 중국 게임산업 보고서」를 발표했다. 본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상반기 중국 게임 시장의 매출액은 1,504억 9,300만 위안(약 27조 2,889억 원)으로 2020년 대비 7.89% 증가했고, 중국 게임 이용자 규모는 6억 6,700만 명으로 2020년 대비 1.38% 증가했다. 이 중 중국에서 자체 개발한 게임 판매수입은 1,301억 위안(약 23조 5,923억 원)으로 2020년 대비 8.3% 증가했다. 해외시장에서의 중국 게임 판매수익은 84억 6,800만 달러(약 9조 9,889억 원)로 2020년 대비 11.58% 증가했다.

중국 기업은 오리지널 게임 제품을 혁신적으로 향상시키고 우수한 제품으로 발전시켰다. 한 예로, ‘나루터’, ‘음양사’, ‘내일의 방주’ 등의 게임은 오랜 시간 개발됐고 그 결과 2020년 대비 해당 게임 수입이 증가했다.

또한 중국 정부는 베이징, 상하이, 장쑤 등의 지역에 디지털 출판, e스포츠 발전과 관련 사업 단지 조성 등의 발전정책을 잇따라 내놓아 도시 인지도를 높이는 한편, 현지 관광문화산업발전을 통한 게임산업의 특색화, 지역 집약화 등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출처 : 상하이시 문화관광국, 2021.7.30)

「약물오남용 경력자 영상 송출 금지」 법안 통과

「북경시마약금지조례」는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 해당 조례에는 약물오남용 연구자가 TV 프로그램 포함 각종 동영상 제작과 출연물의 송출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출처 : 베이징 정부, 2021.8.28)

「온라인 공연 기획사 관리방법」 초안 발표

중국 문화여가부는 지난 7월 「온라인 공연 기획사 관리방법」의 의견수렴을 위한 초안을 발표했다. 해당 법에 따르면, 공연 기획사는 온라인 공연 관련 영업활동을 위해서 '영업성공연허가증'을 취득해야 하며, 이용자를 기만해 소비를 유도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출처 : 중국 문화여가부, 2021.7.12)

자국 영화 상영 장려를 위해 재정지원

중국 재정부는 「2021년 국가영화사업 발전특별자금의 지방자금예산 보조에 관한 통지」에 따라 중국 영화산업 발전을 위해 총 3억 6,400만 위안(약 657억 원)을 지원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목표 :
 - 디지털영화관 550개 신규 설립지원으로 포스트 코로나 이후 지속적인 영화산업 발전 도모
 - 소수민족언어 영화 더빙제작 800편 이상 추진으로 중화문화를 널리 알리고 중국 민족의 단결 촉진
 - 박스오피스 총수입에서 자국영화 55% 이상 비중 증가
- 지원금 : 각 지방당국 2억 7,400만 위안(약 495억 원), 민족언어 더빙작품 5,374만 위안(약 97억 383만 원), 중서부 지역 영화관 건설 1억 1,398만 위안(약 206억 원), 향진 영화관 건설 6,290만 위안(약 114억 원), 자국영화 장려금 8,979만 위안(약 162억 원)

(출처 : 1905, 2021.7.8.)

건전한 온라인 환경조성을 위한 미성년자 집중 단속

중국 인터넷정보관공실은 2021년 하반기에 미성년자의 건전한 온라인 환경조성을 위해 집중 단속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단속은

미성년자의 심신을 위협한다고 판단되는 7가지 문제에 초점을 맞춰졌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6세 이하 미성년자의 해외 온라인 스트리밍 이용과 어린이 왕홍을 홍보하는 행위
- 미성년자 대상 온라인 교육에서 음란과 폭력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게임, 음악, 소셜 등 학습과 무관한 콘텐츠 홍보
- 폭력, 공포, 범죄 등의 내용이 포함된 불법 애니메이션 작품
- 단체 채팅방 등에서 아동 향성을 성적 대상화한 이모티콘 사용과 음란영상 공유
- 미성년자의 팬덤 활동에 고액소비, 상호비방, 응원모금 등 유도
- 청소년의 가치관 왜곡, 인신공격, 악의적 신고 등 온라인상에서의 폭력 행위
- 온라인 플랫폼에서 청소년 모드의 적용 여부

(출처 : 중국 인터넷정보판공실, 2021.7.21)

「가무 오락장소 노래방 음악 콘텐츠 관리 임시규정」 발표

중국 문화부는 「가무 오락장소 노래방 음악 콘텐츠 관리 임시규정」을 발표했다. 해당 규정은 「오락장소관리조례」제13조에 관련있는 곡과 영상을 금지하도록 했으며,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해당 조례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오락장소관리조례 제13조
- 오락장소 내 오락활동은 다음을 포함할 수 없다.
 - 1) 헌법이 정한 기본원칙을 위반하는 내용
 - 2) 민족 차별과 혐오 선동으로 미풍양속과 민족 단결에 위해가 되는 내용
 - 3) 외설독박폭력마약 관련 범법행위 혹은 범죄 내용
 - 4) 사회 공중도덕과 민족 전통을 위배하는 내용
 - 5) 타인 비방과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출처 : 중국 문화여가부, 2021.8.11.)

미국

할리우드 엔터테인먼트 뉴멕시코로 이동

뉴멕시코는 2021년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통해 6억 2,300만 달러 (약 7,267억 원)의 수익을 얻었다. 이는 할리우드의 주요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이 35%의 세금감면과 코로나19 방역규제 완화 등을 이유로 캘리포니아를 떠나 뉴멕시코로 스튜디오를 이전했기 때문이다. 넷플릭스와 NBC 유니버설은 2021년에 뉴멕시코에서 제작 스튜디오를 설립했다. 뉴멕시코 경제개발부에 따르면, 뉴멕시코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2020년에 영화 26편, TV 프로그램 24편, 기타 미디어 프로젝트 19개가 제작된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 Mail Online, 2021.7.22.)

미 독립영화제, 성별통합 단일 시상제로 변경

미국 독립영화제인 '고담 어워즈(Gotham Awards)'는 2021년부터 성별을 통합한 단일 시상제로 진행한다. 영화 연기자 성별 시상 문제는 오랫동안 논쟁의 주제였다. 그래미 행사는 2012년에 단일 시상제로 변경했고, MTV 시상식은 2017년에 성별을 구분하는 방식을 바꿨다. 최근 베를린 영화제에서도 공연부문에서 성별에 대한 중립을 표방한 바 있다.

(출처 : The New York Times, 2021.8.5.)

일본

코로나19로 인해 일본 애니메이션 제작 시장 규모 10년 만에 축소

일본 애니메이션 제작 시장은 2020년 2,510억 엔(약 2조 6,595억 원)으로 2019년 대비 1.8% 감소했다. 일본 애니메이션은 2011년 이후 라이선스 수입과 제작 편수의 증가로 2019년까지 해당 분야의 제작 시장이 확대됐다. 하지만, 일본 애니메이션의 시장이 10년 만에 축소된 이유는 TV 애니메이션 제작 편수 감소, 코로나19로 인한 제작 일정 지연, 프로그램 편성의 변경 또는 연기 등의 다양한 요인이 작용됐다. 또한 일본 내 애니메이션 제작사의 경영 통합, 도산, 폐업 등의 현상도 애니메이션 제작 시장의 축소 원인이 됐다.

(출처 : 제국데이터뱅크, 2021.8.2.)

터키

문화시설과 행정기관의 디지털화 계획발표

터키 문화관광부는 통신사와 협업해 「히타이 문화관광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각종 문화시설과 문화관광부를 포함한 행정기관의 조직망을 디지털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신규 프로젝트는 터키에서 인터넷 속도를 가속화하고 공공장소에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업명 : 히타이 문화관광 프로젝트
- 사업기간 : 2024년 말까지
- 대상기관
 - 공공문화시설 : 1,085개의 도서관(81개 광역시 소재), 문화 센터, 문화유산 유적지, 박물관
 - 행정기관 : 터키 문화관광부, 지방자치단체 등의 문화행정조직

- 주요내용 : 공공문화시설과 문화행정기관에 광케이블 설치, 도서관에 무선 인터넷 제공, 모바일 도서관 서비스 제공
- 기대효과 : 공공문화시설과 문화행정조직망의 전면 디지털화를 통해 관리 체계 개선, 모든 문화 관련 기관의 단일 시스템 정비

(출처 : Trthaber, 2021.7.23.)

러시아

러시아 영화산업 발전과 국제 협력 추진

러시아 문화부는 해외 영화 제작사들의 자국 내 영화 촬영을 지원하고 국제 협력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한 러시아 문화부와 로스키노(ROSKINO)²가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해외 제작사와의 러시아 콘텐츠 제작(Russian Content Worldwide), 러시아 영화 축제(Russian Film Festival), 핵심 구매자 대상으로 개최되는 행사(Key Buyers Event)등의 프로젝트를 통해 국제 협력 가능성을 소개했다.

² 영화, 시리즈, 애니메이션 진흥을 위한 국가기관으로 러시아 인재들의 해외 창작 잠재력과 러시아 연방 내 공동 제작 기회 등 담당

- 해외 제작사와의 러시아 콘텐츠 제작(Russian Content Worldwide) : 해외와 러시아의 영화제작사의 공동 제작 프로젝트
- 러시아 영화 축제(Russian Film Festival) : 해외 관객을 대상으로 러시아의 현대 장편영화, 다큐멘터리와 애니메이션 소개
- 핵심 구매자 대상으로 개최되는 행사(Key Buyers Event) : 2021년에 80개국 대표들이 참여한 국제적 규모의 러시아 콘텐츠 시장

(출처 : 러시아 문화부, 2021.7.30.)

아르헨티나

문화산업시장(MICA) 디지털 기반 사업 시행

아르헨티나 문화산업시장(MICA)는 2011년부터 아르헨티나 문화부 주최로 운영된 현지 최대 규모의 박람회이다. 본 박람회의 취지는 자국 내 문화예술 소비 촉진, 예술경영지원을 통한 문화산업 시장 강화, 문화콘텐츠의 세계화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다. 아르헨티나 문화부는 2021년부터 MICA의 온라인 기반이 예술가, 콘텐츠 생산자 등 관련 업계의 교두보 역할을 하는 등 문화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출처 : 아르헨티나 문화부, 2021.8.6.)

호주

원주민 영화제작 지원

호주 연방정부는 원주민의 영화제작에 7만 호주 달러(약 5,897만 원)를 지원했다. 본 지원사업의 목적은 호주의 원주민 역사를 현대적인 시각으로 재해석하고 그들의 문화를 지속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것이다.

호주 연방정부는 'Re/Vision'이라는 프로젝트를 통해 원주민 영화 제작자와 호주국립영화·음향기록보관소(NFSA)와 협력해 관객들에게 호주의 시청각 유산을 소재로 한 작품을 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PAUL FLETCHER MP, 2021.8.5.)

나이지리아 전통의상 착용 행사를 통해 전통 콘텐츠를 패션산업으로 확대

오순 주정부는 매년 8월 27일을 오순 아디레의 날(Adire Osun Day)로 지정했다. 따라서 모든 공직자들은 행사기간 동안 아디레 엘레코(Adire Eleko) 전통의상을 착용해야 한다. 오순 주정부는 전통의상 착용 행사를 통해 지역전통을 보존하고 창의경제를 선도하는 패션산업으로 발전시키고자 한다고 밝혔다. 오투바 올루세군 룬세우(Otunba Olusegun Runsewe) 나이지리아 문화예술위원장은 “주정부의 결정을 적극 지지하며, 아프리카 전통염색문화의 계승과 발전이 문화관광산업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출처 : Daily Trust, 2021.7.14.)

인도네시아 인니영화 관람의 기회 확대를 위해 교육기관과 연계 제안

인도네시아는 인구수 대비 영화관람 시설 수가 적고 대도시에 편중돼 일반 시민들의 영화관람 기회가 제한적이다. 인니 문화교육연구기술부는 영화관람 시설 수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9년부터 ‘인니영화 저가관람(Indiskop)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인니 정부는 인니영화 상영 확대를 위해 문화예술 연구기능을 갖춘 교육기관을 포함할 것을 제안했으며, 다양한 인적관계 구축과 영화 관람의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출처 : ANTARA NEWS, 2021.8.7.)

한국 온라인 시장에 인도네시아 전통의상 진출

주한 인니대사관은 ‘Batik go to Korea 사업’을 통해 인니 전통의상 ‘바틱(Batik)’을 한국 온라인 시장에 출시했다. 인니와 한국 양국 업체는 비대면 업무협약을 통해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됐다. 한국의 온라인 사이트 대표는 “지적이고 아름다우며 교양을 갖춘 21세기의 한-인니 여성상을 표현하기에 바틱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자사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바틱 제품을 소개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말했다. 바틱의 한국 진출은 2022년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세계창조경제회의와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인도네시아의 창의경제 산업의 진출을 확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 REPUBLIKA, 2021.7.10.)

아부다비 관광 누리소통망 개시

아부다비 문화관광부는 스냅챗(Snapchat)이라는 누리소통망을 통해 ‘아부다비 관광(Visit Abu Dhabi)’ 사이트를 개설했다. 해당 관광 누리소통망은 아부다비 관광지, 스포츠, 영화 촬영장소, 공연 행사 등의 콘텐츠를 게시해 여행객들에게 아부다비의 아름다움과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출처 : WAM, 2021.7.26.)

‘문화·문학산업과 지식경제’토론회 개최

아부다비 예술협회의 문화·문학위원회는 ‘문화·문학산업과 지식경제’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적재산의 역할, 미디어 다양성, 지식경제와 인간의 핵심 역량 등의 내용을 다뤘다.

하메드 빈 모하메드(Hamed bin Mohamed) 아부다비 예술협회장은 “문화·문학산업은 문화와 창의 분야의 성장과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며 경제적·사회적 발전에 기여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지적·창의적 자본은 세계경제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민에게 지속가능한 부를 창출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출처 : WAM, 2021.7.15.)

3. 체육

중국

‘전 국민 건강의 날’을 통해 시민들에게 건강 생활방식 전파

상하이의 ‘전 국민 건강의 날’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상시 방역에 대비하고,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질서있는 건강한 생활을 전파하기 위해 비대면으로 개최됐다. 종목은 총 5개 분야에 30개의 종목으로 춤, 달리기, 이종격투기, 구기류 등으로 구성되었다. 상하이 여가스포츠협회는 같은 날 상하이시의 아마추어 도시 리그를 선포했다.

(출처 : 상하이 체육국, 2021.8.8.)

e스포츠 산업 규모 지속 확대

e스포츠 행사인 ‘도타2 인터네셔널(TI9)’과 ‘리그 오브레전드 S10, S11’은 최근 몇 년간 중국에 입성해 수준 높은 e스포츠 경기와 e스포츠 상품 관련 콘텐츠 등이 경쟁적으로 쏟아져 나오면서 중국의 e스포츠 업계의 가입자 규모와 열기가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상하이 정부는 중국 e스포츠 업계의 선두주자인 ‘글로벌 e스포츠 도시’를 조성하고 있으며, 글로벌 게임사는 상하이 장안구와 계약을 체결해 해당 게임 콘텐츠의 R&D센터를 설립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중국의 최대 온라인 쇼핑몰 기업은 상하이 푸둥신구와 계약을 맺고 중국 동구에 본사를 설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1 차이나조이(ChinaJoy) 기간에는 100여 개의 e스포츠가 전시관 안팎에서 열렸다.

(출처 : Polsat news, 2021.7.6.)

필리핀

체육부 설립에 관한 법안 통과 추진

필리핀 정부는 2020 도쿄올림픽에 참가한 필리핀 대표 선수들이 역대 올림픽 최고 성적을 거둬 따라 「체육부 설립」에 관한 법안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 마이클 로메로(Michael Romero) 필리핀 하원 부의장은 “엘리트 선수를 육성하기 위해서 필리핀은 최소 매년 10억 필리핀 페소(약 235억 원)를 투자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이 중 9억 필리핀 페소(약 212억 원)는 훈련센터 건립에 사용되고, 1억 필리핀 페소(약 24억 원)는 선수들을 후원하는데 사용해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또한 2020년에 설립한 필리핀 국립스포츠아카데미(NAS)는 체육 분야에 잠재력을 가진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등 체육 인재

육성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필리핀 정부는 2022년도 체육 예산을
다폭 증액시킬 예정이라고 밝혔고 필리핀올림픽위원회의 2021년 예산은
9억 4,400만 필리핀 페소(약 221억 8,400만 원)로 예전보다 약 4배 증액됐다.

(출처 : 필리핀 정부)

호주

2032년 올림픽에서 네트볼의 정식종목 채택을 위한 공식 입찰 착수

네트볼 호주(Netball Australia)는 세계 네트볼(World Netball)의
공식 후원을 받아 네트볼 종목이 2032 브리즈번 올림픽 정식종목에
채택되도록 공식 입찰에 착수했다. 네트볼은 1988년부터 영국 연방국가의
올림픽 대회격인 커먼웰스 게임(Commonwealth Games)의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으며 호주 국가 대표팀인 '다이아몬즈'는 해당 종목에서 세계 1위로
기록됐다.

(출처 : smh, 2021.8.9.)

일본

'스포츠·건강 도시 만들기'계획 추진

일본 스포츠청은 2020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스포츠 콘텐츠를 활용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스포츠·건강 도시 만들기' 계획을 추진했다. 본 사업의
취지는 도쿄올림픽의 열기로 고조된 스포츠에 대한 각 지역의 지속적인
관심을 유지하고 이를 문화유산의 일환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다.
일본 스포츠청은 우수 지자체 표창제도를 신설해 일본 스포츠청의 표창장
수여와 함께 스포츠청 공식 누리집을 포함 여러 매체를 통해 일본 전역에
우수 지역사회를 홍보할 예정이다.

(출처 : 일본 스포츠청 공식 누리집, 2021.7.15.)

벨기에

스포츠 기반 조성과 개발에 추가 지원

왈로니아 정부(프랑스어권)는 스포츠 기반시설 조성과 개발을 위해
500만 유로(약 69억 원)의 자금을 추가 투입한다고 밝혔다. 이는 자국
선수들이 국제경기에서 최상의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적의 훈련 환경을
제공하고, 2024년 파리 올림픽을 계기로 왈로니아 지역이 스포츠, 경제,
관광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왈로니아 정부는 2020년에 스포츠 단지과 실내 육상 경기장 조성
등의 4개 사업에 470만 유로(약 65억 원)를 지원했고 10개의 동일 추진사업
('21-'23)에는 1,650만 유로(약 228억 원)의 보조금을 책정한 바 있다.

(출처 : 왈로니아 정부, 2021.7.27.)

브라질

노년층을 위한 콘텐츠 제작

다큐멘터리 <기억의 회상(Revivendo Memórias)>은 축구박물관과 협력해 치매성 노년층을 대상으로 전시회의 주제를 통해 연관된 추억을 회상하고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는 취약계층의 포용, 그들의 외로움을 최소화하기 위한 관심과 애정 등 사회적 통합을 위해 제작됐으며, 축구박물관의 누리소통망을 통해 송출 됐다.

(출처 : 상파울루 문화창조경제부, 2021.8.10.)

태국

2020 도쿄올림픽 이후 태권도 지원 확대

태국 태권도는 역사상 최초로 2020 도쿄올림픽 금메달을 획득했다. 이에 태국 정부가 최영석 국가대표 감독의 귀하를 돕겠다고 발표하는 등 최 감독의 위상은 더욱 높아졌고 태국 관광체육부는 태권도의 지면 확대를 위해 유소년 인재육성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태국 태권도 인구는 1978년 군인 중심의 약 5,000명에 불과했으나, 2010년 이후 수련생들이 100만 명을 넘어 대중 스포츠로 안착됐다. 태국 정부는 도쿄올림픽에서 금메달 획득 이후 태권도를 배우려는 수련생들의 증가와 태국 태권도 대회(Taekwondo Thailand League)의 지속적인 성장을 전망했다.

(출처 : BangkokPost, 2021.7.25./inside the games, 2021.7.29.)

태국의 전통무술 무에타이, 올림픽 종목으로 인증 획득

무에타이국제연맹협회(IFMA)는 제138회 IOC총회에서 태국의 전통무술 무에타이가 올림픽 종목으로 정식 채택을 위해 추진 중이라고 발표했다. IFMA는 무에타이의 올림픽 종목을 위해 약물복용, 경기부정행위, 아동노동착취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태국올림픽위원회장으로 참석한 빠라윗(Prayut Chan-o-cha) 총리는 무에타이와 IFMA를 전폭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출처 : BangkokPost, 2021.7.21./Matichon, 2021.7.23.)

4. 관광

각국의 표준화된 방역 프로토콜, 관광업계 신뢰회복 재개

영국

휴가철 대비 코로나19 규정 발표

영국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휴가철의 대응 방침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숙박시설이나 대중교통 등 대중들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는 사회적 거리를 유지할 것을 당부했다. 이외에도 갯거리, 놀이공원, 극장 등 문화시설도 재개장을 허용하나, 일부 시설은 제한된 좌석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허용 지역 : 코로나19 음성 시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 간 자유 이동 가능
- 숙박시설 : 호텔, 호스텔, 에어비앤비(Air B&B), 카라반(Caravan) 등 숙박시설 영국 전역에서 운영 가능
- 환불 규정 : 코로나19 증상으로 인한 여행 취소 시 환불 또는 변경 가능하나 여행업체와 논의 필요
- 백신접종 증명서 : 일부 크루즈 여행사의 경우 PCR 검사 또는 2차 백신 접종 여부 증명 요구
- 제한 인원 : 북아일랜드(최대 10명)를 제외한 영국 내 제한 인원 규제는 해제되었으나 야외 또는 환기가 잘 되는 공간에서 모임 권장
- 대중 이용시설 : 상점 내 또는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 요구
- 실내 장소 : 레스토랑, 쇼핑센터 등 실내 장소와 대중교통 이용 시 사회적거리 1m 유지
- 대중교통 이용 : 웨일즈,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에서 비행기, 기차, 버스 탑승 시 마스크 반드시 착용
- 문화이용 시설 : 박물관, 갤러리, 놀이공원, 극장, 영화관 등의 문화시설 개장 가능. 단, 일부 공연장은 제한된 좌석으로 운영하므로 사전 예약 필수
- 해외여행 : 코로나19 검역 관련 신호등 체계에 따라 분류된 녹색국가 귀국자와 황색국가 중 만 18세 이하 또는 2차 백신 접종을 마친 성인의 경우 자가격리 제외

(출처 : BBC, 2021.8.11.)

러시아

청년 관광 활성화 사업에 재정지원

러시아 연방정부는 연방정부가 지정한 비영리단체의 청년을 대상으로 러시아 자국 여행 프로젝트에 20억 루블(약 318억 원)을 배당했다. 이번 여행 사업의 목적은 러시아 내 청년들을 위한 격려와 자국 여행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것이다. 러시아 연방정부는 약 5만 명의 청년들을 포함 예술교육 경시대회 참가자, 해당 대회의 우승자, 자원봉사자 등에게 이번 여행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주었다.

(출처 : Tourism, 2021.7.12.)

호주

호주-뉴질랜드 여행 프로그램, 코로나19 델타 바이러스로 중단

호주 연방정부는 계속되는 코로나19 델타 바이러스 확산으로 뉴질랜드와의 여행 프로그램을 중단했다. 호주-뉴질랜드 양국 간의 여행 프로그램은 두 달 동안 잠정 중단되며, 양국 정부는 재평가를 거쳐 재개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출처 : abc, 2021.7.23.)

미국

미국 해외 여행객 백신 접종 의무화 제도 추진

미국 연방정부는 해외 여행객들에 대한 백신접종 의무화 제도를 추진 중이라고 발표했다. 미 연방정부는 “항공과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여행 재개를 원하지만,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급속 확산으로 인해 제한조치를 해제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말했다. 외래 방문객에 대한 백신 요구 정책은 항공사와 관련 업체 협의를 통해 시행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출처 : REUTERS, 2021.8.5.)

관광 진흥을 위해 홍보활동 지원계획 발표

뉴욕시 관광청은 'It's time for New York City'의 구호아래 뉴욕 방문을 장려하는 홍보 영상광고를 제작했다. 뉴욕시는 “이번 광고캠페인에 정부지원금을 포함 3,000만 달러(약 350억 원)의 재정지원을 할 예정이며, 올해 뉴욕시를 방문할 예상 관광객 수는 3,600만 명이 될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출처 : 뉴욕시 관광청)

인도네시아

관광회복을 위해 교육기관과 협력 강화

인니 외교부는 관광을 포함 외교 전략의 분석과 개발에 대한 웨비나를

국립 대학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인니 국립대 관계자는 미국의 백신접종 정책 추진으로 2021년 하반기에 미국 관광객들이 해외여행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인니 외교부는 이번 웨비나의 연구결과를 통해 인니 정부와 관련 기관들을 대상으로 관광외교의 다양한 측면과 인니-북미 양국의 발전 전망을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출처 : ANTARA NEWS, 2021.8.1.)

일본

일본 관광청 신임 장관 취임

와다 코이치(Wada Koichi) 일본 관광청 신임 장관이 지난 7월 취임했다. 일본 관광청 신임 장관은 “코로나19로 심각한 재정난에 빠진 관광산업의 최우선 과제이며, 관광사업의 지속성과 고용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신임 장관이 제시한 향후 일본 관광 사업의 주요 정책은 다음과 같다.

- 관광업계 종사자 보상제도 : 지역관광 사업에 대한 지원 확대, 고용조정 조성금과 각종 용자제도의 특례조치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관광 분야의 대응 : 「전염병 확대방지와 관광수요의 회복을 위한 정책 계획」을 통해 숙박시설과 관광지 복원, 다양한 여행 콘텐츠 제공, 다양한 언어 구비 등 주변 환경 정비
- 일본 관광 부흥 정책 : 관광 소비의 80%가 자국 관광으로 「인바운드의 전략적 확대」를 통해 숙박업·여행업 지원, 지속가능한 관광 정책 추진 등 여러 과제들을 장기적인 전략으로 관광 정책 견인
- 기타 : 2020년 말에 중단된 ‘GO To Travel’ 사업에 대한 재개와 향후 방향성 제고

(출처 : 일본 관광청)

벨기에

숙박 정보 공유에 관한 협약 체결

플랜더스 관광청(네덜란드어권)은 에어비엔비(Airbnb, 세계적인 숙박 정보 공유 회사)와 숙박 공유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플랜더스 지역에 숙박업체는 에어비엔비에게 숙박 정보(이름, 주소, 수용인원)를 제공하고 공유한다.

플랜더스 관광청은 에어비엔비와 공유한 정보를 기반으로 숙박시설이 등록 현황, 화재 대비 유무, 숙박의 품질과 편리함 등 기준에 충족하는지 확인 할 수 있게 됐다. 플랜더스 관광청은 플랜더스 지역의 방문객에게 더 나은 품질과 안전한 숙박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출처 : 플랜더스 관광청, 2021.7.26.)

온천 도시 스파(SPA),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벨기에의 온천도시로 유명한 스파(SPA, 프랑스어권 지역)가 유네스코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됐다. 스파는 벨기에 전역 중에서 14번째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것으로 유산 보존, 온천 관리, 문화관광 등 문화유산의 보호와 유관 기관과의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 알로니아 정부, 2021.7.27)

요식업계와 숙박시설의 재개로 구인·구직 활기

코로나19 조치로 장기간 영업을 중단했던 요식업계와 숙박시설이 재개했고, 관련 업계에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구인구직 사이트 'JobShot'은 현재까지 약 1,200개의 일자리가 등록됐다.

(출처 : 알로니아 정부, 2021.7.27)

브라질

코로나19 이후 관광업계 재활성화를 위한 협력 관계 구축

브라질 관광부는 WTM(World Travel Market) 행사에 참여해 코로나19 이후 관광업계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사업과 정책비전을 제시하고 관광 분야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구축 등을 논의했다. 해당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생태 관광 : 생태관광은 관광업계의 재활성화를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로 브라질의 3대 장거리 산책로와 보도 또는 자전거 여행지 등의 '생태 산책로'홍보
- 신규 관광 사업 개발 :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 대응해 안전한 환경 구축 모색, 이미 2,900개의 기업과 관광 종사자 참여, 투자 포털 사이트를 출시해 약 60개 관광 프로젝트 개발에 대한 230억 달러(약 27조 원) 유치 홍보 등
- 인맥구축 : 관광 분야의 새로운 협력 관계와 비즈니스를 강화를 목표로 19개국에서 350개 이상의 전시회 업체 보유, 3,000명 이상의 관광 전문 인력 확보 등

(출처 : 브라질 관광부, 2021.8.10)

인도

브릭스(BRICS)의 관광교류 활성화 촉구

인도 관광부는 브릭스(BRICS)¹ 관광부 장관회의의 주재국으로 브릭스 회원국 간의 관광 교류의 활성화를 촉구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관광 분야를 지속가능하고 책임있는 관광으로 재창조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브릭스 회원국의 장관들은 전원 참여해 국가 간의 관광

¹ 러시아, 브라질,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교류를 강조하는 공식성명서를 발표했다. 해당 공동성명서의 핵심 내용은 녹색 관광을 위한 지속가능한 관광 정책, 생태계 보존, 신재생에너지의 사용 등이다.

(출처 : Travel World, 2021.7.14.)

UAE

2020 두바이 엑스포(Expo) 10월 재개

두바이 관광청은 지난 7월부터 공식 누리소통망과 2,400곳 이상 입장권 재판매처를 통해 전 세계에 판매 중이다. 2020 두바이 엑스포는 2021년 10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약 182일간 진행되며, 세계 최고 수준의 공연, 전시, 행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020 두바이 엑스포는 전 세계에서 열리는 엑스포 중 최장기간의 엑스포가 될 것이며, 해당 행사의 주최측은 약 2,500만 명의 방문객이 두바이에 방문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또한 UAE 민간항공국은 코로나19로 방역지침에 따라 입국제한 국가²를 두바이 엑스포 주최측의 후원을 받아 UAE에 입국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출처 : timeoutabudhabi, 2021.7.18./khaleejtimes, 2021.7.22.)

2 인도, 파키스탄, 남아프리카 공화국, 인도네시아,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콩고 민주공화국, 라이베리아, 나미비아, 네팔, 나이지리아, 우간다, 시에라리온, 스리랑카, 베트남, 짐바와

관광산업 전문가 교육 프로그램 확장 추진

아부다비 문화관광부는 '아부다비 전문가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출범 1주년을 맞았다. 2020년 5월에 출시된 온라인 교육은 17개국, 7개 언어로 시장에 성공적으로 출시됐다. 현재까지 1만 3,670명이 해당 교육과정에 등록했고 7,000명 이상이 '아부다비 전문가'로 졸업했다.

아부다비 전문가는 교육 이외에도 관광지의 정기적인 소식, 행사, 홍보 방법 등의 정보를 받는다. 여행사 운영자는 본 온라인 교육으로부터 배운 전문지식을 활용해 여행객들에게 더 나은 여행지를 제공하고 수익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 향상된 아부다비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은 세 가지 교육과정을 제공하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20 두바이 엑스포 : 테마 전시관과 엑스포 주제인 '마음을 연결하고, 미래를 창조하는(Connecting Minds, Creating the Future)'에 대한 목적, MICE 사업의 전망 등에 대한 교육 제공
- MICE : MICE 기업들에게 아부다비 내 회의 개최 장소와 MICE의 포상 관광 활동에 대한 의견 공유
- 아부다비 문화 자산 프로그램 : 아부다비의 문화재와 역사 등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행사 제공

(출처 : 아부다비 문화관광국, 2021.8.5.)

중국 전역에 문화관광 소비 캠페인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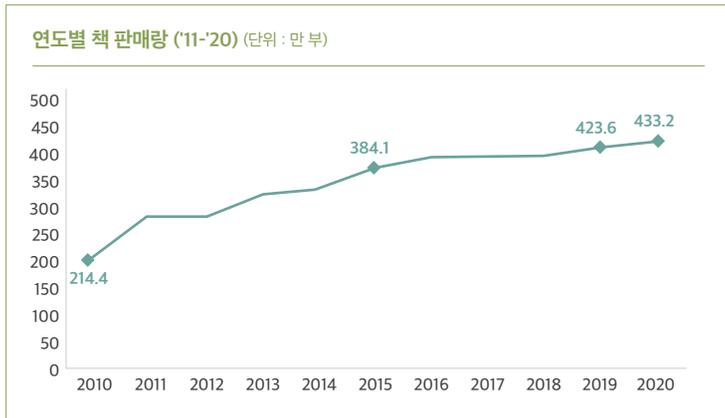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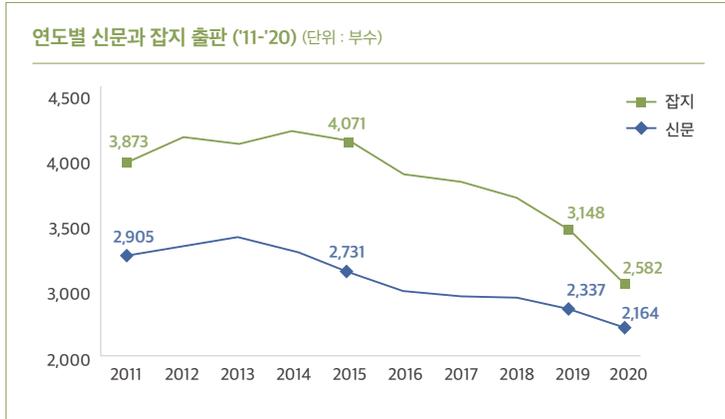
중국 문화부는 오는 10월부터 12월까지 '2021년 중국 전역의 문화관광 소비 시즌 캠페인'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캠페인은 '문화관광 소비장려, 수준 높은 산업 발전 추진'을 주제로 공연, 전시, 게임 등을 총망라해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중국 문화부는 오는 9월 말 쓰촨성 청두시에 소비시즌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행사에서는 다양한 소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관광 소비 캠페인 실시, 문화관광 분야의 소비관련 보조금과 포인트 인센티브 제공, 관광지 입장료 감면 등의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출처: 중국 문화부, 2021.7.30.)

5. 문화체육관광통계

터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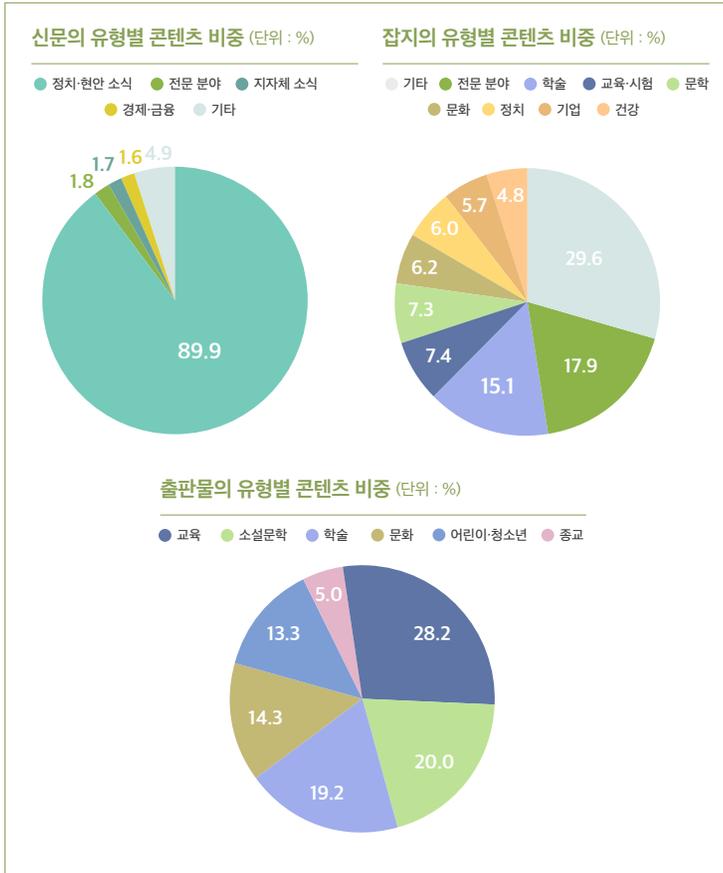
2020년 도서출판 분야 인쇄 13.5% 감소



(출처 : sozcu, 2021.7.27.)

2020년 신문·잡지 출판수는 2019년 대비 13.5% 감소해 총 4,746 부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신문은 2020년에 2,164부로 2019년 대비 약 7.4%(2,337부) 감소했다. 잡지는 2020년에 2,582부가 발행됐으며 2019년 대비 약 18.0%(3,148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020년 책 판매 부수는 4억 3,300만 부로 2019년 대비 2.3% 증가했다.

가장 높은 유형별 선호도 중 신문은 정치·현안 89.9%, 잡지는 전문분야 17.9%



(출처 : 아르헨티나 통계청, 2021.7.13.)

2020년 발행된 신문의 주제별 유형을 살펴보면, 가장 많은 내용을 다루는 기사는 정치·현안 뉴스로 89.9%를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기타(4.9%)를 제외한 전문분야(1.8%), 지자체 소식(1.7%), 경제·금융(1.6%) 순으로 나타났다. 잡지의 주제별 유형에서는 기타(29.6%)를 제외한 전문분야(17.9%)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 다음은 학술(15.1%), 교육·시험(7.4%), 문화(7.3%) 등의 순이었다. 한편, 출판물의 주제별 유형은 교육이 28.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 다음은 소설 문학(20.0%), 학술(19.2%), 문화(14.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출처 : sozcu, 2021.7.27.)

2021년 1분기 문화 분야의 수익 전년 대비 7% 감소

문화예술 부문의 연간 분기별 매출 동향(2019년-2021년) (단위 : 만 EUR, %)

| | 2019 (만 EUR) | 2020 (만 EUR) | 2020년(%) | | | | '21년/ '20년 | '21년/ '19년 |
|--------|-----------------|-----------------|----------|-----|-----|-----|---------------|---------------|
| | |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1분기 | 1분기 |
| 영화 | 1,520 | 536 | -29 | -90 | -60 | -81 | -95 | -96 |
| 광고 | 15,232 | 12,764 | -7 | -25 | -23 | -11 | -7 | -14 |
| 신문 | 11,772 | 10,203 | -7 | -24 | -15 | -8 | -7 | -14 |
| 시청각물 | 21,439 | 19,817 | -3 | -19 | -13 | 3 | -6 | -10 |
| 라디오 | 1,345 | 1,261 | -4 | -16 | -3 | -2 | -12 | -16 |
| 도서출판 | 8,366 | 7,879 | -12 | -27 | 4 | 4 | 25 | 9 |
| 음반 | 2,055 | 2,012 | 8 | -12 | -5 | 0 | 12 | 21 |
| 비디오 게임 | 2,856 | 3,462 | 16 | 1 | 8 | 60 | 0 | 16 |
| 공연예술 | 5,858 | 3,367 | -6 | -61 | -51 | -50 | -58 | -60 |
| 시각예술 | 9,535 | 8,509 | -1 | -23 | -10 | -9 | -2 | -2 |
| 문화예술교육 | 696 | 629 | 1 | -7 | -16 | -16 | -18 | -17 |
| 건축 | 6,693 | 6,119 | -1 | -16 | -14 | -3 | 0 | -1 |
| 문화유산 | 1,792 | 1,657 | 7 | -20 | -6 | -10 | -5 | 1 |
| 합계 | 89,159 | 78,215 | -4 | -24 | -15 | -6 | -7 | -11 |

(출처 : 「2021년 1분기 문화예술 분야 매출분석 보고서」 프랑스 문화부)

2021년 1분기 문화예술 분야의 수익은 전년 대비 7% 감소해 10억 5,200만 유로(약 1조 4,457억 원)이 하락했다. 이는 코로나19 이전 시기인 2019년과 비교했을 때 11% 감소한 20억 4,300만 유로(약 2조 8,240억 원)의 손실을 보여 코로나19의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2021년 1분기 문화예술 분야의 매출실적은 감소 추세이며,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분야는 영화(▼95%), 공연예술(▼58%), 문화예술 교육(▼18%) 등의 순이다. 영화부문은 2020년 10월 말부터 상영관을 폐쇄해 2021년 1분기에 95% 감소한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2021년 1분기에 증가한 문화예술 분야는 도서출판(▲25%), 음반(▲12%)이며, 비디오게임과 문화예술교육은 전년도 1분기 대비 동일했다.

(출처 : 「2021년 1분기 문화예술 분야 매출분석 보고서」 프랑스 문화부)

II

세계는 지금

[이슈 동향]

1. 2020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살펴본 일본의 스포츠 진흥 정책
2. 녹색 관광과 관광 경제의 전환을 위한 권장 사항
3. 엔터테인먼트와 미디어(E&M) 산업의 향후 전망(2021-2025년)

2020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살펴본 일본의 스포츠 진흥 정책

들어가며

이곳 오사카 시내, 일본의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곳곳에 체육시설이 눈에 띈다. 그곳에서 계절에 상관없이 까맣게 탄 얼굴을 하고 선 목소리로 소리를 지르며 야구, 축구 등 운동을 하고 있는 어린아이들을 보면 건강한 모습에 부러운 마음을 갖게 된다. 반면, 학교와 학원을 오가느라 운동 시간이 부족한 우리나라 아이들을 떠올리면서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느낀다.

지구촌을 뒤흔친 팬데믹 때문에 일본 국내에서도 지지를 받지 못하고, 많은 우려 속에서 개최되었던 '2020 도쿄올림픽'이 8월 8일 막을 내렸다. 최악의 올림픽이라고 불만을 쏟아냈던 선수도 있었고, 지구인을 하나로 만들었다고 호평하는 언론 보도도 있지만 어쨌든 일본은 금메달 27개를 포함한 총 58개의 메달을 획득하여 종합 3위로 일본 올림픽 사상 최고의 성적을 거두었다. 메달을 딸 만한 종목들 집중 육성하는 '엘리트 스포츠 정책'을 실시한 결과라는 분석에 문득 일본의 체육 정책이 궁금해졌다.

일본 정부는 2011년 「스포츠 기본법」을 제정하고 2012년 「스포츠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국민들의 스포츠 증진과 함께 선수들의 국제경기력 향상을 도모해 오고 있다. 2015년에는 이러한 스포츠 기본법의 이념을 실현하고 수행하기 위한 스포츠청을 문부과학성의 소속 행정기관으로 설치했다.

스포츠청은 국제경기력 향상은 물론 스포츠를 통한 국민들의 건강증진, 지역경제 활성화, 국제교류·협력, 장애인 스포츠 진흥, 학교 교육의 확충 등, 관계 기관 및 기업과 연계하며 스포츠 행정을 종합·일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21년, '2020 도쿄 올림픽'을 마치고 패럴림픽을 준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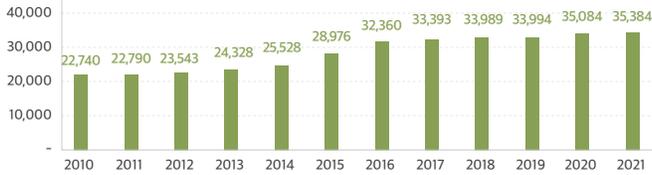
본 보고서에서는 일본 문부과학성이 지난 2021년 7월 20일에 발표한 『문부과학백서 2020』을 토대로 일본 정부의 스포츠 정책 동향(스포츠청의 역할 수행) 전반과 도쿄 올림픽·패럴림픽 관련 정책에 대해 살펴본다.

1. 도쿄 올림픽·패럴림픽 경기대회 개최 준비

일본 스포츠청은 도쿄 올림픽 대회 개최에 앞서 국제경기력 향상을 위한 환경 정비와 도핑방지 체제 추진, 스포츠를 통한 국제공헌사업(Sport for Tomorrow) 추진, 올림픽·패럴림픽 교육을 전국적으로 전개하며 스포츠 인테그리티(Sports Intergrity)¹ 확보를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대회 개최와 관련된 코로나19 방역대책을 수립했다.

¹ 스포츠가 각종 위협(도핑, 승부조작, 위법도박 및 약물, 폭력, 각종 학대 및 괴롭힘, 폭력, 스포츠 단체의 사회적 책임 정책 등)으로부터 멀어 되지 않고 가치 있는 고결한 상태

일본의 스포츠 관련 예산 추이 (단위: 백만 엔)



(출처: 스포츠청 스포츠관계 데이터집, 2021.4.26.)

2021년도 스포츠 관련 예산 약 353억 8,400만 엔(약 3,708억 원) 중 도쿄 올림픽·패럴림픽 경기대회 등의 성공 개최(경기력 향상사업, 하이 퍼포먼스 서포트 사업, 도핑 방지활동 추진사업 등) 예산은 약 127억 5,000만 엔(약 1,336억 원)으로 책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림픽·패럴림픽 경기대회 최근 대회 일본 메달획득 수

| 개최 연도 | 개최 도시 | 하계 올림픽 | | | | 입상자 수 | 종합 순위 |
|-------|---------|---------|----|----|----|-------|-------|
| | | 메달 획득 수 | | | | | |
| | | 금 | 은 | 동 | 합계 | | |
| 1964 | 도쿄 | 16 | 5 | 8 | 29 | 60 | 3 |
| 2000 | 시드니 | 5 | 8 | 5 | 18 | 77 | 15 |
| 2004 | 아테네 | 16 | 9 | 12 | 37 | 77 | 5 |
| 2008 | 베이징 | 9 | 6 | 10 | 25 | 80 | 8 |
| 2012 | 런던 | 7 | 14 | 17 | 38 | 88 | 11 |
| 2016 | 리우데자네이로 | 12 | 8 | 21 | 41 | 77 | 6 |
| 2021 | 도쿄 | 27 | 14 | 17 | 58 | 60 | 3 |

| 개최 연도 | 개최 도시 | 동계 올림픽 | | | | 입상자 수 | 종합 순위 |
|-------|---------|---------|---|---|----|-------|-------|
| | | 메달 획득 수 | | | | | |
| | | 금 | 은 | 동 | 합계 | | |
| 1998 | 나가노 | 5 | 1 | 4 | 10 | 33 | 7 |
| 2002 | 솔트레이크시티 | 0 | 1 | 1 | 2 | 27 | 21 |
| 2006 | 토리노 | 1 | 0 | 0 | 1 | 21 | 18 |
| 2010 | 밴쿠버 | 0 | 3 | 2 | 5 | 27 | 20 |
| 2014 | 소치 | 1 | 4 | 3 | 8 | 28 | 17 |
| 2018 | 평창 | 4 | 5 | 4 | 13 | 43 | 11 |

| 개최 연도 | 개최 도시 | 하계 패럴림픽 | | | | 입상자 수 | 종합 순위 |
|-------|---------|---------|----|----|----|-------|-------|
| | | 메달 획득 수 | | | | | |
| | | 금 | 은 | 동 | 합계 | | |
| 1964 | 도쿄 | 1 | 5 | 4 | 10 | - | 13 |
| 2000 | 시드니 | 13 | 17 | 11 | 41 | 108 | 12 |
| 2004 | 아테네 | 17 | 15 | 20 | 52 | 124 | 10 |
| 2008 | 베이징 | 5 | 14 | 8 | 27 | 106 | 17 |
| 2012 | 런던 | 5 | 5 | 6 | 16 | 87 | 24 |
| 2016 | 리우데자네이로 | 0 | 10 | 14 | 24 | 97 | 64 |

| 개최 연도 | 개최 도시 | 동계 패럴림픽 | | | | 입상자 수 | 종합 순위 |
|-------|---------|---------|----|----|----|-------|-------|
| | | 메달 획득 수 | | | | | |
| | | 금 | 은 | 동 | 합계 | | |
| 1998 | 나가노 | 12 | 16 | 13 | 41 | 109 | 4 |
| 2002 | 솔트레이크시티 | 0 | 0 | 3 | 3 | 35 | 22 |
| 2006 | 토리노 | 2 | 5 | 2 | 9 | 25 | 8 |
| 2010 | 밴쿠버 | 3 | 3 | 5 | 11 | 27 | 8 |
| 2014 | 소치 | 3 | 1 | 2 | 6 | 26 | 7 |
| 2018 | 평창 | 3 | 4 | 3 | 10 | 23 | 8 |

(출처: 스포츠청 스포츠관계 데이터집, 2021.4.26./JOC 공식 누리집)

문부과학성의 올림픽·패럴림픽 예산 결산액('13-'19) (단위: 백만 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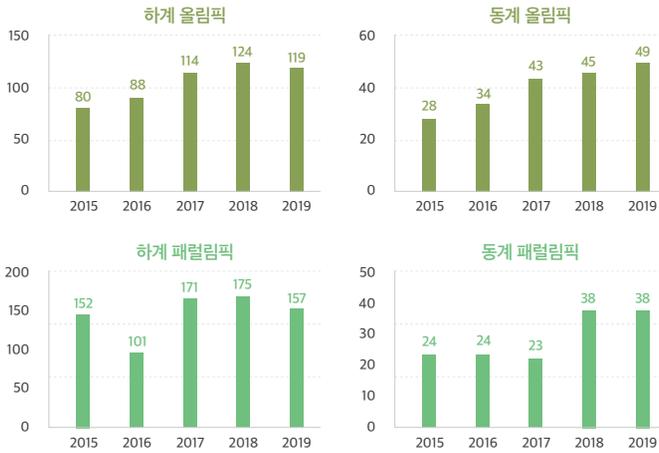
| 항목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
| Sport For Tomorrow 등 추진 프로그램 | - | 945 | 1,159 | 1,186 | 1,110 | 1,087 | 1,017 |
| 경기력 향상 사업 | - | - | 7,400 | 8,700 | 9,150 | 9,600 | 10,047 |
| 하이 퍼포먼스 서포트 사업 | 2,084 | 2,267 | 2,934 | 2,974 | 1,588 | 1,293 | 1,210 |
| 하이 퍼포먼스 센터 정보 시스템 기반 정비 | - | - | - | 9 | 998 | - | - |
| 하이 퍼포먼스 스포츠 센터 기반정비 | - | - | - | - | 814 | 945 | 780 |
| 내셔널 트레이닝 센터(NTC) 경기별 강화거점 기능강화 사업 | 518 | 578 | 606 | 764 | 853 | 783 | 948 |
| 내셔널 트레이닝 센터(NTC) 확충 정비 | - | - | 1 | 2,648 | 707 | 10,330 | 2,451 |
| 여성 선수 육성·지원 프로젝트 | 71 | 243 | 314 | 310 | 350 | 205 | 209 |
| 차세대 선수 특별강화 추진사업 | 377 | 383 | - | - | - | - | - |
| 엘리트 선수 강화·연구활동 거점의 기능 강화를 위한 조사연구 | 0 | 2 | 16 | - | - | - | - |
| 패럴림픽 강화·연구활동 거점에 관한 조사연구 | - | 11 | - | - | - | - | - |
| 스포츠 국제전개 기반형성사업 | - | - | 61 | 73 | 88 | 100 | 88 |
| 일본 올림픽 위원회 보조 | 2,356 | 2,376 | 77 | 84 | 112 | 112 | 177 |
| 일본 장애인 스포츠협회 보조 | - | - | 61 | 51 | 51 | 52 | 60 |
| 2020 티켓 에이지 육성·강화 프로젝트 | - | 1,024 | - | - | - | - | - |
| 일본 스포츠 진흥센터(JSC) 운영 교부금 | 22,142 | - | - | - | - | - | - |
| 스포츠 연구 이노베이션 거점형성 프로젝트 | - | - | 95 | 89 | 85 | 81 | 78 |
| 스포츠·문화·월드·포럼 개최 | - | - | - | 473 | - | - | - |
| 일본 스포츠 진흥센터(JSC) 출자금 | - | 17,063 | - | 12,500 | - | - | - |
| 도핑 방지 활동 추진사업 | - | - | - | - | 196 | 279 | 269 |
| 도쿄 패럴림픽 경기대회 개최준비 | - | - | - | - | 30,000 | - | - |
| 도쿄 올림픽·패럴림픽 관계자 대상 풍진·홍역 특별대책사업 | - | - | - | - | - | - | 전액 이월 |

(출처: 내각관방, 2021.1.22)

• 국제경기력 향상을 위한 강력하고 지속 가능한 인재 육성 및 환경 정비

일본 스포츠청은 올림픽 및 패럴림픽 경기대회를 비롯한 국제대회에서 일본 선수가 활약하는 모습이 국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관계 기관과 연계하여 국제경기력 향상을 위한 지원과 환경 정비를 진행하고 있다.

각 연도 별 메달 가능성 선수(MPA) 숫자 추이 (단위: 명)



* 일본 스포츠 진흥센터(JSC)는 올림픽, 패럴림픽, 세계선수권 등에서 8위 내 입상한 선수, 팀 등 메달 가능성 선수 집계

(출처: 스포츠청 스포츠관계 데이터집, 2021.4.26.)

① 중장기 강화전략에 따른 경기력 강화를 지원하는 시스템 확립

일본 스포츠청은 도쿄 올림픽 및 그 이후를 대비, 높은 수준과 안정적인 경기력 강화를 진행하기 위해 각종 경기단체가 최소 2개 대회 이후의 올림픽·패럴림픽의 성과를 관망하는 「중장기 강화전략 플랜」을 책정·실천·갱신하고 있다. 이 플랜을 통해 엘리트 선수 강화 등을 종합적 및 계획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일본 스포츠진흥센터(JSC)에 설치된 하이 퍼포먼스 스포츠센터(HPSC)에 공익재단법인 일본올림픽위원회(JOC), 일본패럴림픽 위원회(JPC)와 함께하는 협력팀을 설치, 경기단체의 강화전략 플랜의 각 단계에서 다방면으로 컨설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각종 사업자금 배분에 관한 경기단체 평가 등에 활용하는 것이다.

또한, 일본 스포츠청은 ‘경기력 향상사업’에 대해 각종 경기단체가 올림픽·패럴림픽 경기와 관련하여 진행하는 국내외 강화합숙 등 일상적이며 지속적인 강화 활동에 대해 지원해 오고 있다. 2021년 상반기에는 각종 경기단체의 성과를 토대로 메달획득 가능성이 높은 경기를 ‘도쿄 중점지원경기’²와 ‘베이징 중점지원경기’로 선정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강화 활동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기단체를 지원하는 조성금을 확충하고 엘리트 선수가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금을 증액하는 등 추가적으로 지원했다. 여성 선수들의 국제경기력 향상 사업도 별도로 진행하고 있다.

2 올림픽: 가라테, 유도, 수영, 스케이트보드, 스포츠 클라이밍, 체조, 배드민턴, 야구, 육상 경기, 레슬링, 역도, 요트, 소프트볼, 탁구, 테니스, 배구 등 16개 경기
패럴림픽: 양궁, 휠체어 테니스, 휠체어 럭비, 골볼, 사이클, 유도, 수영, 배드민턴, 보치아, 육상(신체장애) 등 10개 경기

일본의 올림픽 선수단 파견 규모 추이 (단위: 명)

■ 남성 선수 ■ 여성 선수 ■ 임원



(출처: JOC 공식 누리집, 2021.8.5.)

② 차세대 선수를 발굴·육성하는 전략적인 체제 구축

- 차세대 선수 발굴 및 육성

일본 스포츠청은 장래가 유망한 선수에 대해 메달 획득을 위한 집중적인 육성지원 및 해외에서의 장기적인 강화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전국 각지의 재능이 있는 선수의 효과적인 발굴 및 육성을 지원하는 재팬 라이징 스타 프로젝트(J-STAR 프로젝트)를 2017년도부터 실시하고 있는데, 이 프로젝트에는 지난 4년간, 5,640명이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 국민체육대회³의 개최

국민체육대회는 국내 스포츠를 보급하고 국민들의 체력향상을 도모함과 동시에 지역 스포츠 및 지방 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1946년 이후 매년 개최되고 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개최가 중지되었다. 2019년 대회 정식경기에는 총 40개 경기에 일본 전국의 25,292명 선수와 감독이 참가했다.

3 대한민국 전국체육대회와 같은 위치

③ 스포츠 의학·과학, 정보 등에 의한 다방면에서 고도의 지원 충실

일본 스포츠청은 보다 과학적인 트레이닝 환경 정비를 위해 스포츠 의학·과학, 정보 서포트 기능과 NTC 트레이닝 현장의 기능을 일체화한 하이 퍼포먼스 스포츠 센터(HPSC)의 기능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예를 들면, 국가대표 선수 강화방법과 각국의 메달 획득 전략 등의 정보수집과 분석, 메디컬, 트레이닝, 경기 영상, 영양 등 각종 정보를 일원화하여 관리하고 필요한 정보를 신속히 수집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활용, 경기 용품을 개발하고 있다.

또한 '하이 퍼포먼스 서포트 사업'으로는 강화합숙과 경기대회에서의 케어, 트레이닝, 심리, 영양, 영상·동작분석, 생리·생화학 등 각 분야의 전문가에 의한 스포츠 의학·과학, 정보 등을 활용한 엘리트 선수 지원과 함께, 올림픽·패럴림픽 경기대회 등에 임하기 전, 선수, 코치, 스태프의 최종 준비단계에서 서포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부터 선수들의 영양, 메디컬 케어, 트레이닝, 심리 상담, 영상분석을 위해 대회장 근처에 하이 퍼포먼스 서포트 센터를 설치, 운영해 오고 있다.

하이 퍼포먼스 서포트 센터 사진

2016 리우 올림픽·패럴림픽



2018 평창 올림픽·패럴림픽



(출처 : 스포츠청 스포츠관계 데이터집, 2021.4.26.)

또한, 스포츠 이외 분야의 지식을 활용하는 등 독창적이고 혁신적인 연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차세대 연구자를 육성하기 위한 '스포츠 연구 이노베이션 거점'을 지정하여 국제경기력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하고 있다.

④ 엘리트 선수 등 수요에 대응 가능한 거점 확충

엘리트 선수가 활동하는 거점으로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트레이닝과 강화 활동을 할 수 있는 체재 확립을 위한 거점을 확충해 나가고 있다.

- 내셔널 트레이닝 센터(NTC)

NTC는 엘리트 선수가 일정한 거점에서 훈련할 수 있도록 2007년에 지어진 시설이며 2019년에는 NTC 실내 트레이닝 센터·이스트(동관)이 완성되어, 올림픽 경기와 패럴림픽 경기가 집약된 거점으로 활용되고 있다.

NTC 전경



- NTC 실내 트레이닝 센터 웨스트
- 규모 : 연면적:29,000㎡,
지상 3층 지하 1층
- 용도 : 레슬링, 복싱, 역도, 유도 핸드볼,
체조, 배구, 배드민턴, 공용 코트 등



- NTC 실내 트레이닝 센터 이스트
- 규모 : 연면적:26,000㎡,
지상 6층 지하 1층
- 용도 : 사격, 수영, 펜싱, 탁구, 양궁,
체력단련실, 욕실, 숙박시설,
진료실, 도핑 컨트롤실, 회복실,
연수실, 미팅룸, 탁아실, 식당 등

(출처 : JOC 공식 누리집)

NTC에서는 훈련이 어려운 동계·해양·야외·패럴림픽 경기 등의 트레이닝 환경을 고려, 2020년 8월 기준 일본 전국의 기존 시설 중 41개 곳 (동계 경기 15개소, 해양계 경기 4개소, 실외경기 13개소, 실내경기 7개소, 고지 트레이닝 2개소)이 NTC 경기별 강화거점 시설로 지정됨. 2019년부터는 5개 거점에 기능 강화 디렉터를 파견하여 기능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 국립스포츠과학센터(JISS)

JISS는 스포츠 의학·과학연구 및 지원을 위해 2001년 설립된 중추기관이다. 각 분야의 연구자, 의사 등과 연계하며 각종 경기종목 특유의 과제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사업과 연구를 바탕으로 한 트레이닝 지도법, 동작 분석, 영상기술의 지원사업을 병행하고 있다. 또한, 내과, 정형외과, 정신과, 치과, 피부과, 안과, 산부인과 등에 따른 진료, 재활, 심리치료, 영양상담 등의 진료도 함께 병행하고 있다.

국립스포츠과학센터, 하이퍼퍼먼스 스포츠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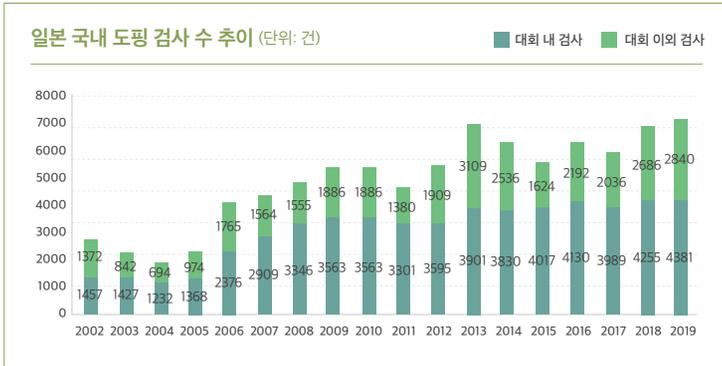


(출처 : JISS 공식 누리집)

• 도핑 방지체제 확립

일본 정부는 2006년에 유네스코 「스포츠 도핑 방지에 관한 국제규약」을 체결하였고 세계도핑 방지기구(WADA)의 상임이사국으로서 국제적인 도핑방지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일본 스포츠청은 공익재단법인 일본 안티 도핑기구(JADA)와 연계하여 선수 등에 대한 도핑 미연 방지를 목적으로 한

교육·계몽 활동, 도핑 검사기술 연구개발 등을 진행하고 있다. 도쿄 올림픽·패럴림픽을 앞두고 검사원을 육성하였으며 도핑방지 활동에 관한 정보공유 시스템을 구축했다.



(출처 : 스포츠청 스포츠관계 데이터집, 2021.4.26.)

• Sport for Tomorrow(SFT) 추진

2013년, 올림픽·패럴림픽 유치 이후 일본 정부는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스포츠의 가치와 올림픽·패럴림픽 무브먼트를 확장하고자 운영위원회(스포츠청, 외무성, JSC, JOC, JPC 등 참가)를 구성하고 스포츠를 통한 국제협력·교류를 담당하는 단체(공공단체, NGO·NPO, 대학 등)로 구성된 SFT 콘소시엄이 설립되었다. SFT 사업에는 2020년 9월 시점에서 총 204개국 1,200만명 이상이 참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스포츠 인테그리티 확보에 대한 노력

① 스포츠 단체 거버넌스 강화, 컴플라이언스 철저

일본 스포츠청은 최근 스포츠 선수들의 위법행위를 비롯하여 경기단체의 회계부정, 지도자의 폭력, 관중들의 인종차별 및 폭력행위 등 스포츠 정신을 훼손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스포츠 인테그리티의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2019년 6월에는 중앙 경기단체, 8월에는 일반 스포츠 단체가 준수해야 할 원칙과 규범을 정리한 「스포츠 단체 거버넌스 법률」을 각각 책정했다. 이에 따라 2020년부터 중앙 경기단체는 조직상황을 설명·공개해야 하고 동시에 4년마다 소속되어있는 총괄단체로부터 거버넌스 코드를 토대로 한 적합성 심사를 받도록 되어있다.

② 스포츠 행위자의 권리·권익 보호

일본 스포츠청은 지도자를 대상으로 하는 자질·능력 향상 및 교육·계몽 활동을 촉진하고자 괴롭힘(학대 등)의 사례가 담긴 서적

‘실천! 굿코칭’의 제작 등에 참가하고 있다.

경기단체의 대표선수 선고 및 경기자격 정지 처분 등을 둘러싼 분쟁 해결의 수단으로 공익재단법인 일본스포츠중재기구에 따른 중재·조정 이 있는데 일본 스포츠청은 중재인, 조정인 등 중재 관련 전문 인재를 육성하고 조사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최근 경기용 유니폼을 착용한 선수를 성적 의도를 가지고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고 인터넷상에서 유포하는 사안에 대한 대처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선수의 인권보호에 대한 일본 내 움직임

- 2020년 11월 13일, 일본의 스포츠 관계단체(JOC, JSPO, JPSA, 일반사단법인 대학스포츠협회, 공익재단법인 전국고등학교체육연맹, 공익재단법인 일본중학교체육연맹, JSC)가 협력해 촬영과 유포로 인한 성적 괴롭힘을 방지하는 내용의 기자회견 진행
- 주요내용은 ①각 대회가 방지책을 마련 ②연수, 교육 등을 통해 선수 본인이 인터넷 비방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개발 ③SNS 및 인터넷 게시글의 실태를 파악하고 유관기관과 공유해 나갈 것을 표명
- 도쿄 올림픽·패럴림픽 경기대회 조직위원회는 대회장에 입장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선수 등을 성적인 괴롭힘을 목적으로 간주되는 촬영행위를 금지하는 조항 등의 신설 계획 발표

(출처 : JOC 공식 누리집)

2. 스포츠 기본계획과 스포츠 진흥 재원

· 스포츠 기본계획

일본 정부는 2017년 3월 책정된 「제2기 스포츠 기본계획」에서 중장기적인 스포츠 정책의 기본 방침을 아래 4가지로 정했다.

- 스포츠로 〈인생〉이 바뀐다!
- 스포츠로 〈사회〉를 바꾼다!
- 스포츠로 〈세계〉와 이어진다!
- 스포츠로 〈미래〉를 창조한다!

현재, 스포츠청 내부 심의회에서는 2022년 발표 예정인 「제3기 스포츠 기본계획」에 대해 자문을 받고 있으며 「미래사회 일생을 통해 풍요로운 Sport in Life 비전」 등을 포함한 2030년 이후 스포츠 정책의 방향성과 향후 5년간의 스포츠 정책의 방향성 등을 중심으로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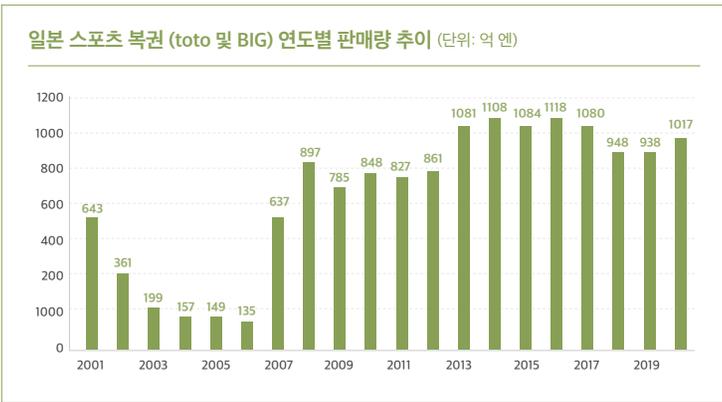
• 스포츠 진흥 재원

일본 스포츠청은 2021년도 스포츠 관계 예산으로 약 351억 엔 (약 3,670억 원)을 계상하였다. 한편, 국비 지원이 어려운 스포츠 진흥 활동을 위한 조성을 진행하는데 스포츠 진흥의 보완적인 재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스포츠 진흥투표와 스포츠 진흥기금이다.

① 스포츠 진흥 투표

1998년 5월 일본 초당파 의원들의 발의로 「스포츠 진흥 투표의 실시 등에 관한 법률」이 성립되었다. 현재 축구시합⁴의 결과(승패·득점)를 구매자가 직접 예측하는 ‘toto’와 컴퓨터가 무작위로 시합 결과를 선택하는 ‘BIG’으로 나뉘어 있다. 일본 스포츠 복권은 당첨금과 상관없이 비과세 대상이다.

4 남자 축구 및 일본 프로 축구리그(리그)가 대상이며, 2013년 개정된 내용인 <지정조직이 속한 자가 편성하는 축구팀이 상호 간 진행하는 축구시합의 경우>라는 기준에 부합한다면 해외 축구 시합도 대상



(출처 : 일본 스포츠 진흥센터)

최근 몇 년간, 연간 약 1,000억 엔(약 1조 470억 원) 상당이 판매되고 있는 가운데, 한층 더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2019년에는 1등 최고 당첨액이 12억 엔(약 125억 원)인 ‘MEGA BIG’ 판매도 개시했다.

2020년까지 스포츠 진흥 투표 실시에 따른 수익으로 조성한 약 2,067억 엔(약 2조 1,600억 원)을 지방공공단체가 진행하는 야외 경기장의 잔디화와 지역 스포츠 시설의 정비, 각 스포츠 단체가 진행하는 스포츠 선수 발굴과 육성 등에 쓰여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2013년 법 개정으로 스포츠 레거시의 실현을 위한 조성 항목도 생겨났다.

② 스포츠 진흥기금

스포츠 진흥기금은 일본 정부가 1990년 일본 선수들이 국제경기대회에서의 경기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설립한 기금으로 정부 출자금 250억 엔 (약2,600억 원)과 민간 기부금 약 45억 엔(약 469억 원)의 운영 이익을 재원으로 하여 엘리트 선수 강화를 위해 조성금을 지급하고 있다.

2020년도 스포츠 진흥투표 조성금 활용 내역('20.04. ~ '21.03.) (단위 : 건, 만 엔)

| 조성 구분 | 건수(건) | 조성액 |
|---------------------------|--------------|----------------------|
| 대규모 스포츠 시설 정비 | 7 | 9억 7,573만 엔 |
| 지역 스포츠 시설 정비 | 215 | 57억 2,590만 엔 |
| 통합형 지역 스포츠클럽 활동 | 208 | 4억 74만 엔 |
| 지방공공단체 스포츠 활동 | 454 | 16억 6,790만 엔 |
| 장래가 유망한 스포츠 선수 발굴 및 육성 활동 | 81 | 18억 2,778만 엔 |
| 스포츠 단체 스포츠 활동 | 684 | 30억 8,581만 엔 |
| 국제경기대회 개최 | 11 | 6억 3,577만 엔 |
| 동일본대지진 복구 및 부흥지원 | 1 | 1억 5,296만 엔 |
| 도쿄 올림픽 패럴림픽 경기대회 등 개최 | 10 | 22억 5만 엔 |
| 합계 | 1,671 | 166억 7,274만 엔 |

(출처: 문부과학성 문부과학백서 2020)

2020년에는 재정 자금의 유효한 활용을 위해 정부 출자금 250억엔 (약2,600억 원)을 국립경기장 정비 및 엘리트 선수 강화비용으로 125억 엔 (1,300억 원)씩 충당하는 방향으로 국고 반납하였다.

2020년도 스포츠 진흥기금 조성금 활용 내역('20.04. ~ '21.03.) (단위 : 건, 만 엔)

| 조성 활동명 | 건수(건) | 조성액 |
|-------------------|--------------|----------------------|
| 스포츠 단체 선수강화 활동 조성 | 10 | 2,000만 엔 |
| 스포츠 단체 대회 개최 조성 | 81 | 3억 2,690만 엔 |
| 선수 및 지도자 연구 활동 조성 | 535 | 12억 4,595만 엔 |
| 선수 조성 | 626 | 15억 9,285만 엔 |
| 합계 | 1,671 | 166억 7,274만 엔 |

(출처 : 문부과학성 문부과학백서 2020)

3. 스포츠를 통한 건강증진

일본 스포츠청은 일본 국민의 의료비가 연간 약 43조 엔(약 440조 원)에 도달한 가운데, 운동과 스포츠 효과로 건강증진과 건강수명⁵을 평균수명에 최대한 가깝게 하기 위해 국민 전체의 스포츠 참가와 환경을 정비하고자 하고 있다.

2020년도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외출에 자숙이 요구되며 운동 부족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 2차 피해에 대한 염려가 높아지고 있어 대상 (재택 근무자, 자녀가 있는 가정, 고령자)별로 리플릿, 가이드 라인을 작성하여

5 건강상 문제없이 일상생활이 가능한 기간. 기대수명에서 질병 또는 장애를 가진 기간을 제외한 수명

보급·개발을 진행했다.

2021년 4월부터는 스포츠청 무로후시 코지 장관이 직접 출연하는 신체 진단 영상이 공개되어 화제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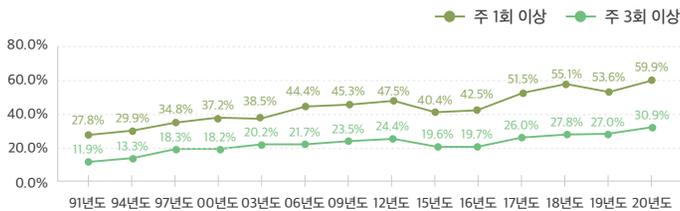
• 스포츠 참가 인구의 현재

2017년 3월 책정된 「제2기 스포츠 기본계획」에는 성인의 주 1회 이상 스포츠 실시율에 대해 42.5%에서 65% 정도, 주 3회 이상 실시율 대해서는 19.7%에서 30% 정도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로 설정되어 있다. 2020년 조사에서는 성인 주 1회 이상 스포츠 실시율은 59.5%, 주 3회 이상은 30.9%로 나타나 목표에 근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포츠 실시율은 모든 연령층에서 전년도를 웃돌았으며 특히 여성은 20~40대, 남성은 20~30대에서 10%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포츠·운동을 하는 이유로는 '건강을 위해'가 73.9%로 가장 높았으며 '체력증진·유지를 위해', '운동 부족을 느껴서' 뒤를 이었다. 스포츠·운동을 하지 않는 이유로는 '일, 가사가 바빠서', '귀찮아서', '나이가 들어서' 등이 많았으며 지난 1년간 한 번도 스포츠·운동을 하지 않았다고 대답한 사람은 13.2%로 나타났다.

2020년도 일본의 스포츠 실시상황 등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 개요 중 성인 실시율



(출처 : 문부과학성 문부과학백서 2020)

연령대별 주1회 이상 스포츠 실시율 비교(n=20,000) (단위 : %)

| | 전체 | | 남성 | | 여성 | |
|----------|-------|-------|-------|-------|-------|-------|
| | 2020년 | 2019년 | 2020년 | 2019년 | 2020년 | 2019년 |
| 전 연령대 평균 | 60.0 | 53.5 | 61.4 | 55.7 | 58.7 | 51.4 |
| 10대 | 64.1 | 52.2 | 65.1 | 58.7 | 63.0 | 45.4 |
| 20대 | 58.3 | 45.7 | 61.3 | 49.3 | 55.1 | 41.8 |
| 30대 | 55.1 | 45.6 | 59.0 | 49.3 | 51.0 | 41.8 |
| 40대 | 52.8 | 45.3 | 53.7 | 50.1 | 51.9 | 40.3 |
| 50대 | 54.2 | 48.7 | 55.3 | 50.5 | 53.1 | 47.0 |
| 60대 | 65.1 | 62.1 | 65.3 | 61.3 | 65.0 | 62.8 |
| 70대 | 74.8 | 73.4 | 76.3 | 74.4 | 73.6 | 72.5 |
| 성인만 | 59.9 | 53.6 | 61.8 | 55.8 | 58.3 | 51.0 |

(출처 : 문부과학성 문부과학백서 2020)

• 스포츠 실시율 향상을 위한 시책

① 라이프 스타이지 별 시책

일본 스포츠청은 2018년 9월에 책정한 「스포츠 실시율 향상 행동계획」에서 ①어린이 및 젊은 층 ②직장인(비즈니스 퍼슨) ③고령자 ④여성 ⑤장애인으로 대상을 나눠 대상에 따른 시책을 실시하고 있다.

일본 스포츠 협회(JSPO)와 연계하여 전국 소학교(이하, 초등학교)에 운동 및 놀이 기회를 제공하고 있고 종업원의 스포츠 활동을 장려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스포츠 웰 컴퍼니' 인증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2020년도 인정 기업 수: 623개 사)

Sport in Life 프로젝트



이 이미지는 'Sport in Life 프로젝트'의 소개 자료입니다. 왼쪽에는 'Sport in Life' 로고와 '2020年東京大会のレガシーに向けて'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중앙에는 한 여성이 걷고 있는 모습이 담긴 원형 그래픽이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프로젝트의 주요 내용과 성과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 2019년 「Sport in Life 프로젝트」 시작
- 2020년, 지자체, 유관기관, 기업, 민간단체 등의 1,121개 단체와 컨소시엄 설립
- 스포츠 실시율 향상 관련 각종 사업 추진

(출처 : Sport in Life 공식 누리집)

② 스포츠 실시를 위한 환경정비

종합형 지역 스포츠 클럽(종합형 클럽)은 지역 밀착형 스포츠 클럽으로 지역주민의 건강 유지 및 증진, 지역사회 재생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0년도 실태조사에 따르면 일본 전국에 종합형 클럽은 3,594개(창설예정 포함)이며 전국의 80.6% 지역에 분포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4. 어린이 스포츠 체험 기회 확충

• 어린이 체력 실태와 과제

일본 정부는 1964년부터 일본 국민의 체력증진을 촉진하고 운동능력을 파악하기 위해 '체력·운동능력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1998년 새로운 체력 테스트가 실시된 이후, 합계점 추이를 보면 거의 모든 연령에서 향상 경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학교 교육 및 운동부 활동 확충

① 학습지도 요령의 취지를 전제로 한 학교체육 확충

일본 정부는 운동을 하는 학생과 하지 않는 학생의 양극화 경향과 사회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건강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2017년에는 초등학교 및 중학교 학습지도 요령을, 2018년에는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을 개정하여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이어지는 지도내용의 계통화와 명확화를 도모하였다. 또한, 스포츠와 다양한 관계를 즐길 수 있도록 '하다, 보다, 지지하다'에 '알다'를 추가하여 '지식 및 기능', '사고력, 판단력, 표현력 등', '배우고자 하는 힘, 인간성 등'의 세 가지 자질과 능력을 조화롭게 배양할 수 있도록 과정을 충실히 하고 있다.

일본 체육 및 보건수업의 지도내용 계통·체계화 내용

| | 각종 운동 기초를 배양하는 시기 | | | | | | 많은 영역의 학습을 경험하는 시기 | | 졸업 후에도 운동 및 스포츠에 다양한 형태로 접할 수 있도록 하는 시기 | | | |
|------------|-------------------|-------|---------|-------|---------|------|--------------------|-------|---|------------|---------|--------|
| | 소학교(초등학교) | | | | | | 중학교 | | 고등학교 | | | |
| | 1학년 | 2학년 | 3학년 | 4학년 | 5학년 | 6학년 | 1학년 | 2학년 | 3학년 | 입학년도 | 입학 2년차 | 입학 3년차 |
| 운동 영역 등 | 기초체력 운동 놀이 | | 기초체력 운동 | | 기초체력 운동 | | 기초체력 운동 | | 기초체력 운동 | | 기초체력 운동 | |
| | 기계·기구를 활용한 운동 놀이 | | 기계 운동 | | 기계 운동 | | 기계 운동 | | 기계 운동 | | 기계 운동 | |
| | 뛰기 운동놀이 | | 뛰기 운동 | | 육상 운동 | | 육상경기 | | 육상경기 | | 육상경기 | |
| | 물놀이 | | 수영 운동 | | 수영 운동 | | 수영 | | 수영 | | 수영 | |
| | 표현 리듬 놀이 | | 표현 운동 | | 표현 운동 | | 댄스 | | 댄스 | | 댄스 | |
| | 게임 | | 게임 | | 볼 운동 | | 구기 | | 구기 | | 구기 | |
| | | | | | | | 무도 | | 무도 | | 무도 | |
| | | | | | | | 체육 이론 | | 체육 이론 | | | |
| 보건 영역 등 | 보건 | | | | | | 보건 | | 보건 | | | |
| 연간 수업 시간 수 | 102시간 | 105시간 | 105시간 | 105시간 | 90시간 | 90시간 | 105시간 | 105시간 | 105시간 | 3년간 7~8 단위 | | |
| | | | | | | | | | | 보건 1단위 | 보건 1단위 | |
| | 필수 | 선택 | | | | | | | | | | |

(출처 : 문부과학성 문부과학백서 2020)

일본 스포츠청은 2020년부터는 초등학교에서 운동에 자신이 없는 학생과 운동에 의욕적이지 않은 학생을 위한 지도법과 수업 계획 모델, 개개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도방법을 정리한 지도자료를 작성 중이며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학생들의 학습을 보장하기 위해 교사를 대상으로 한 동영상 자료와 학생들이 자주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가정 내 운동, 보건 체육 학습 콘텐츠 참고』를 제작·배포하였다.

② 학교 운동부 활동 개혁을 위한 노력

일본 내 운동부 활동이 승리 지상주의로 인한 과도한 연습이 학생들의 심신 발달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고 부 활동을 지도하는 선생님들의 장시간

근무가 지적사항으로 대두되고 있다. 2018년 책정된 가이드 라인에 따르면
 ①활동시간과 휴일의 기준에 부합하는 적절한 부 활동 실시 ②단시간
 효과적인 지도 추진 ③학교 단위로 참가하는 대회 참가를 재검토하고
 선생님을 대신하여 인솔할 수 있는 운동부 지도원의 배치를 촉진하고 있다.
 또한 2020년 9월에는 학교 개혁을 토대로 한 운동부 활동 개혁을 공표,
 휴일 운동부 활동을 2023년도부터 단계적으로 학교 교육에서 분리하여
 지역 스포츠로 이행하고자 하고 있으며 2021년도부터 지역 지도자 및
 스포츠 활동 운영 단체의 확보와 비용부담 방안을 두고 연구를 전국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③ 체육활동의 안전 및 원활한 실시를 위한 노력

일본 스포츠청은 2021년 2월 학교 체육활동 중 도구의 안전확보,
 체벌, 괴롭힘 근절, 열사병 사고 방지 등에 대한 노력을 각 학교에 요구하고
 있으며 각종 사례를 공유하고 있다.

5. 스포츠에 관련된 다양한 인재 육성과 스포츠를 통한 여성의 활약 촉진

• 스포츠에 관련된 다양한 인재의 육성

① 새로운 시대에 적합한 코칭력

일본 스포츠청은 코칭 환경의 개선과 충실을 위해 코치 육성과정에서
 습득해야 할 지식과 기능에 「모델 코어 커리큘럼」을 2019년도 JSPO 공인
 스포츠 지도자 육성 연수에 포함 시키는 등 스포츠 지도자 향상을 위한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② 운동선수의 커리어 형성 지원

일본 스포츠 청은 운동선수의 현역 은퇴 후, 그 자질과 능력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스포츠 단체, 대학, 기업 등의 관계자와 연계하여
 스포츠 커리어 서포트 컨소시엄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선수 생활 중
 은퇴 후를 대비한 필요한 교육을 받으며 준비하는 「듀얼 커리어」 의식
 계발을 전개·장려하고 있다.

• 스포츠를 통한 여성의 활약 촉진

① 여성의 스포츠 실태

일본 여성의 스포츠 참가에 대한 과제로 중학교 여학생의 운동 습관
 양극화, 젊은 층의 낮은 스포츠 참여율, 스포츠 지도자와 단체 임원의
 여성 비율이 낮은 점 등이 두드러지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20년 12월 25일 각료회의에서 「제5차 남녀 공동 참가

기본계획 ~모든 여성이 활약하는 레이와(令和) 사회로~」를 결정하여 여러 분야에서 여성의 참가 확대를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음을 밝혔다.

문부과학성은 여성의 스포츠 참가율을 높이기 위해 2018년에는 <여성 스포츠 촉진방책>을 책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② 여성의 스포츠에 관한 국제적 노력

여성과 스포츠 국제 실무그룹(International Working Group on Women and Sport)이 2014년 채택한 여성의 스포츠 발전을 위한 10개 원칙에 2017년 일본 스포츠청, JOC, JSPA, JPC 등 각종 스포츠 단체가 서명하였고, 2019년 10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된 '일-아세안 여성 스포츠 회의' 및 '일-아세안 스포츠 장관 회의'에서 일본과 아세안연합의 통합 기금을 활용한 상호 간 여성 스포츠 분야에서의 협력 사업실시에 일본 정부가 합의하였다.

③ 여성 스포츠 참가 촉진 방안

일본 스포츠청은 여성의 스포츠 참가율을 높이기 위해 쉽게 할 수 있는 스포츠 프로그램과 운동 영상을 온라인상에서 공개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국내 스포츠 단체 여성 임원 비율 향상을 위해서는 각종 연수회를 개최하고 e-러닝 시스템 개발을 하고 있다.

또한, 여성 운동선수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는 조사연구와 의학·과학 서포트 등을 활용한 여성 프로그램을 통해 지속 가능한 환경정비를 진행하고 있으며 여성 엘리트 코치 육성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6. 장애인 스포츠 진흥

• 장애인 스포츠 환경 정비

2020년도 일본 스포츠청의 위탁조사에 따르면 장애가 있는 성인의 주 1회 이상 운동 실시율은 24.9%(성인 전반 실시율 59.9%)로 나타나 지역별로 장애인 스포츠의 보급 확산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도쿄 올림픽·패럴림픽을 계기로 전국 특별지원학교(특수학교에 해당함)에서 지역 커뮤니티와 함께 하는 스포츠·문화·교육 축제를 진행하고 특별지원학교를 지역의 장애인 스포츠 거점으로 만들어 가는 「스페셜 프로젝트 2020」을 실시하고 있다.

2019년도부터는 스포츠 휠체어, 스포츠 의족 등 장애인 스포츠 용품의 대여와 스포츠 용품의 보수 및 조정, 사용법 지도원을 육성할 수 있는 장애인 스포츠 보급 거점을 정비하고 있다. 또한 도쿄 올림픽·패럴림픽 정식 종목인 보치아, 휠체어 농구 등 장애 여부와 관련 없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스포츠를 통해 공생사회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고 있다.

• 전국 장애인 스포츠 대회

2001년부터는 그동안 따로 개최되었던 신체장애 대회와 지적 장애 대회를 통합한 전국장애인 스포츠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2008년부터는 정신장애인 배구경기를 정식 종목으로 채택하는 등 대회 개최를 통해 장애인의 스포츠 참가에 일조하고 일본 국민이 장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하고 있다.

• 주요 국제 장애인 스포츠 대회 최근 참가 관련

① 데플림픽

2017년 7월 터키에서 개최된 하계 데플림픽에는 108명의 일본 대표 선수가 참가하여 역대 최다 메달(금 6개, 은 9개, 동 12개)을 획득하였다. 2019년 12월 이탈리아에서 열린 동계 데플림픽에서는 15명의 일본 대표 선수가 참가, 6명이 입상하였다. 현재, 2025년도 일본 유치를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② 스페셜올림픽

2019년 3월 아랍에미리트에서 개최된 제15회 하계대회에는 일본인 선수 73명이 참가하였다.

③ 패럴림픽

2018년 평창 패럴림픽에는 38명의 일본 대표 선수가 참가하였다.

7. 대학 스포츠 진흥

2017년 3월, 문부과학성 및 스포츠청은 대학 스포츠 진흥을 위해 스포츠 매니지먼트 인재 육성, 각 대학 스포츠 분야 운영국 설치, 대학 스포츠 전체를 통괄할 조직 설치 등에 대한 중요성을 지적, 2019년 3월, 일반사단법인 대학 스포츠 협회(Japan Association for University Athletics and Sport, UVIVAS)를 설립하였다. 또한 대학 스포츠 협회의 설립 이념에 따라, 대학 내 스포츠 활동 기획, 코디네이트, 자금조달 등을 담당하는 전문인재 '대학 스포츠 관리자'를 2021년도까지 100개 대학에 배치하고자 했다.

8. 스포츠 성장 산업화

스포츠 산업 활성화로 인한 수익을 스포츠 환경 확충에 환원하고 스포츠 인구 확대에 기여하는 자율적 순환을 위하여 일본 정부는 스포츠 시장 규모를 2020년까지 10조 엔(약 104조 원), 2025년까지 15조 엔

(약 156조 원)으로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2025년까지 다양한 세대가 모이는 교류거점으로 일본 전국의 스타디움 아레나(경기장) 중 20개 곳을 선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일본 스포츠청은 스포츠 기반을 형성하기 위해 스포츠 오픈 이노베이션 플랫폼(SOIP)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0년도에는 기업, 대학, 스포츠 단체 등이 모이는 컴퍼런스 개최와 함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을 위한 지원하고 있다.

9. 스포츠를 활용한 지역활성화

• 지역 스포츠 시설 정비 및 운영

2020년 4월 공표한 '체육·스포츠시설현황조사'에 따르면 일본의 체육·스포츠 시설 수는 학교체육시설의 경우 감소하고 있고 사회체육시설은 거의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일본 스포츠청은 향후 시설의 노후화, 재정 부족, 인구감소 등에 따른 대응과 스포츠 시설의 제공을 위해 스포츠 시설의 정비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 스포츠 투어리즘 진흥에 대한 노력

① 지역 스포츠 커미션 지원 활동

일본 스포츠청은 지방공공단체, 스포츠 단체, 기업(관광산업, 스포츠 산업) 등이 하나가 되어 지역 활성화를 추진하는 조직인「지역 스포츠 커미션」 설립 등을 지원하고 있다. 주로 스포츠 참여와 관전을 목적으로 지역을 방문하는 등의 관광(스포츠 투어리즘)추진, 스포츠 이벤트 개최, 대회 및 합숙·캠프 유치 등이 있는데, 2020년도에는 총 38건을 지원했다.

일본 스포츠청 조사에 따르면 2020년 10월 기준으로 전국에는 159개의 지역 스포츠 커미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 지역 스포츠의 자원 활용

일본 스포츠청은 '아웃도어 스포츠'와 '무술(무도)'을 활용한 새로운 투어리즘을 추진하고 있다. 2020년도에는 설상 스포츠, 사이클링 및 무술을 활용한 콘텐츠 조성 관련 지원을 6건 하였으며 유럽을 대상으로 디지털 프로모션을 진행했다. 도쿄 올림픽·패럴림픽 이후 새로운 콘텐츠 창출을 목표로 민간과 함께 어반 스포츠 투어리즘을 추진을 위한 논점을 정리하였고, 일본 문화청 및 관광청과 연계해 '스포츠 문화 투어리즘 어워드'를 실시, 총 13건을 표창하였다.

10. 스포츠를 활용한 국제교류협력

• <스포츠 국제전략>의 책정과 전개

일본 스포츠청은 'Sport for Tomorrow' 사업을 중심으로 국제교류 및 협력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18년 9월에는 스포츠 국제교류 협력에 대해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전략적이고 구체적인 시책 추진을 촉진하기 위한 <스포츠 국제전략>을 책정하였다.

그 일환으로 「스포츠 국제전개 기반형성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스포츠 국제정책의 전개를 촉진하기 위한 기반형성을 목적으로 국제경기연맹(IF) 등의 일본인 임원을 늘리고 재선에 성공하기 위한 노력 등을 전개하는 등 국내의 네트워크 강화 등을 지원하고 있다.

2019년도에는 두 번째 일본인 IOC위원 선출 및 배드민턴, 테니스 등에서 새로운 이사진을 획득, 트라이아슬론에서 여성 이사가 선출되는 등 IF 등의 일본인 임원은 「제2기 스포츠 기본계획」의 목표인 35명에 도달하였다. (2015년 기준 18명)

국제경기연맹 및 아시아경기연맹 내 일본인 임원 수('20.1.30. 기준) (단위: 명)

| 구분 | 국제경기연맹(IF) | 아시아경기연맹(AF) |
|----------|------------|-------------|
| 올림픽 경기 | 31명 | 35명 |
| 비 올림픽 경기 | 56명 | 36명 |

*IF, AF 이외 주요 임원 수: IOC 2명, IPC 1명, IBSA 1명

(출처: 스포츠청 스포츠관계 데이터집, 2021.4.26.)

스포츠 산업분야에서는 스포츠청, 경제산업성,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및 JSC가 2018년 7월 기본합의서를 체결하여 연대를 강화하고 있다.

• 국제교류협력을 위한 노력

2017년 7월 유네스코 '국제체육장관회의(MINEPS)'에 참가하여 실행지향형 성과문서인 「가장 실행계획」을 책정하였는데 이에 따라 일본은 유네스코 '체육 및 스포츠분야 정부간위원회(CIGEPE)'의 회원국으로 선출되었다. 2019년 10월에는 '제2회 일-아세안 스포츠 장관회의'를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하였고 2020년 12월 온라인으로 개최된 '제3회 한중일 스포츠장관회의'에 참가해 베이징공동성명에 서명하였다.

• 국제경기대회 유치 및 개최에 관한 지원

일본 스포츠청은 국제경기대회 유치가 스포츠 진흥뿐만 아니라 일본 국민에게 꿈과 감동을 전하는 등 국제교류 및 친선, 지역 경제의

활성화 등에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 관계단체와 정부 기관과 연계하여 대회 유치 및 개최를 지원하고 있다. 2019년 11월에 개최된 여자 핸드볼 세계선수권대회(구마모토현 개최)에서는 스포츠청 장관이 경기 MVP 프레젠티를 맡기도 하였다.

코로나19로 2022년으로 연기된 '제19회 FINA 세계 수영 선수권 2022 후쿠오카대회'와 '월드 마스터즈 게임 2021 간사이'에 대해서는 연기에 따른 추가 경비 보조금 지급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외에, 제20회 아시안게임(2026/아이치·나고야)의 홍보활동에 협력하는 등 다양한 국제경기 대회의 유치 및 개최를 위해 지원하고 있다.

향후 일본 내 개최예정인 국제대회 일람

| 연도 | 개최시기 | 장소 | 대회명 |
|------|-------|---------------------|----------------------------------|
| 2021 | 10월 | 기타큐슈시 | 2021 세계체조·리듬체조 세계선수권 |
| | 3월 | 히로시마시 | FISE WORLD SERIES HIROSHIMA 2022 |
| | 5월 | 간사이지역 일대 | 월드 마스터즈 게임즈 2021 간사이 |
| 2022 | 5월 | 후쿠오카시 |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 2022 |
| | 6월 | 후쿠오카시, 구마모토시, 가고시마시 | 세계 마스터즈 수영 선수권대회 |
| | 8~9월 | 고베시 | 2022 세계 장애인 육상 선수권 대회 |
| 2023 | 8~9월 | 오키나와현 등 | FIBA 농구 월드컵 2023 |
| 2025 | 유치 검토 | 도쿄 일대 | 제25회 하계 데플림픽 |
| 2026 | 9~10월 | 아이치현, 나고야시 | 제20회 하계 아시안게임 |

(출처 : 스포츠청 스포츠관계 데이터집, 2021.4.26.)

맺음말

일본은 현재 저출산으로 인해 인구가 감소 추세에 있으며 평균수명이 증가하는 등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해 있다. 이러한 배경에 따라, 일본 후생노동성은 70세까지 취업 기회를 확보하고 환경을 정비하기 위한 「고연령자들의 고용 안정 등에 관한 법률」을 2021년 4월 1일 개정하는 등 생산인구 확보에 나서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일본 문부과학성이 2021년 7월 20일 발표한 《문부과학백서2020》와 스포츠청 자료를 바탕으로 일본 정부의 스포츠 정책의 전반을 살펴보았다.

생산인구 확보와 함께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 건강수명의 확대 등 국민의 건강이라 할 수 있다. 일본 국민의 연간 의료비가 증가 추세에 있다는 점은 생활체육의 중요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라 볼 수 있다.

2022년 발표 예정인 일본의 「제3기 스포츠 기본계획」에도 고령자,

여성, 어린이, 장애인 등의 스포츠 참가 등의 생활체육 보급관련 내용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본 정부는 2013년 올림픽 유치 전후로 하여 일본 선수들의 국제경기력 향상을 위해 내셔널 트레이닝 센터 확충 등 다양한 강화 사업을 전개해 왔다. 이러한 사업의 결과는 2020 도쿄 올림픽에서의 일본 선수단의 높은 성적(역대 최다 금메달 등)을 통해 단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으며 향후, 각종 세계선수권 대회에서의 활약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녹색관광과 관광 경제의 전환을 위한 권장 사항

본 내용은 세계관광기구(UNWTO)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원제 RECOMMENDATIONS FOR THE TRANSITION TO A GREEN TRAVEL AND TOURISM ECONOMY

발간일 2021.5.

발간처 세계관광기구(UNWTO)

링크 https://webunwto.s3.eu-west-1.amazonaws.com/s3fs-public/2021-05/210504-Recommendations-for-the-Transition-to-a-Green-Travel-and-Tourism-Economy.pdf?wiwmhIGgXT4zwXles_Q8ycdlTGIQfaMt

요약

세계관광기구(UNWTO)는 천연자원을 보존하고 기후변화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녹색관광 개발의 모델을 제시했다. 녹색여행과 관광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권고안은 코로나19로부터 관광 부문의 책임있는 복구를 위한 '하나의 지구(One Planet)'비전을 토대로 작성됐다. 본 보고서에서는 비전을 통한 지구, 사람, 번영을 위해 공중보건, 사회적 포용, 생물의 다양성 등 책임있는 관광회복을 위한 6가지 행동지침사항 중 5가지를 다뤘다.

주요내용

코로나19 발생전, 관광산업은 수십 년 동안 지속적인 성장을 해왔고, 사회·경제 발전과 고용 분야에서 상당한 이익을 창출했다. 하지만 관광산업의 성장은 천연자원 소비와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중요한 과제였다. 따라서 자연의 복구 계획은 관광산업의 회복과 함께 핵심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관광산업의 향후 회복 관점은 지구, 사람과 번영의 균형을 어떻게 맞춰야 할지에 달려있으며, 관광 분야의 이해관계자들 간의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 '지구, 사람, 번영'은 이탈리아 G20 총회에서 최우선 과제로 논의됐던 환경 지속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관광산업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개선하고 포괄적인 전환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세계관광기구(UNWTO)는 'G20 로마 지침서'에 따라

관광의 미래를 위한 녹색 전환 정책으로서 균형적이고 지속가능한 녹색여행과 경제 관광으로의 전환을 위해 관광개발모델의 권고안을 제시했다. 권고안은 녹색변혁에 대한 정책적 권고를 심도있게 이해하고 행동을 유도하기 위해 개발됐다.

관광의 녹색 전환

1. 지구

생물다양성 보존

코로나19 팬데믹은 질병으로부터 건강한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여주었다. 건강한 환경은 관광 분야의 경쟁력과 직결되어 있으며, 여행지 보존을 위한 노력은 관광 수입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보존에 대한 노력을 지원하는 것은 좀 더 친환경적인 회복을 가능하게 한다.

- 관광을 통한 보존의 가치 획득 : 코로나19 기간동안의 경제활동 감소는 환경 오염을 어느정도 감소시켰으나, 관광지 주변의 해양과 육지 생태계, 보호지역과 종의 보존은 관광 수입과 해당 업계 운영자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관광 분야의 보존 노력은 관광지의 생태계를 자발적으로 관리·감독함으로써 이루어진다.
- 관광을 통한 보존 노력 지원 : 코로나19로 관광이 제한됨에 따라 관광지는 야생동물의 침입과 수탈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관광 부문의 자산이 직접적인 위협을 받고 있다. 따라서 관광 분야의 종사자들은 외래종의 이동 감소와 불법 야생동물 교역 금지 등 관광 역할의 제고, 지속적인 보존 노력, 복구 계획과 지원에 동의해야한다. 또한 관광은 문화 유적지 보존에도 기여한다.
-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한 자연 기반의 해결방식에 투자 : 자연 기반의 해결방식은 관광의 혁신을 촉진하며 천연자원 관리를 개선하고 도시와 자연의 재해 복원력을 길러준다.

기후변화의 보존 활동

UNWTO/ITF가 2019년 12월에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관광산업은 2020년까지 CO2 배출량이 최소 25%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온실가스(GHG) 배출량은 코로나19로 인해 7% 감소했지만, 관광업이 재개됨에 따라 관광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이 급반등할 수 있어 국제사회에 발맞춰 기후변화의 대응을 위한 관광업 전환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 관광업에서 발생하는 CO2 배출량 보고 : 관광 부문에서 발생하는 CO2 배출량 측정과 정보공개를 강화하는 동시에 중소기업이 불필요한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한다. 관광지에서 CO2 배출량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는 것은 기후 인식에 대한 관광 개발로 전환을 촉발할 수 있다.
- 관광 운영의 탈(脫)탄소화 가속화 : 저탄소 교통수단 개발 투자와 친환경 기반 구축 등 관광 분야의 탄소 배출가스 저감 노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탄소배출량 절감을 위한 선택은 관광 기업과 협회가 탄소거래시장에 참여하는 방법이 있다. 중소기업은 탈탄소화 실현을 위해 기술과 재정적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 탈(脫)탄소화에 관광 부문 참여 : 자연적, 기술적 방법을 통한 기후변화와 탄소제거에 대한 관광 부문의 참여가 필요하다.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50% 감축하는 등 정부 간에

기후변화위원회의 최신 권고사항을 준수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려면 생태계 복원을 통한 탄소 제거에 자연 자정작용이 필요하다.

2. 번영

순환경제

코로나19 팬데믹은 순환경제의 핵심요소인 '상품, 생산, 소비'에 대한 개념을 재고하는 계기가 됐다. 관광산업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관광 가치사슬의 통합과 자원의 효율성을 발전 시켜야 한다.

- 관광 가치사슬의 혁신 : 순환경제 과정은 폐기물과 오염처리뿐만 아니라 관광 가치사슬의 경제적 손해를 줄일 수 있다. 관광산업의 순환경제 과정 통합화는 혁신, 새로운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 창출, 녹색 일자리 창출 등 부가가치와 지역경제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
- 음식폐기물 감축 : 관광업계의 음식폐기물 감축은 CO2 배출을 억제하고 비용을 절감한다. 이는 중소 관광업계의 운영비 절감을 가져올 수 있다.
- 관광업계의 플라스틱 사용 전환 : 매년 1,300만 톤의 플라스틱이 바다에 버려져 세계 경제는 해양 활동에서 130억 달러의 손실을 본다. 특히 어업과 관광산업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다. 플라스틱 폐기물과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플라스틱을 제거하고 재활용과 퇴비가 가능한 플라스틱 사용을 촉진하는 것이다. 이는 플라스틱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관광업 종사자들 간의 협업을 통해 관광산업의 순환성을 촉진하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

3. 사람

공중보건

코로나19 팬데믹은 관광, 공중보건, 환경의 강한 연관성을 보여주었다. 즉, 관광 분야에서 공중보건과 인도적 지원은 관광 관련 기반시설 형성, 공급망 확충,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공중보건과 관광산업은 장기적으로 동반 상승 효과를 내는 것은 미래에 닥칠 위기를 대비해 투자하는 것이며 기업에 신뢰감을 주는 것이다.

- 관광에 역학 지표 통합 : 역학 지표는 관광산업의 관리·감독 방식과 연계된다. 관리·감독 방식을 강화하면 관광산업이 경제활동을 신속히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고 여행 제한의 완화나 새로운 조치와 정책의 도입을 적용할 수 있다. 역학 지표의 방식을 잘 계획하고 관리한다면 관광산업은 해당 분야의 종사자와 현지인의 건강과 복지에 기여할 수 있다.
- 지속가능한 위생 방침 : 관광업과 해당 근로자가 안전하게 재개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침서와 산업안전보건 규약은 정부, 고용주, 노동단체, 관광업계의 이해당사자들, 과학계와 보건당국 간의 협업이 필요하다. 규약은 건강에 유해한 환경 조성을 방지하기 위해 가능한 한 지속가능한 원칙으로 통합하는 것이 중요하다. 코로나19로 인한 새로운 사회적 거리 유지와 안전 규약 도입은 장애인과 노인에게 또 다른 사회적 장벽을 두게 해서는 안된다.

- **소통을 통한 신뢰회복** : 관광객, 해당 직원과 지역사회의 공중위생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현재 방역 조치와 관광지 내 현지 상황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와 적극적인 소통이 핵심이다. 공중보건에 대한 중요성과 코로나19 전염의 민감성 등의 환경을 고려할 때, 관광지는 관련 정보소식통에 명확하고 일관적인 정보를 전달해야 하며, 방문객의 신뢰를 회복하고 소비자의 책임있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높은 인식과 요구에 협조해야 한다.

사회적 포용

관광 분야에서 녹색 일자리는 여전히 부족하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일자리 위기를 초래했다. 특히 전 세계 관광사업의 약 80%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관광 일자리와 업계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광 사업자들은 직원들의 일자리를 보장하고 해당 지역사회를 돕는데 앞장서고 있다.

- **취약계층의 지원** : 대부분 관광 일자리는 지역사회의 주요 수입원이었고 취약계층의 생계를 대표했다. 하지만 과도한 근로시간, 저임금, 사회 보장의 부족 등의 문제가 관광업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관광업계의 일자리 보장을 강화하고 불평등을 줄이며, 비공식 경제에서 정식 경제로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 **중소기업의 지원** : 중소기업의 운영의 지속성을 보장하고 관광지의 다양성과 매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디지털 기술 기반 구축과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산업의 지속성에 기여할 수 있다. 여행업은 고객 기반의 수익원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 **지역사회의 지원** : 위기 상황에서 관광산업과 창의산업은 지역사회와 더욱 돈독한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관광에 대한 지역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지역의 강한 가치사슬은 사회적·경제적 이익을 가져오고 해외 의존도를 낮춰 관광업의 선순환 결과를 가져온다.

정책제언

관광업계의 종사자들은 '녹색여행과 관광 경제의 전환을 위한 권고안(the Transition to a Green Travel and Tourism Economy)'을 통해 관광산업의 변혁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었다. 이번 권고안은 G20 국가가 보다 나은 관광을 건설하기 위해 정치적, 경제적 지원을 조정하고 표준 지침을 제공했다. 또한 관광산업은 권고안을 통해 지구, 사람, 번영의 지속가능한 원칙에 입각해 보다 유연하고 포용적인 관광 비즈니스 모델을 달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엔터테인먼트와 미디어(E&M) 산업의 향후 전망(2021-2025년)

본 내용은 pwc 보고서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원제 Perspectives from the Global Entertainment & Media Outlook
2021-2025 Power shifts: Altering the dynamics of the E&M
industry

발간일 2021.3.

발행 pwc¹

링크 <https://www.pwc.com/gx/en/industries/tmt/media/outlook.html>

¹ 영국 런던에 본사를 둔
세계 1위의 다국적
회계 감사 기업

요약

본 보고서는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엔터테인먼트·미디어(E&M) 산업의 변화와 향후 전망에 대해 분석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사람들은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디지털 서비스 이용은 급증했다. 이러한 사람들의 생활 변화는 소비 행동 습관까지 변화하게 됐다. E&M 산업은 소비자 행동 변화로 인해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산업 중 하나로 기존의 수익구조에도 변화를 맞게 됐다. E&M 산업은 코로나19로 인해 가속화된 디지털 시대의 전환, 소비자 행동의 변화와 시장 주도권의 변화 속에서 능동적인 대체와 심도 있는 통찰력이 요구된다.

주요내용

전 세계가 계속해서 코로나19 팬데믹을 통제하기 위해 고군분투할 것이라는 냉정한 현실 속에서, 세계적인 경기침체는 다른 지역과 산업의 영역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코로나19 방역 관련 폐쇄조치(Shut Down)로 인해 2조 달러의 방대한 엔터테인먼트·미디어(E&M) 산업은 가장 큰 영향을 받았고, 주요 소비자의 일부는 소비 행동의 변화가 일어났다. 2020년은 상호 연결된 방대한 E&M 산업에서 엄청난 힘의 전환이 있었던 해로, 해가 지날수록 세계의 관심과 소비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코로나19로 나타난 소비자 행동의 변화에 기인하며, 기술의 지속적인 발전과 콘텐츠의 유통과정은 소비자와 공급자, 제작자와 제작자, 제작자와 배급자, 광고주와 출판사, 정부와 기업 간의 복잡한 역할 관계를 변화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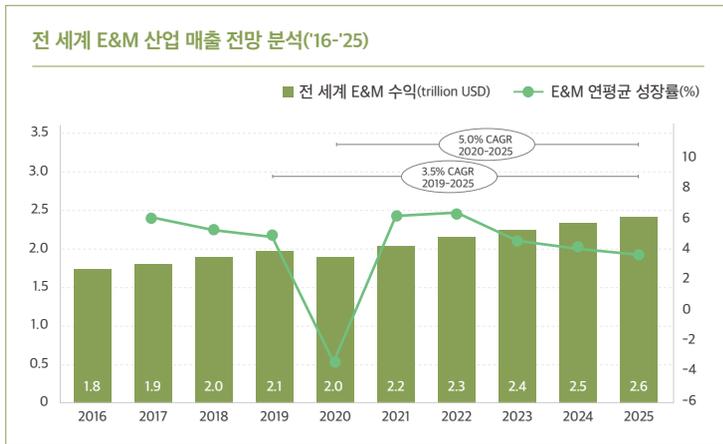
이는 산업 비즈니스 모델(BM)과 관련 종사자들의 변화를 촉진하고 산업의 수익창출을 변화시켰다. 새로운 가치 창출, 결과의 지속성과 신뢰를 쌓기 위한 새로운 방정식이 등장함에 따라 향후 데이터, 동향, 기술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필요하다.

본문

1. 디지털 시대의 엔터테인먼트·미디어(E&M) 산업의 변화와 전망

엔터테인먼트·미디어(E&M)의 변화 동력은 디지털 소비의 전환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문화시설들이 폐쇄되고, 소비자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가정 내 디지털 서비스 사용이 급증했다. 2020년 넷플릭스(Netflix)는 가입자 수가 200만 명을 넘어섰으나, 영화관의 수입은 71% 감소했다. 기존의 종이 화폐는 디지털 다임²으로 대체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디지털화의 증가는 어려운 과제라고 여겼다. 하지만 디지털을 선택한 소비자들은 글로벌 E&M 부문에서 급격한 수익 손실을 상쇄하는데 도움이 됐다. 2020년 전 세계 E&M의 매출은 2019년 대비 3.8% 감소로 역사상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하지만 2021년에는 코로나19의 폐쇄 조치가 완화돼 동일 산업 수익이 6.5%로 증가하고, 2022년에는 6.7%까지 지속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평균 성장률(CAGR)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5년 연속 5.0% 상승해 2025년 매출은 2조 6,0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2 2000년대 모바일 거래 방식



2. E&M 산업의 소비 성향 분석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사람들은 집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더 많은 시간을 온라인에서 보냈다. 사람들은 영화관과 서점에 가는 대신 온라인 스트리밍으로 동영상과 오디오 콘텐츠를 보고 전자책을 읽고 오디오 앱 클럽하우스 등에서 디지털 커뮤니티를 형성했다. 이는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기여를 했고 소비자 활동이 위축 됐더라도 더 많은 광고를 끌어모았다. E&M 수익의 요소는 접속량, 소비자 지출, 광고이다. 2020년 3가지 요소 중 유일하게 접속량이 증가해 140억 달러(2.1%)가 증가했으며, 전체 지출의 34.1%를 차지했다. 소비자 지출은 5.5% 감소해 전체 지출의 37.1% 차지했고 광고는 28.7%를 보였다.

소비 세대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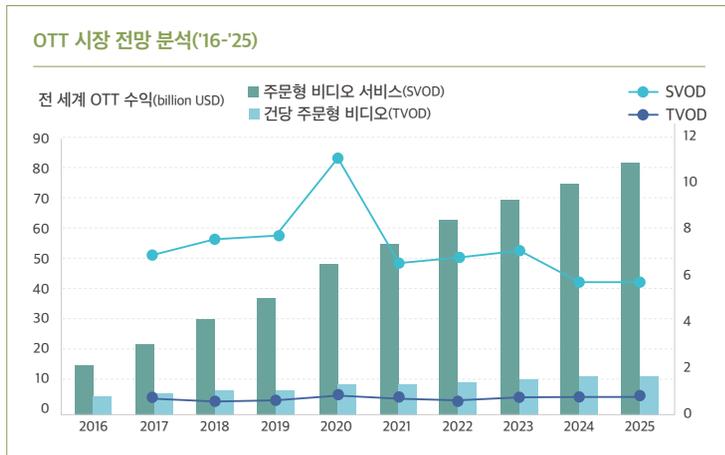
젊은 소비자들은 전통적인 미디어에 대한 인식이나 관심이 없다. 반면 젊은층을 목표로 가볍게 제작 가능한 미디어 플랫폼이 유행을 일으켰다. 2020년 말 대표적인 미디어 플랫폼인 틱톡(TikTok)과 더윈(Douyin)은 불과 4년만에 141개국에서 월 12억 9,000만 명의 가입자를 구축했다. 2020년 7월 도쿄와 요코하마에서 열린 틱톡 라이브 행사에서는 약 28만 5,000명 이상의 시청자들이 온라인 스트리밍에 접속해 일본 팝(J-Pop) 공연을 관람했다. 음원은 2020년에서 2025년까지 연평균 성장률(CAGR) 12.8%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293억 달러 규모의 사업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소비자 행동의 변화

요즘 추세는 소비자들이 편리함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라디오 방송국의 시간대를 따르는 것 보다는 팟캐스트를 선택함으로써 편리함을 선호한다. 이에 따라 오디오 콘텐츠 제작사들은 소비자가 자기 주도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서비스 형태를 다양화 하고 있다. 또한 게임 부문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동안 E&M 산업에게 호재로 작용했다. 게임 매출은 2020년에 10% 증가했고 2025년까지 4.4%의 CAGR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증강현실과 영화 콘텐츠 부문도 이용자 수가 급감했다. 디즈니플러스에서는 2020년 9월 영화 '물랑' 개봉을 영화관과 온라인 스트리밍 동시에 개봉해 1만 1,000만 명이 영화관에서 35만 5,000만 명이 온라인 스트리밍으로 관람했다.

3. 비즈니스 모델 전환

소비자 행동의 변화는 E&M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를 주도했다. 이러한 변화 중 가장 중요한 것은 2020년 스트리밍 유행이 관련 업계를 새로운 성장 궤도에 올려놨다. SVOD(주문형 비디오 서비스)의 매출은 2025년까지 10.6%의 CAGR 성장률을 보일 것이며, 이 때 SVOD는 813억 달러 규모의 산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4. 시장 주도권 변화

점차적으로 가상화되는 세계에서 E&M 기업들은 사업 거래를 재편하고 시장 주도권을 유지하려고 한다. 기업들은 새로운 접근방법으로 소비자들을 공략하고 있다. 2020년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전 세계의 상당수가 폐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적재산권(IPO), 벤처캐피탈, 특수목적인수회사(SPAC)로 많은 자금이 유입되는 등 자본시장이 눈에 띄게 바꿨다. 2021년 이후 E&M의 인수합병에 대한 전망은 밝으며, 현직 종사자들은 적극적으로 인수를 모색하고 있다. 버라이즌(Verizon)과 에이티앤티(AT&T) 등의 통신회사는 기존의 광고 기반 체계를 매각하고 케이블 회사를 인수했다. 그 외에도 도서출판사는 비디오 기술 기업의 인수 등 콘텐츠 전쟁에서 더 많은 규모를 확보하기 위해 변화를 꾀하고 있다. E&M 거래의 또 다른 추세는 디지털 성장에 초점을 맞춰 대규모 벤처 대상의 자본 거래가 확대되고 있다.

5. 팬데믹 이후 글로벌 미디어의 규제 변화

2020년은 글로벌 미디어 규제의 중요한 분수령이 되었다. 팬데믹 기간동안 전자상거래, 디지털 광고, 온라인이 활성화 되면서 아마존, 페이스북, 구글, 넷플릭스로 자본의 힘이 이동했다. 하지만 지역과 오프라인 기업들은 보다 수준높은 경쟁을 해야한다는 압박감이 커졌다. 미국에서는 독과점 금지, 대형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적대감, 소비자의 높은 기대치 등 디지털 운영의 환경은 훨씬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호주는 2021년 2월 호주 연방정부가 누리소통망이 제3자 뉴스 콘텐츠를 유료화하는 새로운 미디어법을 제안하자 페이스북은 자국 내 현지 뉴스를 잠시 차단했다. 유럽연합(EU)은 시장경쟁 보호와 시민들의 데이터 사용에 대한 투명성 보장을 위해 대형 플랫폼의 권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들은 사회적 의식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미디어 환경, 온라인의 사회적 문제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021년 디지털 생태계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소비자의 76%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기업과 공유하는 것은 불필요하며, 36%는 전년 대비 정보 공유가 불편하다고 응답했다.

정책 제언

2022년 E&M의 전망은 긍정적이다. 디지털의 전환은 향후 연관 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성장하는데 동력이 될 것이다. 또한 E&M 기업은 소비자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하고 유사 기업과 경쟁함으로써 E&M 산업은 더욱 다양하게 성장할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와 건강 회복이 전 세계에 균등하게 분포되지 않는 것처럼 E&M의 개별 부문과 특정 지역 시장에 집중적으로 형성되고 있는 기업도 상당한 불균형이 있을 것이다. 비디오 스트리밍과 같은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이는 분야는 향후 몇 년 동안 경쟁 기반이 크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E&M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고객의 행동과 산업에 대한 깊은 통찰력이 요구된다.

III

이달의 담론

다양한 사회적 위기,
문화예술교육 실천가들의 역할과 국제문화교류의 연대 모색

이달의 담론

다양한 사회적 위기, 문화예술교육 실천가들의 역할과 국제문화교류의 연대 모색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는 새 시대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 피터 셀라스

전세계 인류는 지금 유례없는 팬데믹으로 국경과 도시의 봉쇄를 반복적으로 경험하며, 장기화되고 있는 고립과 단절 속에서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안녕을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또한 사회적 재난으로서 소외된 자가 더욱 소외되는 ‘재난의 불평등 시대’를 열었고, 사회적 불평등의 골을 더욱 깊어만 가고 있다. 학교뿐만이 아닌 지역 사회 안에서의 기회와 평등의 문제는 사회와 경제의 구조적인 모순에서뿐 아니라 사회적 재난으로부터도 가속화되어가고 있다.

그리고 교류와 서로 돌봄은 모순되게도 ‘만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 가능해진 시대가 되었다. 만남을 전제로 했던 국제교류에서도 변화의 바람은 우리를 휘청거리게 할 정도로 강하게 불었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국제교류 프로젝트도 예외는 아니었다. 2020년 국제예술교육실천가대회(ITAC)인 국제 행사가 비대면으로 이루어졌다. 국경을 넘을 수 없는 한국의 문화예술교육 실천가들과 예술강사들은 온라인으로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를

만났다. 처음 해보는 시도였지만, 다른 소통의 방식을 찾기 위해 분투하고 궁리했던 결과였다. 분주하고 바쁜 과정에서 우리는 왜 교류하고 만나야 하는지 원초적이고 원론적인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그리고 다양하게 만나고 교류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의 비대면 장치를 고안하면서 우리는 새로운 형식의 교류 가능성도 발견할 수 있었다.

2021년 코로나19는 계속되고,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행사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비대면으로 개최되었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유네스코 유니트윈 학술대회(이하 유니트윈 학술대회)’의 개최가 서울로 유치되었지만 2020년 코로나19 이후 개최를 미뤄오다, 2021년 비대면 개최로 전환하게 되었다. 서울어젠다 채택 10주년을 맞는 2021년은 그 의미에서나 시의적으로도 특별했기 때문에 개최를 마냥 미뤄둘 수 없었던 것이다. 서울어젠다는 2009년 국제자문위원회의 활동을 시작으로 2010 유네스코와 대한민국 정부가 개최한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를 통해 다듬어진 예술교육발전목표로서, 2011년 11월 제36차 유네스코 세계총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문화예술교육 의제이다. 서울어젠다는 접근성과 질 제고를 포함한 3개의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데 목표3은 사회적 역할을 제시하고 있다. 문화예술교육은 오늘날의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사회문화적 도전에 대해 예술교육의 원리와 실천을 적용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다. 코로나19로 전인류의 삶이 도전받고 있는 현 시점에서 '사회적 위기 속 참여적 예술교육의 역할', '위기의 시대 행동하는 예술교육' 실천을 주제로 동료 문화예술교육 연구자와 현장실천가를 만나 함께 공유하고 연대감을 갖는 일은 중요했고 또 유효했다.

사회문화적 도전 과제에 문화예술교육으로 응답하기

'다양성, 문화적 대의,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 포용, 예술치유, 예술참여 혹은 관여, 교실속의 예술' 등의 주제로 국제공모를 통해 다뤄진 실천 사례들은 현 시대와 공명하기에 충분했다. 정신적 건강과 안녕을 회복하고자 하는 예술교육과 치유의 작업은 물론, 상호연계와 상호작용이 중요한 교실 안에서 실험되는 커뮤니티 예술 작업과 원격 교육 실천들은 코로나19의 그늘로 어두워진 기회와 평등의 계고라는 측면에서 중요했다. 특히 코로나19 비대면 시대에서의 대안적인 디지털 예술교육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예술교육에서의 참여의 방법과 형태의 변화를 모색하고, 감각과 소통과 표현의 한계를 확장하고자 하는 노력이 경주되고 있다는 점이 고무적이었다. 또한 문화예술교육계의 오랜 화두인 장애인, 소수자, 이주민과 난민, 인종 차별과 혐오를 넘어선 문화다양성의 성취 등 문화예술교육의 새로운 가능성과 역할을 논해볼 수 있는 계기를 선사했다. 무엇보다 한국, 케냐, 남아프리카공화국, 호주, 싱가포르, 중국, 미국, 콜롬비아 등 총 13개국의 연구자, 행정가, 현장실천가들이 발제자, 토론자, 모더레이터 등 다양한 역할로 참여하며 교류의 폭을 넓혔다는 데에 그 의미가 크다.

이번 학술대회는 다양한 수위의 해외 문화예술 교육 실천들을 교류하는 것 뿐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가속화되거나 가시화되고 있는 사회적 위기에 대응하며 학교와 지역사회 안에서 실천하고 실험하고 개입하고 있는 한국의 현장 사례를 세계로

발신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었다. 현장 사례 세션을 통해 기후위기, 사회적 재난, 청소년, 장애, 생애전환기 등의 주제로 실천하는 극장, 미술관, 지역문화재단, 민간단체, 예술가, 예술강사의 사례들이 다양하게 제시되었다. 특히 이번 학술대회에서 다루어진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바라본 기후위기'에서는 기후위기와 환경문제에 대처하는 국내 예술가와 지역단체의 문화예술교육 활동 사례를 공유하는 작업으로 시의성을 더했다. 학술발표 외에도 브이로그 형태의 예술가와 예술강사 작업 소개, 일상에서 문화예술교육과 함께 하는 시민들과 예술가들의 목소리가 담긴 영상 제작 등 다양한 소통의 방식도 실험해보았다. 언어, 문화, 지역, 대상, 현장은 다르지만 모두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사회와 관계하고 도전과제에 응전해보고자 노력한다는 점에서 국제적 연대감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10 유네스코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 국제자문위원회 위원이자 총보고관이었던 래리 오페럴도 "코로나19 팬데믹은 무엇보다 시급한 사안이며, 서울어젠다는 이의 회복에 있어 예술교육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있다. 서울어젠다의 목표3은 우리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트라우마와 상실, 소외를 치유하는 것을 골조로 한다."고 말하며, "전세계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경제적 사회적 불평등이 드러나고 더욱 악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분투하는 전 세계 동료들의 활동"에 주목할 수 있는 이번 학술대회의 결과에 기대를 드러내기도 한 바 있다. 인종, 전쟁, 빈곤과 국제 난민위기와 같은 도전적인 문제를 다루는 오페라와 연극 연출가 피터 셸러스, 지속가능한 미래로 향하기 위해 극장, 미술관, 예술단체들과 탄소 배출 저감 운동을 벌이며 기후변화 해결에 앞장서고 있는 벤 트위스트 외에도 에르네스토 오토네 유네스코 문화사무총장보가 온라인을 통해 참여하며 국제적인 연대에 동참했다.

멈추지 않는 교류와 연대 : 문화예술교육으로 사회에 개입하기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크리에이티브 카본 스코틀랜드의 벤 트위스트는 예술은 “복잡한 동시에 복잡성을 다루고”, “해석하고 이해하는 일도 역시 복잡하다. 그래서 복잡한 사회 문제를 다루는데 특히 적합하다”고 일갈하며, 자신의 일은 “어떤 예술작품의 창작이 아닌, 사회라는 복잡한 시스템을 변하게 만드는 개입점을 찾아낼 수 있는 예술가들에게 기회와 격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필자는 여기에 빚대어 필자의 일은 사회의 변화에 개입하고자 하는 문화예술교육 실천가의 분투를 응원하고 지지하기 위해, 국경을 넘어 서로에게 영감이 되거나 협업할 수 있는 국제 연대의 기반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철학적이고 학술적인 지지와 연대는 물론 프로젝트 기반의 국제 커미셔닝이나 교류 워크숍, 사회적 개입과 혁신을 주제로 정기적인 대화하고 토론할 수 있는 모임의 장(플랫폼) 마련도 가능할 것이다.

‘예술연구 모임’이 대학과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한 문화예술교육 연구자와 교육가 주도의 장이라면,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리더십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국제예술교육실천가모임(International Teaching Artists Collaborative, 이하 ITAC)은 예술교육실천가(TA)가 주축이 되는 장(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다. ITAC은 민간 단위의 실천가, 연구자, 교육자들이 주축이 되어 시작한 국제예술교육실천가 대회를 모체로 하는 콜라보레이티브(협업체)로, 현재는 노르웨이, 호주, 영국, 미국, 한국, 싱가포르,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탄자니아, 캐나다 등의 행정가, 연구자, 교육자, 실천가, 독립기획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최근 국가 및 권역을 기반으로 한 ITAC 허브가 한국, 노르웨이, 미국, 뉴질랜드 등 4개 국가에 런칭되었는데, 국제예술교육실천가들의 네트워크의 장이 ITAC허브를 통해 더욱 깊고 안정감 있게 확장되리라 기대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2021년 국제예술교육실천가가 타 섹터들과 연계하여 사회적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커미셔닝 프로젝트 ‘ITAC 임팩트(ITAC Impact)’가 런칭했다는 것이다. 첫 번째 주제는 기후위기로 호주 커뮤니티예술네트워크(Community Arts Network, CAN)과 협업하여 진행된다. 국제공모를 통해 연극, 무용, 축제, 합창, 커뮤니티 공연 분야에서 활동하는 호주, 미국, 세르비아, 필리핀, 브라질의 5명의 예술교육실천가가 선정되었다. 이들은 지역 시민들과 함께 예술을 매개로 기후변화로 인한 사회현상과 문제를 탐구하거나, 기후변화를 주제로 시민참여 예술 프로젝트를 시행하거나, 커뮤니티 예술 활동을 매개로 지역 동료 시민들의 기후 인식을 제고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또한 현안과 이슈에 대응하는 지역 실천가들의 노력 또한 지속적으로 조망할 예정이다. ITAC 이노베이터 프로젝트가 그 중 하나다. 2021년에는 6명의 이노베이터가 선정되었고, 이노베이터가 주관하는 아이디어 교류 웨비나 싱크탱크(Think Tank)가 개최될 예정이다. 현대마임과 신체스토리에 기반한 비언어 예술교육, 지역현안과 공동체 형성 그리고 치유를 위한 예술교육실천, 정신건강과 안녕을 위한 예술교육실천 그리고 예술교육실천가의 안녕 등 다양한 주제가 공유될 예정이다.

문화예술교육으로 사회문화적 도전과제를 해결해보고자 노력하는 데서는 아시아도 예외가 없다. 2013년부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국내 문화예술교육 실천가들과 함께, 문화예술교육으로 공동체 이슈를 창의적으로 해결하고자 했던 문화예술교육 ODA 베트남 프로젝트를 지원해왔고, 현재는 소수민족 학교 교사들과 함께 연극과 뉴미디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및 진행하고 있다. 2018년부터는 인도네시아 최빈지역 여성과 지역주민들과 함께 문화예술교육 기반의

사회적경제 활동을 실험하고 있고, 2020년부터는 환경과 생태를 주제로 작업하는 인도네시아 예술가들과 함께 지역 내 공립학교 학생들과 예술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2021년부터는 보다 적극적인 행동과 실천의 차원에서 사회적으로 개입하고자 하는 아시아 예술교육실천가들과의 한국과의 상호교류를 통해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워크숍이 준비 중이다.

조금이나마 열 수 있다면 이 힘든 시간의 보상으로 충분할 것 같다. 그건 사람과 예술에 진심이기도 하고 사람과 예술 때문에 진심이 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우리는 좀 더 만나고 좀 더 교류해야 한다.

좀 더 만나고 좀 더 교류하기

오페라와 연극 연출가인 피터 셀러스가 말했던 것처럼, 깨어있는 예술은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변화를 일으킨다. '심장박동과 함께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해 손을 뻗으라' 말하는 음악으로, 움직이고 변화하고 변신하고 행동하는 공동의 몸짓인 춤으로, 아직 도래하지 않은 세계를 내면으로부터 창조하여 눈으로 직접 볼 수 있게 하는 영화로, 개별자로서의 너와 내가 아닌 다른 문화와 역사에 있는 우리로 복잡하고 풍성한 삶의 진리와 평등을 맞보고 경험하게 하는 연극으로, 구조적 사고와 이해로 불평등과 인종주의를 중단하고 평등의 구조를 세워보게 하는 건축으로, 창조하고 나누고 돌보고 키우는 농사와 요리라는 예술과 그 외의 수많은 예술형식들이 다음세대를 위해 행동할 수 있는 매개가 된다.

코로나19로 멈추어서니, 상호작용과 관계에 기반한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개입과 실천의 의미 그리고 중요성을 다시 깨닫게 된다. 멈춰버리고 나서야, 만남과 교류의 의미와 목적이 되새김되고, 국제적인 연대의 지속성을 굳게 다짐하게 된다. 그리고 온라인에서의 간헐적인 교류 경험이 새로운 교류 형식의 가능성을 어렵듯이 그리게 해준다. 필자처럼 시공간의 제약을 넘어서는 온라인에서의 만남이 깊이로 향하는 교류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국제교류 동료 담당자들도 애쓰고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가 더 나은 미래로의 문을



IV

What's On KCC abroad

[재외한국문화원 9월 활동계획]

유럽, 미주, 아시아, 오세아니아, 아프리카

* 다음 행사일정은 코로나19 여파로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탈리아

○ <Ciak, si mangia!>, <드라마와 영화 속의 한식> 4화-5화 촬영

[9.1.~9.6. | 문화원 한식강좌실]

- 한국영화와 드라마에 등장하는 한국 음식을 주제로 조리법을 배우고 해당 영화와 드라마에 대한 이야기를 제작과 송출
- 4화 :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 속 치맥(치킨과 맥주)
- 5화 : 영화 <살인의 추억> 속 짜장면
- 6화 : 드라마 <식샤를 합시다> 속 고기구이

○ 한국문화 소개 온라인 뉴스레터 『Corea Today』 8월호 발간 배포

[9.6. | 문화원 누리소통망,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메일 뉴스레터]

- 공모를 통해 선발된 온라인 기자단과 한국문화에 관한 기사를 매달 작성해 7,000여 명의 문화원 뉴스레터 회원에게 배포
- 9월 뉴스레터 : 1. 단풍여행, 2. 추석문, 3. 한국의 학교제도, 4. 탈춤, 5. G20 등 관련 기사

○ ‘송년음악회’ 개최 관련 계획 수립 [9월]

- 로마국립음악원, 한국 윈드오케스트라, 재이한인음악인협회의 공동협력으로 음악회 (12.19. 예정) 진행 방안 협의

○ SNS 한국문화소개 <너희들 이거 알고 있었니?> 카드 뉴스 제작 및 게시

[9.8. | 문화원 누리소통망]

- 한국드라마와 영화를 통해 접하는 한국인의 술 문화, 웃어른과의 술자리 예절, 한국의 안주 종류, 최근 한국에서 유행하는 술의 종류 등에 대한 소개와 카드뉴스 제작

○ 이탈리아에서 한국 찾기 SNS 행사 [9.14.~9.28. | 문화원 누리소통망]

- 이탈리아 참가자들이 현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한국 음식, 화장품, 식품, 전자제품, 장소 등 한국과 관련된 것을 사진 촬영하고 간단한 설명 등을 첨부해 문화원의 해시태그와 개인 누리소통망에 게시

○ <내가 사랑하는 한국> 영상 시리즈 제8편 [9.15. | 문화원 누리소통망]

- 한국에 거주하는 이탈리아인 10명을 인터뷰 또는 다큐멘터리 형식의 영상제작, 한국 소개
- 제8편 : 제주도에 살면서 서핑을 사랑하고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는 이탈리아인 편 제작 및 게시

○ <당신이 바라는 한국(La Corea che vuoi tu!) 제12편

[9.13., 9.17. | 문화원 누리소통망]

- 한국의 소개팅 문화와 데이트코스를 주제로 한국에 거주하는 이탈리아인과 한국인이 한국의 소개팅 문화를 소개하고, ‘활동형’, ‘아티스트형’, ‘패셔니스타형’ 중 최종 선택된

데이트코스를 소개하는 내용 제작과 송출
- 제12편 : 한국의 소개팅 문화와 서울 내 유명 데이트코스

○ **이정진 사진전시회 <Unnamed Road> 개최** [9.24. | 문화원 기획전시실]

- 2010년~2011까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작업한 사진 전시회로
2021년 7월~8월 두 달간 이탈리아의 수도 로마에서 전시
- 작가의 시선으로 바라본 전쟁의 폐허와 그 허무함에 대한 주제의 전시, 이정진 작가의
작품 총 20여 점 전시

○ **한글날 맞이 ‘예쁜한글쓰기 대회’ 개최** [9.20.~10.2. | 문화원 누리소통망]

- 한국의 시 3편 중 1편을 선정해 주어진 원고지에 필사해 제출, 그 중 우수한 필체를
선정 및 수상

○ **G20 정상회의 개최관련 로마 프레스센터 지원 계획수립** [9월]

○ **‘한국과 나’수필 공모전** [9.27.~10.10. | 문화원 이메일]

- 이탈리아 현지인들 대상으로 한국과 한국문화 등에 대한 수필 대회 개최

○ **한국현대무용단 모던테이블의 <속도> 공연 시칠리아주 시라쿠사 공연 관련
계획 수립** [9월]

독일

○ **SNS로 보는 한국문화** [9.6., 9.20. | 누리소통망]

- 다양한 한국문화를 누리 소통망을 통해 소개하는 카드뉴스 시리즈
- 9.6. <가을과 김치>
- 9.20. <추석편>

○ **베를린 온라인 한국독립영화제** [9.15.~9.30. | k-movie Base]

- 한국의 대표적인 독립영화와 다큐멘터리 영화 총 11편 온라인 상영
- 개막작 <세자매>를 주제로 영화전문가와 온라인 영화토론회 개최

○ **배수아 작가와 함께하는 한국문학 행사** [9.14. | 문화원 공연장]

- 배수아 작가의 <알려지지 않은 밤과 하루> 작품을 주제로 낭독회와 작가와의 대담
개최, 죄널 키텔 편집자(주말-베를리너차이통)와 도로테 크뤼거 배우 참여 예정

○ 제3회 한국창작음악페스티벌 [9.16.~9.21. | 베를린 콘체르트하우스]

-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과 국악 장르를 접목한 한국의 창작곡 연주회 개최
- 9.16., 9.21. 총 2회 공연

○ 문화원 기획전 [9.16. | 문화원 전시장, 베를린 쇤켈파빌리온]

- 9.16. 이영재(도예가), 김도균(사진작가) 2인전
- 9.17. 이미래(조각/설치예술 작가) 신작 전시

○ 이미래 작가와의 대담 [9.18. | 문화원 공연장]

- 이미래 작가와 관람객과의 직접 소통, 전시에 관한 강연 개최
- 강연주제 : 이미래 작가 작품세계와 페미니즘

○ 유튜브 로타와 함께하는 K-학당 : 추석편 [9.21. | 누리소통망]

- 한류의 일환으로 독일 인플루언서와 함께 다양한 한국어를 알려주는 영상 시리즈
- 본편 내용 : 다양한 추석 음식 도전해 보기와 채식 추석 음식

영국

○ 코리안댄스페스티벌 [9.17.~9.24. | 더 플레이스]

- 허성임 안무가 작품 <W.A.Y>, 시나브로가슴의 작품 <제로>와 <이퀼리브리엄>, 더블 빌 공연 기획더블 빌 공연 기획

○ 장민승 작가 전시 <둥글고 둥글게> [9.21.~10.22. | 문화원 전시실]

- 5.18민주화운동부터 1988 서울올림픽까지 한국 현대사를 영상과 자료를 통해 전시

○ 제20기 K-팝 아카데미 [9.25.~11.27. | 문화기관]

- K-Pop 팬들을 위한 한국문화 전반을 소개하는 프로그램

○ 추석 한국문화 체험행사 [9.26. | 문화원]

- 한국의 고유명절인 추서에 가족 단위로 즐길 수 있는 한국문화 체험행사 진행

○ 한국문학의 밤 [9.29. | 누리소통망]

- 김이듬 시인의 시집 <히스테리아>을 통해 김이듬 시인과 함께 스티븐 파울러 진행으로 토론 개최

○ 9월 하우스 콘서트 [9.30. | 누리소통망]

- '한국의 날'에 출연했던 왕립음악원 한인 연주자 트리오 공연 온라인 개최

프랑스

○ 책거리 민화특별전 [9.1~9.10. | 문화원]

- 한국전통민화연구소, 한국민화협회, 정병모 교수가 기획한 책거리팀 총 47점 전시 예정, 낭트 한국문화축제 <한국의 봄> 9월 말 주스페인 한국문화원에서 전시 개최 예정

○ 책재블청년작가협회(AJAC) 정기전 [9.1~9.17. | 문화원]

- 19명의 회원 작가의 현대 작품(설치, 영상, 회화작품 등) 설치와 전시

○ 봉준호 감독의 영화 <살인의 추억> 및 다큐멘터리 특별 상영회 [9.16.~9.17. | 문화원]

- 봉준호 감독의 영화 <살인의 추억(2003)>과 본 영화를 주제로 한 다큐멘터리인 제우스 카스트로 오르데가 감독의 <살인의 추억 다큐멘터리(2018)> 상영, 관객과의 대화 행사 진행

○ 한글 특별전시 [9.22.~9.31. | 문화원]

- 세종대왕의 철학과 예술이 반영된 한글을 조형적으로도 해석한 예술가와 디자이너들의 작품 특별전 개최, 시각디자인, 패션, 제품 등의 소재로 재해석한 한글의 매력 소개

○ 툴루즈 <우리 페스티벌> [9.25.~9.26. | 툴루즈 장 메리모즈 공연장]

- K-Pop을 주제로 한국문화 축제 개최

○ '판소리를 아시나요?'회의 개최 [9.28. | 문화원]

- 판소리의 역사와 2003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선정되기까지 판소리에 대한 컨퍼런스 개최

○ 판소리 공연 [9.29. | 문화원]

- 동화나 소설을 판소리로 각색해 전 세대가 함께 볼 수 있도록 교훈과 감동이 있는 공연 개최
- 9.29. 안데르센 동화 <영감이 하는 일은 언제나 옳다> 판소리 공연
- 9.30. 빅토르위고 소설 <레미제라블> 판소리 공연

폴란드

- **2021 온라인 K-POP 댄스 경연대회, 'Dare to K: K-POP에 도전하라!'**
[9.1.~9.20. | 누리소통망]
 - 현지 K-Pop 애호가 대상 온라인 댄스 경연
- **문화원 온라인 태권도 강좌 '태권도와 함께 건강한 일상 보내기'**
[9월 | 누리소통망]
 - 홈트레이닝과 태권도 기본동작인 품새 태극 등을 배워보는 콘텐츠를 제작해 주재국민, 교육기관 등에 제공, 태권도와 함께 건강하게 여름방학 및 일상 보내기 행사 추진
 - 총 10회, 매주 금요일 온라인 송출
- **한국어 카드뉴스** [9월 | 누리소통망]
 - 한국어 학습 온라인 콘텐츠 프로그램 진행
- **세종학당 한국어 강좌** [9.20.~9.30. | 누리소통망]
 - 2021 세종학당 가을학기 한국어 강좌 정규반, 특별반 운영
- **<수목: 자연, 우주>전 개최** [9.23.~9.30. | 문화원 온·오프라인]
 - 수목화 작업을 하는 한국 청년작가 2인의 작품 전시, 한국문화 소개와 홍보

헝가리

- **2021년 세종학당 가을학기 강좌** [9월 | 문화원 강의실]
 - 세종한국어 :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의 고른 향상을 위한 통합 한국어 교육,
 - 세종한국어 회화(초급1A-중급1B) : 말하기와 듣기, 실제 의사소통 중심의 실용 한국어 교육
- **2021년 한식콘테스트** [9.3. | 문화원 한식체험관]
 - '김치와 세계화'를 주제로 현지 시각예술 작가, 현지 유명 셰프, 인플루언서가 심사위원으로 진행하는 한식 경연대회
- **<Body.Radical> 공연 비엔날레 한국아티스트 공연**
[9.14.~9.17. | Trip Ship, 문화원 및 헝가리 2개 도시]
 - 현지 무용 축제로서 한국 무용가 공연과 워크샵 진행

○ **추석맞이 어린이 특별 체험 프로그램** [9.18.~9.19. | 문화원]

- 추석 맞이 어린이 대상 한국문화 체험 프로그램, 어린이 공연, 전통놀이 체험, 한식 체험 등

○ **정호승&위솔로이스트 리사이틀** [9.24. | 리스트음악원 솔티홀]

- 2019 유람선 사고 시 구조대원들 특별 초청 공연으로 주헝가리한국문화원 상주예술가 정호승과 국내 오케스트라 솔리스트로 구성된 위솔로이스트의 리사이틀 공연,

○ **노부스 콰르텟 콘서트** [9.26. | 리스트음악원 솔티홀]

- 노부스 콰르텟의 헝가리 공연 개최

○ **독서클럽 운영** [9.25.~9.30.(격주 토요일) | 문화원]

- 한국 도서를 함께 읽고 이야기 나누는 독서클럽 운영

○ **14 KFF 2021 헝가리 한국영화제** [9.23.~9.29. | 코르빈 극장]

- 한국영화 18편 상영과 부가 행사 개최

러시아

○ **문화원 이주 개원 기념 행사 : 한국 민화의 아름다움 전시회 <지속>**
[9.1.~9.30. | 문화원]

- 해외문화홍보원 지원으로 민화회 전시

○ **문화원 이주 개원 기념 행사 : 상트페테르부르크 블랙스트링 퓨전국악 공연 <Road of Oasis>** [9.19.~9.20. | 상트페테르부르크 보리스 에이프만 극장, 모스크바 돔 무지키 켄아트랄니 홀]

- 한국국제교류진흥원의 Korean Travelling Arts 사업 일환으로 공동주최 블랙스트링 퓨전국악 음악회 개최

- 9.19. 상트페테르부르크 보리스 에이프만 극장, 9.20. 모스크바 돔 무지키 켄아트랄니 홀 개최

○ **한국어강좌 개강식** [9.1. | 누리소통망]

- 한국어강좌 신입생 600명 대상 한국어 수업 오리엔테이션 개최

- **모스크바 - 서울의 현대예술 전시회 <지속>** [9.1.~9.30. | 모스크바 박물관]
 - 현대예술 전시회 개최, 안경수, 다니일 안트로포, 안카 아할라야 등 다수의 작가 참여 및 전시
- **‘최성민 디자이너’ 워크숍** [9.10.~9.11. | 스트렐카 연구소]
 - 최성민 디자이너의 워크숍 개최, 회원 세종학당 수강생 참가
- **한자 특강 시리즈 1편** [9.15. | 누리소통망]
 - 한국어 속의 한자어 소개
- **문화원 이주 개원 기념 행사 : 문화원 국유화 이전 개원식** [9.21.예정 | 문화원]
 - 문화체육관광부와 외교부 인사, 문화예술인 등 참여
- **문화원 이주 개원 기념 행사 : K-Pop 커버댄스 축제** [9월 말 | 누리소통망]
 - K-Pop 커버댄스 페스티벌 온라인 지역 본선 개최
- **문화원 개원 기념 견학 행사** [9.24.~9.30. | 문화원]
 - 한국어강좌 신입생 600명 대상으로 문화원 견학과 문화체험 활동 11회 운영
- **가브로쉬 국제 어린이 연극 페스티벌 <지속>** [9.24.~9.30. | 누리소통망]
 - 연극 <효명> 외 참가 예정

스페인

- **산세바스티안 한국문화축제** [9.10.~9.30. | 산세바스티안 도시]
 - 청사초롱 진열, 한국관광사진 야외전시, 모린최 재즈과라트, 조진주 바이올린 콘서트, 종이인형극 등 다양한 한국문화행사 개최
- **‘한국을 맛보세요!’ 행사 개최** [9.15.~9.26. | 산세바스티안 6개 외식업체]
 - 산세바스티안의 현지 셰프들이 직접 한식의 ‘발효’음식인 장과 김치를 이용한 요리를 개발해 이를 현지인과 산세바스티안 국제영화제 관람객들에게 제공
- **코리안 클래식 음악제 : 바이올리니스트 조진주**
[9.16. | 산페르난도 왕립미술원 내 콘서트홀]
 - 마드리드 내 최고 문화예술교육기관인 산페르난도 왕립미술원과 협력해 바이올리니스트 조진주 공연 개최

○ <책은 한껏 아름다워라> 한국의 정물화 책거리 전시

[9.24.~9.30. | 문화원 전시관, 온라인 전시관]

- 조선시대 미술의 대표적인 모티브인 정물화 '책거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을 소개, 전통문화를 기반으로 한 한국 현대미술 전시

○ 온라인 체험프로그램 제10회 '한복열쇠고리 만들기'

[9.20.~9.22. | 문화원 누리소통망]

- 한국 최대 명절인 '추석'을 주재국민에 소개, 한국의 전통 한복으로 된 열쇠고리 만들기 체험행사 개최
- 주최/주관 : 주스페인한국문화원

○ 코리아 사운드 페스티벌 : 악단광칠

[9.28., 9.30. | 마드리드 카날극장, 산세바스티안 빅토리아 에우헤니아 극장]

- 마드리드 3대 극장인 카날극장과 첫 협력사업으로 국악이 현대인들과 즐길 수 있는 음악이 될 수 있도록 공연 기획
- 9.28., 9.30. 국악밴드 악단광칠 2회 공연

터키

○ 가을맞이 온라인 한국드라마·교양프로 상영회(가칭) [9.3.~9.30. | 온라인]

- 드라마 <백희가 돌아왔다>, <페이지터너>, <아웃집 찰스> 등 온라인 상영

○ 한-터 속담 캘리그래피와 타이포그래피 전시회

[9.3.~9.30. | 문화원 전시실, 아르마다 백화점]

- 한국과 터키의 유사 속담을 활용한 문화원 서화강좌
- 수강생들의 캘리그래피와 TOBB대학교 시각디자인과 학생들의 타이포그래피 작품 40점 전시

벨기에

- **브뤼셀 국제 단편 영화제 협력** [9.1.~9.5. | 보자르 아트 센터 (BOZAR)]
 - 한국영화 5편 상영(국제경쟁 3, 비경쟁 2), 감독 초청 지원과 티켓 증정 행사 추진
- **한국문학 북클럽** [9.2. | 문화원]
 - 한국문학의 저변 확대를 위해 한국문학 작품을 매월 지정해 함께 감상하고 의견을 나누는 북클럽 운영
- **K-Pop 써머 스쿨(K-POP Summer School)** [9.1.~9.3. | 문화원 유튜브]
 - K-Pop 써머 챌린지, K-Pop 서머 토크, K-Pop 서머 클래스 등 총 3가지 부대행사 진행
 - 9.3.까지 그룹 에이스(A.C.E.)의 노래 3곡에 대한 안무 강의(주 1회, 총 3회)
- **<한국만화의 비상: 만화, 웹툰> 전시** [9월 중 | 벨기에 만화박물관]
 - 한국만화 역사와 작가, 작품들을 재조명하고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만화문화 '만화방' 재현, 디지털 만화 관련 웹툰 소개 등
- **2021년 한국문화원 하반기 태권도교실** [9월 중 | 문화원]
 - 3그룹(어린이, 성인, 마스터)의 차별화된 태권도 수업을 통해 태권도 역사, 태권도 정신, 태권도 기본자세와 태권도 우수성 전파
- **한국문학 코너** [9월 중 | 벨기에 내 현지 서점]
 - 현지 서점 내 한국문학 작품 독립 코너 운영, 독후감 공모전과 도서증정 행사 진행
- **한국의 궁궐과 왕실 행차 특별전시** [9.9.~9.30.]
 - 외규장각 의궤 반차도 재현 닥종이 인형 1,000점, 한국의 궁 사진과 영상, 전통 악기와 종묘제례악 영상과 사진 전시
- **Jeong(情) 씨네 클럽 한국영화 상영회: Found in Korea** [9.12. | 문화원]
 - 한류커뮤니티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현지인 한국영화 동호회 지원을 통해 한국 우수영화 상영회와 리셉션 개최
- **세종학당** [9.1.~9.30. | 온라인 줌(Zoom)]
 - 수준별 10개 반 구성과 운영, 총 220명 수강생 모집
- **<코리안 미디어월 이이남> 전시** [9.1.~9.30. | 대사관 미디어월]
 - 한-벨 수교 120주년 기념작품으로 이이남의 <다시 태어나는 빛> 등의 미디어 아트 작품 5편 전시

○ **해외국악문화학교 [9월 | 문화원]**

- 무용, 판소리 등의 한국문화 전파, 유관기관과 협력해 국악의 세계를 위한 거점 확보
- 9월. 등록

○ **다큐멘터리 영화 상영회 [9.19.~9.20. | 보자르 아트 센터(BOZAR)]**

- 한국 다큐멘터리 영화 2편 상영회, 감독과의 온라인 질의응답 행사 운영
- 9.19. 영화 <마담 B>, <이태원> 상영
- 9.20. 영화 <박강아름 결혼하다> 상영

○ **K-Pop World Festival 벨기에 지역예선 [9.13.~9.24. | 문화원 유튜브]**

- K-Pop 월드 페스티벌 벨기에 지역 온라인 예선이 진행되며, 참가자들의 데모영상을 문화원 유튜브 내 게시, 심사위원과 온라인 팬투표 합산해 선정
- 9.24. 브뤼셀 드 부르케 광장 내 본선 개최

○ **문화강좌 [9월 | 문화원 줌(Zoom)]**

- 서예, 한지공예, 장구 등 강의 운영
- 총 44명(서예반 24, 한지공예반 10, 장구반 10)

○ **현대무용 공연 안은미 컴퍼니 <드래곤즈> [9.17.~9.18. | Les Halles]**

- 브뤼셀 에테르빅 문화기관의 Les Halles('21-'22) 시즌 개막 공연으로 신작 <드래곤즈> 공식 초청공연 개최

○ **한식체험 밀키트 [9.15.~9.30. | 온라인]**

- 한식을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밀키트 30개 배포 예정, 참가자 행사를 통해 한국음식 홍보와 확산 기대

○ **'한국문화의 날' 축제 [9.24.~9.25. | 브뤼셀 부르케르 광장]**

-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야외 상영회, 전통음악, 창작국악 <악단광칠>, K-Pop <블랙스완>, 국기원 태권도 시범단 공연 등 다양한 한국문화 행사 개최

○ **한-벨 수교 120주년 기념 발트양상블 공연 <한국 클래식 향연> [9.30. | 플라제, La Sucrierie]**

- 한-벨 수교 120주년 기념 맞이 유럽의 주요 오케스트라에서 활동하는 한국연주자들의 챔버 오케스트라 '발트 양상블'의 해외 최초 공연, 총 2회 공연 진행

미국-워싱턴

- **국제현대무용제 선정 작품 3회 상영회** [9.3.~9.5. | 누리소통망]
 - 2021 국제현대무용제에서 선정된 주요 공연작품을 고품질 영상물로 제작, 상영회 3회 개최
- **K-Art 정기 전시 <제3의 것, 터취엄 퀴드(Tertium Quid)>**
[9.1.~9.27. | 문화원 전시실]
 - 실험적이고 독창적인 시각으로 탐구하는 손해원, 장재준, 정유리 작가의 조각, 설치, 회화 18여 점 전시
- **한국어 강좌, 가을학기 운영 시작** [9.6.~12.31. | 문화원 누리소통망]
 - 가을학기 총 15~16개 강좌, 주일 1회이며 총 15번 수업
- **오프스테이지 발레 인 네이처 (OffStage: Ballet in Nature) :**
휴스턴 발레단 조수연 [9.22. | 문화원 누리소통망]
 - 현지 발레단에서 활약하고 있는 한인 수석 무용수를 초청해 탁월한 재능을 홍보하고 현지인들과 무용수와 교감하며 자연을 즐기고 삶을 치유하는 기회 제공
- **아트 올 나잇(Art All Night) 참가** [9.25. | 워싱턴DC 일대 갤러리, 문화원 야외 공간]
 - 인근 지역의 화랑들과 야간 야외 전시회를 개최, 문화원은 차진호, 고아라 2인 조각 작품 전시
- **K-Cinema at Home : <뽕반> 상영** [9.20.~9.26. | 문화원 누리소통망]
 - 정기 한국영화 상영회

미국-뉴욕

- **<2021 오픈 스테이지: 굿바이 460 파크, 함께 만드는 미래> 기획 공연 :**
[9.1.~9.3. | 온라인]
 - 코로나19로 인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한국계 공연예술가들에게 공연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원 이전을 앞두고 현 공간에서 마지막으로 개최되는 문화원의 대표 기획 공연 프로그램
 - #6. Argus Quartet <Narratives of Seasons>

○ **K-Pop Song & Dance Online Competition 개최**

[9.1.~9.12. | 문화원 누리소통망]

- K-Pop을 통해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과 한류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온라인 특별 프로그램 기획
- 9.12. 신청접수 마감

○ **한국 대표배우 200인 사진전『THE ACTOR IS PRESENT』**

[9.8.~9.30. | 문화원 누리소통망]

- 지난 10년간, 한국영화와 독립영화의 발전 기여도, 국내외 영화제 수상자, 글로벌 프로젝트 참여 등의 기준으로 남성 배우 100인, 여성 배우 100인 총 200인의 인물사진과 한국영화의 역사를 소개하는 영상물을 전시

○ **뉴욕한국문화원 x 해외문화홍보원 <Enjoy K-arts> [9월 | 누리소통망]**

- 해외문화홍보원의 Enjoy K-Arts 공연 온라인 영상 시리즈의 홍보 진행
- #8. <악단광칠>

○ **팝파핑 코리안(PopPopping Korean) [9.7. | 문화원 누리소통망]**

- 실생활 회화 한국어를 쉽고 재밌게 배울 수 있는 영상을 매주 1편씩 문화원의 누리소통망을 통해 소개
- 9.7. Episode 29. 재미있지요?
- 9.14. Episode 30. 이거 좀 가르쳐 주세요.
- 9.21. Episode 31. 여기에서 동대문까지 버스를 타고 가세요.
- 9.28. Episode 32. 싸니까 시장에서 사세요.

○ **2021년 온라인 미술강연 I <변장의 달인들: 현대 한국 초상화 사진의 마스크레이드> [9.28. | 문화원 누리소통망, 유튜브(YouTube)]**

- 뉴욕주립대 아밀리 윌레스 갤러리 관장 이혜원 박사를 강사로 초청, 사진작가 니키리, 배찬효, 정 에스 김, 강영호의 프로젝트와 작품에 대한 강연

LA

○ **‘태권도의 날’ 제정 기념 국기원 태권도 시범단 공연**

[9.4. | West Adams High School, Football Field, LA]

- 매년 9월4일을 ‘태권도의 날’로 제정’ 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국기원 태권도 시범단 21명의 다양한 태권도 시범과 공연 개최

- **‘태권도의 날’ 제정 기념 축하행사** [9.4. | The Source Orange County]
 - 태권도의 날 제정에 기여한 하원의원 새런 쿼크-실바, 스티븐 최 2명과 상원의원 데이브 민에 대한 감사패, 명예단증 수여와 지역 태권도 시범단 공연 축하행사 개최

- **2021 영어로 배우는 국악기 시리즈 온라인편**
[9.8. | 문화원 누리소통망,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 현지인들에게 국악을 알리기 위해 국악기에 대한 설명, 연주, 전공자의 수련 과정 등을 재미있게 구성해 총 8편을 제작
 - 9.8. <가야금>
 - 9.28. <거문고>

- **가을학기 오프라인/온라인 한국어강좌** [9.14.~12.31. | 문화원, 누리소통망]
 - 9.14.~11.30. 오프라인 한국어 수업, 매주 화요일
 - 9.12.~12.2. 온라인 한국어 수업, 매주 목요일
 - 온오프라인 수업 총 9개반(초급 5개반, 중급 3개반, 고급 1개반) 운영

- **제52회 남가주한인미술가협회 정기전** [9.10.~9.17. | 문화원 2층 아트갤러리]
 - 전업작가로 구성된 미주 最高 미술단체인 남가주미술가협회의 특별전시

- **제52회 남가주한인미술가협회 정기전** [9.10.~9.17. | 문화원 2층 아트갤러리]
 - 전업작가로 구성된 미주 最高 미술단체인 남가주미술가협회의 특별전시

- **미주한인서예협회 정기전** [9.24.~10.1. | 문화원 2층 아트갤러리]
 - 미주 最大 서예단체 미주한인서예협회 전시

캐나다

- **오타와 한국 영화제(OKFF)** [9월 | 문화원 누리소통망]
 - 9.1~9.14. 임상수 감독 영화 시리즈 : 영화 <하녀>, <돈의 맛> 온라인 상영회
 - 9.20.~10.20. 한국도시로의 초대 : 영화 <곡성>, <택시 운전사>, <바람의 언덕>, <밀양>, <경주>, <애월> 등총 6편 상영
- **오타와 한국 영화제(OKFF): 임상수 감독컬렉션** [9.1.~9.14. | 문화원 누리소통망]
 - 한국영화 <하녀>, <돈의 맛> 온라인 상영회

○ **한국어 강좌 가을학기 수강생 모집** [9.6.~9.12. | 누리소통망, 본원]

- 9.6.~9.12. 초·중급 한국어 강좌 2021 가을학기 수강생 모집
- 9.20.~9.24. 본 원에서 강좌 운영
- 9.27.~9.30. 누리소통망(Zoom)에서 강좌 운영

○ **캐나다태권도협회 연계 캐나다 명소 배경 태권도 동작 사진 콘테스트**
[9.6. | 누리소통망]

- 제2회 캐나다 대사배 태권도 대회 계기 부대행사를 개최해 태권도에 대한 관심 제고와 대회 홍보

○ **한식 웹툰 <곰공이의 한식 여행> 연재** [9.7., 9.21. | 누리소통망]

- 신규 한식 웹툰 시리즈 <곰공이의 한식여행> 연재

○ **K-Food Series 한식 소개 영상 2편 상영** [9.8.]

- 현지인을 위해 K-Food 한식 소개
- 9.8. 감자탕 영상 2편 상영
- 9.28. 닭볶음탕 영상 3편 상영

○ **한국어 강좌** [9.13.~9.17. | 누리소통망]

- 초·중급 한국어 강좌

○ **제2회 캐나다 대사배 온라인 태권도 품새대회** [9.13.~10.5. | 누리소통망]

- 총 3개 프로그램 구성으로 연령대별 대회 진행

○ **문화원 온라인 한식 강좌** [9.13.~10.5.(격주 운영) | 누리소통망]

- 현지인을 대상으로 특정 한식을 선정해 한국음식 문화 소개, 참가자들과의 질의응답 행사 진행

○ **한식요리콘테스트** [9.13.~9.13. | 누리소통망]

- 김치를 활용한 다양한 한식 레시피 공개, 인플루언서들의 누리소통망에 공유해 한식을 홍보하고 1차 평가 진행

○ **한글 사진 공모전** [9.21.~10.12. | 누리소통망]

- 한글날 기념 계기로 생활 속 찾을 수 있는 한글 사진 공모전 개최

○ **K-Story** [9.25 | 누리소통망]

- 현지 어린이 대상으로 한국 전래동화 구연

○ **한국문화주간 계기 한식 소스 공모전** [9.23.~10.7. | 누리소통망]

- 오타와 내 학교의 요리학과 학생들 대상으로 한국의 발효음식 장을 활용한 레시피 콘테스트 개최

○ **스텔라장 온라인 라이브 공연** [9.30. | 유튜브]

- 한국주간·문화원 5주년 기념, 가수 스텔라장을 초청해 온라인 라이브 공연 진행 예정

○ **2021 한국주간: 클래식 공연** [9.26. | Lansdowne Park]

- 한국주간·오프라인 행사로 현지 클래식 연주가 3-4분 초청해 양회 공연 예정

○ **2021 K-Academy 가을학기** [9.28.~12.10. | 누리소통망, 문화원 다목적홀]

- 해금, 장구춤, 전통무용 등의 교육 프로그램을 현지인 대상으로 진행 계획

브라질

○ **한복 일러스트 전시<흑요석의 한복이야기>** [9.1.~9.18. | 문화원 전시관]

- 유명 한국 일러스트레이터 흑요석의 한복 일러스트의 작품을 현대적 한복과 전통적 한복 전시를 통해 한복의 아름다움을 소개

○ **온라인 K-Dnace 강좌** [9.3., 9.17. | 문화원 유튜브]

- 시민과 문화원 유튜브 채널 구독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강좌 진행

○ **온라인 한식강좌(이론편)** [9.5., 9.19. | 문화원 유튜브]

- 해물짬, 해물칼국수, 오징어 볶음 등의 한식음식을 한식을 처음 접해보는 외국인을 초청해 직접 맛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음식문화에 대한 토크 프로그램 진행

○ **한국영화 정기 상영회** [9.11. | 문화원 1층]

- 한국영화 저변 확대를 위하여 다양한 주제의 한국영화를 포르투갈어로 번역하여 자막과 함께 문화원에서 상영하고 관람객 간 소통할 수 있는 공간 제공

○ **브라질 온라인 한국영화제** [9.15.~9.30. | 알라카르치 영화관람 사이트]

- 브라질 내 한국영화 저변 확대를 위해 온라인 한국영화제를 개최, 고전 한국영화와 올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수상한 윤여정 배우 특별전 등 한국영화를 소개

○ **온라인 세종학당 한국어 강좌-2학기** [9월(매주 화,토) | 세종학당온라인학습플랫폼]

- 현지 수강생 대상으로 실시간 화상 무료 한국어 강의 실시, 10개 반 운영

○ **온라인 태권도 강좌** [9.9. | 문화원 누리소통망]

- 현지 태권도 수련생과 일반인 대상으로 서기, 막기, 지르기, 발차기, 호신술, 겨루기 등 교육 프로그램 운영

○ **한-브 음악계 교류 협력 사업** [9.27.~9.28. | 줌(Zoom), 유튜브]

- EMESP 음악학교 학생 대상 국악을 소개하고 교류 할 수 있는 온라인 국악 클래스와 온라인 연주회를 위한 마스터 클래스 운영

아르헨티나

○ **제8회 부에노스아이레스 한국영화제** [9.6.~9.26. | CINE.AR PLAY]

- 공공 온라인 영화상영, 한국영화 13편(최신 상업영화 8, 해외 유수영화제 수상작 4, 애니메이션 1)
- 9.6. 공관장과 기관장 축하, 영화 <남산의 부장들> 상영 등
- 9.7. 한-아 영화교류 특별 대중강연, 아르헨티나 제작 에피소드와 영화 <새해전야> 상영 등
- 9.9. 한-아 영화 심포지움 : 영화제작 기획 방향과 실제

○ **제3회 한국영화 평론공모전** [9.1.~9.26.]

- '제8회 한국영화제' 연계 사전행사로 한국영화 평론공모전 개최, 심사를 통해 3명 선정해 문화원 누리소통망을 통해 선정된 원고 발표와 시상식 예정

○ **온라인 태권도 강좌** [9.1.~9.30. | 문화원 유튜브]

- 국기원의 태권도 품새 영상 활용, 스페인어 자막 삽입 후 문화원 유튜브 주 1회 게시

○ **2021 하반기 온라인 한식 강좌 운영** [9.1.~9.30. | 온라인]

- 현지인들 대상 주 1회 다양한 한식 요리강좌 진행

○ **하반기 문화강좌 운영** [9.1.~9.30. | 온라인]

- 현지인 대상으로 한국문화의 보급과 이해도 제고, 한국무용, 한국노래, 태권도, 한류 등 5개 문화강좌 개설

○ 9월 온라인케이팝 댄스강좌와 온라인 콘테스트 [9.1.~9.2. | 문화원 유튜브]

- 현지인 대상으로 K-Pop을 통해 한류층 확산과 한국문화 소개, K-Pop 댄스 강좌 콘텐츠 제작과 게시(월 2회)
- #1. 9.9. 엑소의 <러브샷>
- #2. 9.23. 제시 <눈누난나>

아시아

일본-도쿄

○ 제13회 한일축제한마당2021 in Tokyo [9.11. | 온라인]

- 스테이지 프로그램 : K-POP콘서트, K-POP댄스, 한일 교류 퀴즈대회, 한일 교류 스테이지, 일본인 재즈피아니스트의 K-POP연주 등
- 온라인 부스 : 온라인 한국 영화 상영회, 한국 요리 콘테스트, 한국 여행 검정 시험, 한국어 및 한국 관련 서적 할인 판매, 온라인 교류의 장 등

○ 도쿄올림픽 개최 계기 'K-Pop 댄스콘테스트 2021' 최종결과 발표 [9.11. | 온라인]

- 현지에서 활동 중인 아마추어 K-Pop 커버댄스 단체(동아리, 동호회 등), 일반인을 대상으로 온라인 콘테스트 개최
- 'K-Pop 댄스콘테스트 2021 대회' 개요와 한일축제한마당 라이브 중계에서 최종결과 발표

○ 도쿄올림픽 개최 계기 한국 우수문화 소개전 [9.1.~9.28. | 갤러리 미]

○ 한-일교류 작문콘테스트 2021 최종심사회의 [9.13.]

- 9.13. 2차에서 선정된 각 부문별 최우수상(1명), 우수상(2명), 가작(4명), 입선(12명)
- 9.15. 공식누리집을 통해 발표

○ 한글날 기념 한글 캘리그래피 심사 [9.14.~9.15.]

- 9.14.~9.15. 일반 부문, 학생 부문 대상 작품 접수, 심사
- 9.15. 대면심사로 진행, 각 부문별로 최우수상(1명), 우수상(2명), 가작(4명), 입선(6명) 선정
- 9.21.(수) 심사결과발표 예정

○ 온라인 한국영화 특별상영회 [9.1.~9.15. | 온라인]

- 9.11에 개최되는 한일축제한마당2021 in Tokyo 행사와 연계, 온라인 상영으로 집에서 한국영화를 즐기고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기회 제공

○ **온라인 한국영화 기획상영회** [9.21.~9.29. | 온라인]

- 코로나19로 영화관에서 영화를 관람할 수 없는 현지인들을 위해 집에서도 영화를 즐길 수 있도록 한국영화를 온라인으로 상영
- 9.21. 제1회 액션 특집, 9.29. 제2회 액션 특집

일본-오사카

○ **한국 문학의 달(온라인) 한국 문학 토크 이벤트** [9.5. | 문화원 유튜브]

- 일본에서도 번역·출판된 화제작 『여자 둘이 살고 있습니다』 작품 소개, 한국 사회와 문학 토크 운영

○ **한국 문학의 달 특별전시 <책 읽기 좋은 날>** [9.1.~9.18. | 문화원 미리내갤러리]

- 한국 문학도서 전시, 한국문학 소개, 영상물 상영 등

○ **2021년 K컬처 아카데미** [9.1.~9.3.. | 문화원 누리홀]

- 한국민화, 가곡, 보자기&매듭, 전통무용, 가야금, 판소리, 민요, 장구, 태권도, 한지공예, K팝 커버댄스 등의 총 11개 강좌 운영

○ **2021년도 7월 학기 <세종학당 한국어강좌> 운영** [9.7.~9.30. | 세종학당 강의실]

- 회화 강좌 초·중·상급반 등 총 21개 강좌 운영, 174명 수강

○ **SAC on SCREEN 사업일환 발레 <심청>상영** [9.18. | 문화원 누리홀]

- 예술의 전당 협업사업의 일환으로 발레 <심청> 상영회 개최, 우리 고전 동화를 발레 장르로 각색

중국-북경

○ **한국영화 정기상영회** [9월 | 문화원 지하 1층 공연장]

- 9.10. 영화 <씨니> 상영
- 9.17. 영화 <클래식> 상영
- 9.24. 영화 <바보들의 행진> 상영

- **라이브 전시투어** [9.13. | 문화원 공식누리집, 누리소통망]
 - 한국국립현대미술관에서 개최하는 전시를 큐레이터의 자세한 설명과 함께 작품 소개
- **제5회 실크로드 국제문화박람회 : 둔황** [9.24.~9.27. | 둔황국제회의중심 A관]
 - 한국관 주빈국 참여, 공연 행사 운영 등
- **서화에술교류전** [9.24.~9.30. | 문화원 지하 1층 전시장]
 - 대한민국공공미술협회와 중명련문화발전유한공사 작가 24명 작품 80여점 전시
- **예술의전당 우수영상 상영회 개최** [9.29. | 문화원 지하 1층 전시장]
 - 연극 <병동> 공연영상 오프라인 상영회

중국-홍콩

- **한지소주(身之所往)- In search of the absent continent** [9.1.~9.18. | 문화원]
 - 인간의 내면과 외면, 육체와 정신에 대한 상호관계를 주제로 한 전시
 - 홍콩 작가 정윤경, 루루 아이(Lulu Ngie), 힐러리 혼(Hilarie Hon) 3인 참여
- **Korea through your Plate 한식 컨테스트** [9.5.]
 - 김치를 이용한 한식요리 대회
- **예술의 전당 SAC on screen 상영** [9.10.~9.11.(금,토) | 문화원]
 - 영화 <스냅>, <정크>, <클라운> 상영
- **멀티미디어실 영화 상영회** [9.1.~9.30.(화,토) | 문화원]
 - 영화 <백두산>, <시동> 2회 상영
- **CityU 한식 식문화 관련 소개 및 강연** [9.14.]
 - CityU에 방문해 한식 소개와 강연 진행



(출처 : 주홍콩한국문화원)

○ **K-pop Zone 현빈 행사** [9.13.~9.30. | 문화원 K-Pop Zone]

- 현빈 홍콩 펜클럽이 주최하는 사전진시, 응원행사

○ **K-Food Masterclass 온라인 영상 공개·홍보** [9.24. | 온라인]

- 김치와 수원갈비 명인 강좌 개최

○ **10월 문화제 기자회견** [9.23. | 문화원]

- 10월 문화제 행사 홍보

인도네시아

○ **<미디어스케이프: 물질, 감각, 그리고 그너머> 뉴미디어 국제 전시회**
[9.11.~9.30. | 온라인]

- 한국, 영국, 인니 3개국 작가들이 참여하는 뉴미디어 전시회

○ **K-Pop 커버댄스 페스티벌** [9.11. | 온라인]

- 서울신문 공동주최, K-Pop 커버댄스 경연대회 인니예선 개최

○ **인도네시아 K-POP 아카데미** [9.16.~9.30. | 온라인]

- 인니 주요도시 10곳에서 비대면 K-Pop 댄스커버와 싱커버, 초·중급반 운영

○ **포토카드 꾸미기 실시간 방송** [9.6. | 온라인]

- 부산관광공사 협력, 부산 야경을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 관람 행사. 360도 관람 가능

○ **360° VR 투어 시리즈** [9.9.~9.30. | 온라인]

- #2. 9.9. 부산 야경

- #3. 9.16. 경기도

- #4. 9.23. 서울

- #5. 9.30. 설악산

○ **드라마속 K-뷰티 공모전** [9.15.~9.20. | 온라인]

- K-드라마 주인공의 화장법과 패션을 응모자가 직접 시도하는 콘텐츠 공모전

○ **한국의 가을 비대면 실시간 방송** [9.16. | 온라인]

- 한국의 가을에 대해 소개하는 비대면 실시간 방송

○ **K-Explore, 한국의 종합경기장 답사** [9.17. | 온라인]

- 한국체류 세종강사 출연, 한국의 종합경기장 답사

○ **K-Craft, 전통종이탈 만들기 특강** [9.14 | 온라인]

- 한국전통탈 만드는 방법과 채색하는 방법에 한 방송

○ **한국의 명절 추석 이벤트** [9.20. | 온라인]

- 한국의 명절인 추석에 대해 알아보고, 차례, 민속놀이 등을 소개하는 비대면 방송

○ **9월 인문학 특강 : 수어통역사에 대해 알아보기와 수어로 소통하기**
[9.21. | 온라인]

- 인도네시아와 한국어 수어 통역사를 초빙해 두 언어의 수어 시스템 차이점과 수어통역사 직업에 대한 소개

○ **찾아가는 문화원 및 별별스타 중부자바** [9.25. | 온라인]

- 중부자바 지역주민 대상, 한국문화홍보와 한류콘텐츠 경연대회 개최

○ **세계관광의 날 기념, 제주-발리 사진전** [9.27.~10.3.]

- 유네스코에 등재된 제주와 발리의 명소 사진전, 해녀 특별 전시관 등

○ **한국의 명절 추석 이벤트** [9.20. | 온라인]

- 한국의 명절인 추석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고, 차례, 민속놀이 등 소개

○ **9월 인니 한류팬 초이스 어워드** [9.30. | 온라인]

- 9월 한달 간 인니에 방송된 K-Pop과 드라마 인기투표 결과방송

인도

○ **한국-인도 우정 온라인 퀴즈 경연대회** [9.1.~9.30. | 온라인]

- 인도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한-인도 친선 퀴즈 경연대회, 학교별·도시별, 전체 국가
우승자 시상(한국방문 등)

- 1차~3차까지 온라인 진행

○ **2021 전인도 K-Pop Contest** [9.17.~9.30. | 온라인]

- 인도 전역 20개 도시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2021 전인도 K-Pop Contest' 2차 온라인 지역 예선 진행
- 20개 지역 참가 : 아마드바드, 아이자울, 보팔, 부바네스와르, 벵갈루루, 첸나이, 데라둔, 델리, 군투르, 구와하티, 하이데라바드, 이타나가르, 임팔, 코히마, 콜카타, 렉나우, 뭄바이, 나그푸르, 파트나, 푸네

○ **문화원 세종학당 2021년 2학기 강좌** [9.1.~9.30. | 온라인]

- 총 12개 정규반(주중 5, 주말 7), 총 271명

○ **제4차 온라인 한국어 입문반 강좌** [9.25.~9.30. | 온라인]

- 한국어 자음·모음, 기초 문법 강의, 총 1,200명 수강
- 4개반(주중 2, 주말 2), 영어 2개반, 힌디어 2개반 운영

○ **인도학교 한국어 정규반 강좌** [9.1.~9.30. | 온라인]

- 한국어 초급 문법과 한국문화 강의
- 총 21개 학교, 15개 반, 총 491명 수강

○ **인도학교 한국어 취미반 강좌** [9.1.~9.30. | 온라인]

- 한국어 초급 문법과 한국문화 강의
- 총 6개 학교, 9개 반, 총 293명 수강

태국

○ **태권도 온라인 강좌 : 태권도 홈트레이닝** [9.7.~9.28. | 문화원 누리소통망]

- 태권도 관련 홈트레이닝, 태권체조 등 코로나19 시대에 기초체력을 기를 수 있는 태권도 콘텐츠 제작과 상영

○ **K-Pop 아카데미 댄스·보컬 강좌** [9.7.~9.28. | 문화원 누리소통망]

- 한국에서 활동 중인 댄스, 보컬 트레이너를 초빙해 한류팬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K-pop 댄스, 보컬 강좌 운영

○ **세종학당 및 한국문화강좌** [9월 중 | 문화원 누리소통망]

- 세종학당 전 강좌 온라인 운영, 가야금·단소 증급반 운영

○ **KCC On Air 태국 어머니의 날 맞이 한류스타 뱀뱀 어머니 초청 토크쇼**
[잠정보류 | 문화원 누리소통망]

- 태국 어머니의 날을 맞이해 한국에서 갓세븐으로 데뷔해 현재 솔로로 성공적인 홀로서기를 한 뱀뱀의 어머니를 초청, 아들 뱀뱀의 한국에서 데뷔까지의 과정과 한국에 대한 토크 진행

필리핀

○ **한국문화원 개원 10주년 기념 숏터뷰** [9.10. | 온라인]

- 주재국 내 한국문화가 끼친 선한 영향력, 한국문화의 인기 현황에 대한 숏터뷰 영상 매달 10일 배포
- #5. K-뷰티

○ **전통문화가 있는 목요일** [9.9.~9.30. | 문화원 누리소통망]

- 명절 상차림, 제사음식, 절하는 법 등 소개

○ **9월 온라인 스크리닝 행사** [9.12.~9.26. | 문화원 누리소통망]

- 전시 온라인 스크리닝으로 국립현대미술관 전시 소개 영상 개시

○ **한-필 문화 교류 축제** [9.25. | 온라인]

- 한-필리핀 양국의 문화 소개하고 양국의 교류의 장을 마련하는 연례행사로 한-필 문화 교류 축제 개최

베트남

○ **한국동화 읽어주기 ‘엄마의 이야기’ 운영** [9월 중 | 하노이 소재 어린이집]

- 하노이 내 4~5개 어린이집을 선정해 영유아 대상 한국동화 읽어주기 프로그램 운영

○ **오늘도 나의 사랑, 한국어 영상 제작과 확산** [9월 중 | 문화원 누리소통망]

- 현지 한국어 강사가 참여해 한국어 강의 릴레이 영상 제작, 문화원 누리소통망을 통해 확산
- #4. 직장문화

○ **코로나 19 편지 영상 제작과 확산** [9월 중 | 문화원]

- 코로나 19로 인해 코로나19로 인해 고향에 가지 못하는 한국에 거주하는 베트남인을 격려하는 메시지 영상 편지 몰래카메라 제작 1편

○ **한국문화원이 간다** [9월 중 | 문화원]

- 한국과 베트남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물들에 대한 인터뷰 영상 제작, 9편 <한국편> 촬영과 편집
- 9.9 8편 영상 송출
- 9.23. 9편 <한국편> 영상 송출

○ **나에게 한국어란 인터뷰 영상 제작과 확산** [9월 중 | 문화원]

- 한국어 공부에 대한 동기부여를 목적으로 한국어를 통해 멋진 삶을 살고 있는 현지인의 인터뷰 제작
- 총 12편 시리즈

○ **한국문학 도서 소개 영상 제작과 확산** [9월 중 | 문화원 누리소통망]

- 베트남에서 출간된 한국문학 도서 영상 총 8편 제작, 누리소통망에 게시
- 9.18. 7편 <구름빵> 상영

○ **한국에서 온 영상 제작과 확산** [9월 중 | 문화원 누리소통망]

- 현지인과 함께 베트남 가족 및 지인에서 전하고 싶은 한국 소식을 주제로 영상콘텐츠 총 12편 제작, 누리소통망에 송출

○ **현지인 대학교 합격 인증 이벤트** [9월 중 | 문화원 누리소통망]

- 2021년에 입학한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축하의 응원 메시지를 전달
- 9.1. 대학교 새 학기에 맞춰 100초 이내 응원 메시지 제작

○ **2021 베트남 출간 한국 도서 독후감 공모전** [9월 중 | 문화원]

- 2020년을 시작으로 매년 행사를 개최해 베트남 내 대표적인 한국 독후감 공모전으로서의 발전 모색

○ **2021 베트남 전국 한국어 말하기대회 지역별 본선 개최** [9월 중 | 문화원]

- 한국어 교육, 한국문화 저변확대를 위한 전국 단위 한국어 말하기대회 개최
- 참가분야 : 일반부(전공/대학교), 일반부(비전공/세종학당), 중·고등부(한국어 시범과목 운영학교)
- 9월 지역별(북부, 남부) 본선

○ **2021 K-pop Lovers Festival** [9월 중 | 문화원]

- 베트남 전역을 대상으로 K-Pop 애호가 대상 커버 공모전, 온·오프라인 형식 추진
- 9월 결승전 예정

○ **K-드라마 패러디 영상 공모전 ‘나홀로 방구석 드라마 패러디 온라인 대회’**
[9월 중 | 문화원 누리소통망]

-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에서 한국문화를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방안의 일환으로 ‘나 홀로 방구석 드라마 패러디’를 주제로 K-드라마 명장면 패러디 영상 공모전 추진
- 9월. 수상작 문화원 누리소통망에 공유

카자흐스탄

○ **온라인 도전! 한국 문화 골든벨** [9.1.~9.24. | 온라인]

- 주재국민 대상 한국문화 퀴즈 행사 개최

○ **가을학기 온라인 한국어강좌** [9.1.~9.30. | 온라인]

- 현지인을 대상으로 한국어 강의 진행
- 정규반(세종한국어 1~4) 과정. 총 10개 반 운영

○ **K-Pop 커버댄스 공모전** [9.1.~9.30. | 온라인]

- 주재국민 대상으로 K-Pop 커버댄스 개인·팀 대상 공모전 개최

○ **온라인 한국관광 사연 공모전** [9.1.~9.10. | 온라인]

- 주재국민 대상 문화원 온라인 관광 사진전 관람 후 희망하는 한국 방문지에 대한 사연 응모

○ **이이남 미디어아트 전시** [9.1.~9.12. | 카자흐스탄 초대대통령 도서관·박물관(신관)]

- 이이남 작가의 미디어아트 작품 전시

○ **SAC on Screen <심청> 감상문 공모전** [9.1.~9.3. | 온라인]

- 발레 <심청>공연 감상문 공모전

UAE

- 정기영화상영 [9.3.~9.11. | 시네마 아킬, 두바이]
- 영화 <서편제> 연속 상영
- 2021 태권도 강좌 운영 [9월]
- 2021 세종학당 특별 4학기 온라인 한국어 강좌 운영 [9월]
- 정기기획전시 <조선 왕실의 소망과 바람, 궁궐 장식그림> [9월]
- 이마라티의 추석 [9.21. | 온라인]
- 한국의 명절 추석과 그 문화를 소개. 현지의 이드 명절과 추석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해보고 온라인 전통 공연을 통해 추석을 기념

싱가포르

- 싱가포르 중추절 축제(Mid-Autumn Festival) 참가
[9.15.~10.3. | Gardens by the Bay]
- 싱가포르 주요 관광명소이자 국립식물원인 Gardens by the Bay가 주최하는 중추절 축제에 한국 전통문화 홍보
- 단원 김홍도, 기산 김준근 풍속화를 표현한 디지털 작품 전시

오세 아니아

호주

- 한호예술재단 미술 공모전 [9.3.~9.23. | 문화원]
- '제 8회 한호예술재단 미술 공모전'의 결선 진출자 작품 전시와 시상식을 진행하며, 주재국 코로나 델타 변이 확산에 따른 제한 조치로 기존 일정 변경

○ 한글날 기념 온라인 이벤트 [9.1.~9.30. | 온라인]

- 한-호 수교 60주년 기념 한글 단어와 어절 등을 골라 손글씨로 적고 꾸미는 행사
- 9월 한글날 기념 온라인 이벤트 진행, 10.9. 결과 발표

○ 2021 호주한국영화제 [9.1.~9.30. | 팔라스 시네마, ACMI, 엘리자베스 씨어터]

- 한국의 최신 우수 영화 유료 상영
- 9.2.~9.6. 캔버라, 영화 8편 상영
- 9.16.~9.23. 멜버른, 영화 16편 상영
- 9.16.~9.19. 브리즈번, 영화 8편 상영

○ 한국문학 북클럽 [9.23. | 온라인]

- 선정도서의 저자인 한국계 유지니아 김의 장편소설 북클럽 개최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 제11회 한국영화제 [9.2.~9.4. | 라고스 IMAX영화관]

- 인구 2,400만의 경제 중심의 도시 라고스에서 한국영화제를 개최, 한류의 대표적인 한국영화를 나이지리아 전역으로 확산시키는 계기로 활용
- 영화 <관상>, <력키>, <파파로티> 총 3편 상영

○ 세종학당 가을학기 한국어강좌 개강 [9.6.~12.16. | 문화원 한글교실]

- 한국어 능력(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기본적인 능력배양, 한국어 강좌를 통해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 제고
- 9.6. 가을학기 한국어강좌 15주 과정 개강, 세종 한국어 1~6강좌 운영

○ 태권도 수업 개강 [9.6.~12.2. | 문화원 태권도장]

- 태권도 가을학기 수업 개강
- 1주일에 2번 (월,목)

○ 한식문화교육사업 <김치편> [9.6.~9.7. | Red Dish Chronicles Culinary School]

- 아부자에서 주재국 시민과 외교단을 대상으로 한식문화교육을 진행, 한식에 대한 인식 제고, 매월 한주씩 한식주간을 지정해 엄선한 주제에 맞춰 한식 요리 시연

○ **K-Pop 아카데미** [9.13.~10.8. | 문화원, 라고스대학, 포타코트대학]

- 현지에서 K-Pop의 지속적인 확산을 위해 전문 K-Pop댄서를 초빙해 케이팝 아카데미 운영, 수도 아부자 내 문화원과 라고스, 포타코트 각 시립대학교에서 동시 진행

○ **제1회 태권도 창작품새 대회** [9.17. | 문화원]

- 온라인 예선을 거친 최종 결선진출팀 3팀을 선발해 문화원에서 결선 진행과 시상식 개최

○ **추석맞이 씨름대회** [9.22. | 문화원 태권도장]

- 씨름협회에서 기증한 씨름 물품으로 추석맞이 씨름대회 진행, 토너먼트 형식으로 진행하며 최종우승자에게 상금과 쌀한가마니 증정

○ **극작가협회 MOU 체결식 진행** [9월 둘째 주 중 | 문화원 스튜디오]

- 아부자에 소재한 극작가 협회와 문화교류를 위한 MOU 체결식 진행 계획

Vol.19

월간 해외문화정책동향

모음

2021년 9월호

발행처

해외문화홍보원

www.kocis.go.kr

발행일

2021년 9월 10일

발행인

박정렬

기획 및 편집 총괄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최경희, 이유림

www.kofice.or.kr

외부 집필진

정태구 | 주오사기한국문화원장

김소연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국제협력팀 팀장

디자인

studio 213ho

www.213ho.com

ISSN 2713-9387

